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澤洙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新年의첫消息 —米蘇間債務協定成立—

一

危機의해라고 떠들든三五年은 이미닥치어와서 하로人밤까지지내엇다。이로부터그危機가 어떠케增長되고發展되어가겟는냐에對하야 一般世人의 關心은 勿論노파잇슬것이 事實이라고생각한다。그러나 新年劈頭에잇서 滿洲國과中國間 通郵問題가 圓滿히協定되엿슴을 傳하는同時 日本과滿洲間 商租權問題가드듸어妥着되엿슴을報한다。勿論日滿은서로親密한關係라 商租問題쯤은가지고相持不下할리는絕對로업슬것이요 最近中國이 比較的日滿에對한讓步를보이어 通郵通車의原則을承認한以上 그具體的協定에잇서 새삼스러운紛糾를보일리가업스리라고는 推測되는것이지만 이해의첫消息으로서는 넘어나 平和外交的인 늣김을줌이업지안타。通郵協定을 끗내고나서中國代表가 右協定은 互相的諒解를本旨로하야 成立된것으로서協定의決意를発함에 望아安心한다고말하얏다。오즉通郵問題뿐이아니라 이와가티互相諒解를本旨로하야 모든協定이되는곳에는적어도日中間의外交가 多年의危機를 벗어나서 도리어平和의 一路로나아갈것이나아닐까고도 생각된다。

二

勿論中國에는 宋子文氏以下歐米派가 아즉도 巨大한 潛勢力을 가지고잇서서 汪兆銘氏等의親日政策을 根本的으로 攻擊하고잇다。汪兆銘氏와 政權을 轉遞하고 다시 그들이 當局하게된다고하야 얼마나排日을 도모할수잇스랴는 本來疑問에 屬하는날이겟지만 汪兆銘氏의 政權이반듯 이固定의地位를 이르랴도자못疑問에 屬하는바이 업지안타。더구나 英米各國의 動向을따라서 中國은 例의 以夷制夷政策을 取할것으로 今의 親日政策도決코 믿을것이 못된다。이때까지는 英米가 中國만을爲하야 極東의말썽을이르키지안해온것이事實이지만 英米가極東의말썽을 스스로일삼을때에이르러中國의排日政策을 挑發시키지안하리라고는 保障키어려울것도事實이다。그럼으로 危機의이해는日中關係보담도 오히려日蘇乃至日英米關係에노히어잇다 고보아야된다。지금日蘇關係는 北鐵交涉이大體로 成立되얏고 또그細部分에亘한折衝도 어느程度까지進展되아잇다고하지만 今年의海軍本會議를압두고 昨年末日本은華府條約廢棄의通告를斷行하야日米의關係가 方今緊張해잇는것은 크나큰遺憾이다

三

米國은 日本의條約廢棄에對抗코자 海軍豫備會談이再開되는境遇 極東의政治問題를提議하리라고떠드나 日本은애초부터 極東政治問題에對하야 論議치안는다는것을條件삼고 海軍豫備會談의招請에應하엿더로 米國의그提議를默認할리가업다。豫備會談에잇어서 萬一日米間의 正面的衝突이惹起된다고하면 本會議는그開催도 期待키가 어려울뿐이 아니라 設使 그開催가可能하다고하더라도 別所得이업슬것은 明若觀火의일이다。米國이 極東政治問題를 提議한다는데 對하야 그理由로 드는바는 華府條約과同時에 締結된 九國條約이 華府條約失効와함께 그역시危殆되야한다는것이라는데 日本은 勿論華府條約과 九個國條約의 無關係를 들어 米國의解釋을 反駁하고잇다。米國은確實히日本의海軍條約廢棄를 九個國條約에 끌어다가부치는것이어니와 米國의이 態度부터가 中國에對하야 어떠한影響을 끼치어업지못할것은推測되는 日米關係는 작자어지될인가。

蘇聯回訓에基하야 北鐵交涉再折衝

支拂保證問題에蘇聯側讓步

日本側再考慮를要求

【電通東京電話】北鐵讓渡交涉의蘇聯側代表카즈롬스키氏는 日本側에서 提案한讓渡條件에關하야本國政府로부터 回訓을接하엿슴으로三十日午後六時 外務省에東鄕歐亞局長을 訪問하고 午後十時半까지 四時間에亘하야 會談을 遂하엿다右會談에 잇서蘇聯側은未解決로된 滿洲國支拂保證問題 物資支拂價額裁定問題及蘇聯側從業員의退職資金其他 問題에關하야 從來부터자못讓步하는態度를表示하여왓스나 日本側으로서는 아즉充分치못함으로東鄕局長은

日本政府로서는 이程度의 讓步로는 滿足하는수업다 日本側의提案은 極히妥當하고 또實行可能한 提案임으로 此際蘇聯政府는 直時此를 受諾하고 北鐵交涉을速히 圓滿成立식히도록 考慮하기를 바란다萬若蘇聯側이細目的問題로 언제까지 不幸한事態를反覆하야交涉의 圓滿成立을 妨害하면日本側도 或은支拂保證에關한蘇聯側의 意向을無視하게될는지도알수업다

고相當히 强硬히 蘇聯側의考慮를促하엿다 此에對하야카즈롬스키氏는日本側의主張에對하여는거듭莫斯科政府에請訓하겟다는 旨를述하고『右回訓이잇는대로再次會見하고십다』고希望하엿슴으로東鄕局長도此를承諾하고右會見을終了하엿다 따라莫斯科로부터 回訓의到着을 待하야 一月二日又는三日頃에다시 東鄕、카즈롬스키會見이잇슬터인데 이結果北鐵讓渡交涉은 겨우最後의段階에入하라라고觀測되다 그리고三十日會見에잇서 蘇聯側에서 讓步하여온點은左와如하다

一、支拂保證問題

蘇聯側은 從來滿洲國의 支拂에日本政府의 保證外에日本銀行團의保證도要求하고잇섯스나後者의保證이困難한것을認識하고 此를撤回하고 따로要求를提出하엿다

一、物資支拂價額裁定問題

從來物資支拂價額의裁定에關하야 日滿蘇三國間에 意見一致되지못할境遇最後의決定을第三國人에委任하자고稱하나 第三國人의介入에는 若干讓步하나日本側은全然此를撤回하기를要求하엿다

一、退職資金支拂問題

退職資金의支拂期間에關하야從來蘇聯側은即時拂及一個年拂의二途를要求하고日本은 全部二個年拂을主張하고잇는데 蘇聯側은今回中間을取하야一個年半拂을提出하엿다그러나日本側은依然二個年拂을主張하고잇고退職資金의計算方法에關하여도아직意見一致되지못하엿다退職資金과別途한慰勞金賦拂金에 對하여는從來朝鮮銀行의 保證을要求하엿스나蘇聯側은 此를撤回하엿다

中國反亂兵 協定線內에逼入

【電通北平三十日發】察哈爾省反亂兵의 一部는協定線上의昌平附近에서 黃樹齊의 騎兵部隊와衝突되여 一部는二十九日線內로逼入한形跡이잇서서 北平軍分會는크게狼狽되여 再挫敗를講究하고잇다

英米不滿態度로 再開期日은未定

【倫敦二十八日發聯合】山本代表는二十八日午後米代表 스탠드레軍令部長과會見後午後四時英海軍省을訪問하고 차트휠드軍令部長과私的會見을行하엿다 이는和協試案에對한 日本政府의回訓內容을傳한것으로觀測된다 又山本代表는二十九日午後四時十五分加藤參事官을帶同하고 英外務省에크레기參事官과會見懇談키로되엿다右會談에서英國의和協試案에對한日本政府의 回訓內容을傳하는同時에 豫備交涉再開期日決定에關하야日本側의希望을說明하야 英代表를說得키에 努力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米代表는日本이軍備均等을要求하는限 再開期日確定에는絕對反對의態度를 固持하고잇다 英國側은接近에일으러 日本政府의回訓內容이 英國側의意思에合致되지안는것을 察知하고日英會談을 繼續함을 질기지안는態度를取하야 再開期日의 確定은 結局有耶無耶裡에 終幕으로지게되지나안할가 推測되다英國官邊에서는 假令今日英國側聞에 海軍交涉의基礎에關한協議가 行해진다하더라도이는極히簡潔한것으로何等重要性을 가진것이아니라하야 山本代表의 歸國도不遠間에 實現될것으로觀測하고잇는模樣이다

米代表一行 紐育으로向發

【電通華盛頓三十日發】軍縮豫備交涉米國代表一行을태운 華盛頓號는 卅日午後三時마침내 스삼프톤을出發하야 紐育으로向하엿다 그리고歐洲巡遊를終了한 廣田外相特派使節吉田茂大使도 와싱톤號에便乘하엿슴으로 一月五日着米까지 大西洋航行中의七日間에잇서 이러나라고擬想되는米國代表部와의接觸에는 적지안흔興味가잇다

廢棄通告를밧고 佛海相聲明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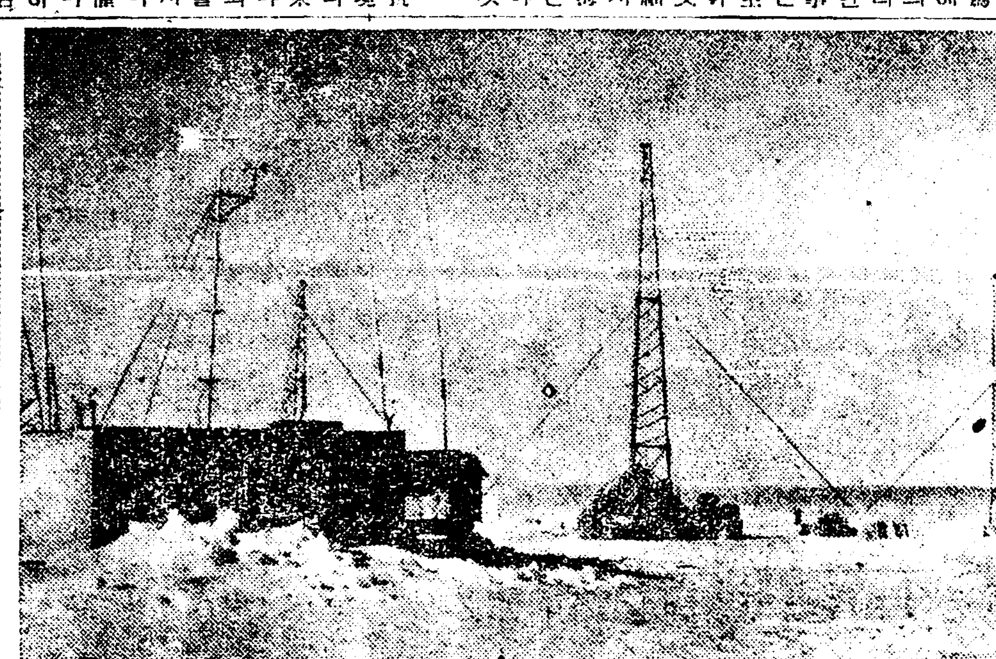
佛國도華府條約에不滿이나 廢棄方法은同意不能

【電通巴里卅一日發】巴里駐在米國大使로부터 日本의華盛頓條約廢止通告의 傳達을佛國政府에서는三十一日卽日 피에트리海相의名義로서 左와如한스테이트멘트를發表하야同條約에不滿인旨를明白히하고 將來의軍縮會議에서는重大한改革을 要求할것을暗示하얏다

佛國은 華盛頓海軍條約의廢止케된 今日은同條約을原則에잇서서도 方法에서도 根本的으로改革할時에만 新軍縮條約에參加함을可能타고、생각한다現在의新狀況下에서는 我等은이에相應한 新協定을하지안호면안되다 我等은어데까지華盛頓條約에對하야決코此를繼續하려는熱意를有하고잇지안타但그方法에잇서日本이提唱한바와는相異한것으로서 日本의共同廢止通告에應하면 各國에誤解를惹起할念慮가잇슴으로서 이에應하지안흔것이다

交涉急速히進展 二月頃成立調印乎

【電通東京電話】北鐵讓渡交涉은三十日東鄕、카즈롬스키會見結果蘇聯側에 多少讓步할意思가잇다는것이判明되여 카즈롬스키-氏의請訓에對하야 莫斯科府가滿足한回訓을 發하여오면 讓渡條件에關한 日蘇間의交涉은大體一段落을告하야 東鄕、카즈롬스키-會見은 以後一、二回로終了되리라고 觀測되다 이結果北鐵은마친내 整理時期에入하야 滿蘇兩國代表及 外務省西歐亞局第一課課長의 間에서北鐵讓渡條約文의起草에 着手하야蘇聯側이今後嚴重한 注文을提出치안는限二月頃에는 條約文의 調印에到達하게되리라고期待된다



世界最南極에도新春

新春은 南에도北에도、不幸한者에게도、幸福된者에게도、必然的으로와다、寫眞은、人類가사는地球의最極端南極一地點의假屋一點景이니이것은一九三三年有名한、빠드少將의第一回의探險時에 지은것인데、昨年九月、빠드少將의 南極探險隊는 第二次로이곳에가서 아즉滯在中임으로、人類의新智識을엇기에生命을 賭하는이들은、이곳에서 一九三五年을맞는다

今春米海軍演習 空前의大規模!

北太平洋의三角形海面上서 百七十餘隻艨艟參加

【電通산페드로三十日發】明春桑港、알라스카、하와이를連結하는北太平洋의三角形海面上에잇서米國海軍의 大演習은 今春에擧行한것보다 極히大規模의것으로새로建造한 大型巡洋艦五隻도 參加하야偵察艦隊는 十四隻으로되고主力艦十四隻中裝備改善이 完了된 아이다호·미시십피뉴멕시코 三隻도參加하고其外에 參加할艦艇은航空母艦四隻、驅逐艦五十九隻、水雷敷設艦九隻、潛水艦三二隻及補助艦三十九隻等이다

廢棄通告 英佛伊三國에 傳達을終了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米國國務省은 華府條約廢止通告의英佛伊三國傳達은 在三國駐在米國大使에依하야華盛頓時間 三十一日午前一時로써 全部終了되여玆에一切의手續을完了하엿다는旨를發表하엿다

米蘇債務의 決濟交涉再開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駐米蘇聯大使館代理大使후크빌스키氏는今日左와如히 말하엿다

蘇聯邦의 對米債務決濟交涉은二週間內로 再開될터인데 右交涉中에는 對蘇賣入物品時價數百萬圓의 新크레딧設定도包含되여잇다

「테로」的인蘇聯邦의 承認을撤回하라

핑검氏의衝動的聲明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마사츄세스州選出共和黨議員핑검氏는今日左와如히선세이슈날한聲明書를發表하야 外交界에큰波紋을던저다

蘇聯邦은 最近中國에 近接한十萬乃至 二十萬의 無辜한人民을政治的 目的下에 殺害하엿다 如斯한 殺人的테로리스트下에統制되고支配되는 蘇聯政府에對하야 承認을與한米國政府는速히其承認을 撤回할것을 余는議會에 提出하려한다如斯한殺人的 테로리스트政治를米國이承認하는것은 戰爭熱을煽動하고 또極東에好戰的行動으로써挑戰하는것이다

藏省事件公判과 司法當局의方針

【東京電話聯合】帝人事件의公判은드듸여明春에開廷키로되야 休會가끗난後의 通常議會에서도質問이續出하야大波亂이 잇슬것이豫想되야 그推移如何는자못重大視되는데 右公判에對한司法部의方針은

一、前議會에서의質問과가티司法部가空中에樓閣을그린것이아닌것은 豫審의終結에依하야被告十六名의犯罪構成事實이明瞭히되엿슴으로이가튼獨斷은自然解消될것이다

一、特히五、一五事件後에도各種疑獄事件에는모다 政黨人이關係하고잇는터로 國民間에政黨革淸이絕叫되고잇는이지음 檢察當局이取한措置의 妥當을信用할것이다

一、檢事의取調에關하야 些少한非難이잇는模樣이나 그責任을云云하는것과가튼、人權蹂躪事實은絕對로업다

一、檢察當局의措置에關하여는아모責慽도업스나모다公判의決定을기다리여斷定할수밧게업다고

大體로 同記方針으로臨할模樣이다

八面鋒

◇ 새해도 이미하로 그와가티 이틀사흘 一年之計 在於春이라고 넷말슴 일럿것다

◇ 행여나 이봄이헐망 虛送안될 바라네

◇ 三五年 危機의해 떠들어서 무엇하리 할뇌 털어서 지나간다 땅이 깨지든가 언제나 우리가할날 해야될까 하노다

◇ 新世紀 太平인냥 노피누워 어이하리 世上事가 紛紜타니 우리들 閑暇할까 더한번 우리가할날 서드를까 하노라

◇ 한늘의 飛行機가 그무엇 장하리만 모든것이 朝鮮이라 거긔도 誠心誠意 萬分一 여러분의愛護 報答키를 피할뿐

今日本紙二十面

恭賀新春

全州 完興泰紙物商會 全州邑大正町 內外諸紙 主 陳相庸 電話三四、三三四九番 振京一〇四七九番

合名會社 中外書院 全州邑大正町 書籍文具 寫眞材料 主 陳相庸 電話三四六六番 振京一六六三二番

永昌紙物舖 全北全州本町 主 姜文永 振替京城一九四〇三番 電話五三四番

朝鮮中日報社全州支局 支局長 林秉雲

平安醫院 全州邑 院長 宋重雄

保隣醫院 全北全州八達町八三 電話六六一番

全南白羊本末寺全州豊南布敎堂 布敎師 郭金城

全州麵子合資會社 朝鮮全北全州豊南町 代表社員 尹吉重

鄭鎭熙 全州

共和自動車商會

三共精米所

七曜會

全州著朝鮮酒造組合 全州稅務署

李仁基商店 全州邑大和町 電話三一九番

全州邑事務所

全州特産製傘組合 全北全州高砂町三六二 理事 鄭台亮

鳳翔産業組合 全州郡鳳東面 理事 尹鍾重

全州穀物商組合

全州藥令市 開市 昭和九年陰十二月四日 閉市 昭和九年陰十二月末日 總務 朴季祚

初等學校職員一同

濟南堂藥局 朝鮮全州南門通 草材貿易商 金台敬

金東洙

全州中央醫院 院長 崔景河

高山醫院 全州本町一丁目 齒科 高漢俊

永信當乾材局 全州本町一丁目 蔘茸藥材直輸入 都散賣 主 柳平秀 電話四四八番

李性根乾材局 全北全州本町一丁目 蔘茸藥材貿易 有名唐藥 電話四二番

永昌堂藥房 全州本町 吳承根

全州新興學校

全州新興學校普通科職員一同

全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全州高等女學校

鳳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全州郡

全州紀全女學校

和成商會 全州南門通 鑛業鑛石試驗分析 主 申鉉㦿

白南赫 全州邑

全州農業學校

木下隼雄 全州郡九耳普通學校

完一堂書店 朝鮮全州高砂町 合資會社 電話五四六番

全州郡九耳面事務所

姜完善 全州大正町

李和燮 全州郡助村面銅谷

實費洋服店 全州大正町

李應魯 全州八達町

全州券番

全昌商會 朝鮮全州邑淸水町 電話 番 振替 番

張俊基 全州郡雨林面長

全州警察署

土曜會

李俊穆 全州邑高砂町

鄭運得 全州

百紙商會 全州本町

樋渡宗俊 全州本町

全豊館 全州郵便局通り 朝鮮料理

姜今石 全州郡所陽面海月里

金完用 全州

梁聖基 全州大和町 海陸物産委託販賣 電話五三三

湖城旅館 全州高砂町 主 金東珠

豊城旅館 全州高砂町 主 李商敎

宋在哲 全州大正町 昭和製藥合資會社全州專賣店

金東植

梁泰完商店 綢緞布木商

金海聲 全州西進面長

金共珍 全州郡四東面長

李建五 全州大正町一丁目二十一 シンカ裁縫機械會社分店 主任

大正自轉車店 河已郞

三星洋靴店 全州邑內 主 李龍植

興鑛商會 大和町二一七

一也屋帽子店 全州大正町一丁目 主 韓相琫

朴炳善 全州

飯塚久嘉龜 完山金融組合 理事

西富五朗 全州金融組合理事

白奎桓 全州

德濟院

李廣國 全州郡伊東面

金長守 全州郡

朴錫林 助村面中月里

清朗·元日의碧空에서 大長安을俯瞰祝福

轟轟한爆音을祝砲삼아 京城一圓을飛翔數巡

本社機歷史的處女飛行

신산하든 간밤의비바람도 묵은해와함께씻슨드시개이고 향촌동(杏村洞)노픈언덕 측후소(測候所)꼭대기에서는 쾌청을신호하는흰기빨이 진정치못하고펄럭인다 눈갈린 성남(城南)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는 새해첫아츰의 따스한해볏이 분수와가티 퍼붓는다 때는일일오전열시오십오분 … 장쾌하게 본사「살무손」기는 신용욱(愼鏞頊)비행사의 조종으로 본사 방사장(方社長)이하 간부들의 전송아래 용장하게 대지를차고 처리륙(離陸)을하엿다 눈이닷는곳 끗업시개인 수정빗한울에는 두어곳 탐스러운흰구름이 뭉게뭉게떠서 조선의 새로운희망을파보리는 본사기의처녀비행을 축복하는듯 오색의레ー프를꼬리에 휘날리면서 「자ー잠간 시끄러운지상도잘잇거라」고 손을들어 보인후 비행기는 머리를 경성시내의 상공으로돌렷다 아츰해가 뿌리는빗나는 미소를 은나래로 루기면서 기두(機頭)가 긋는급한 단절선(斷切線)은 아모도 손을 대지아니한 일천구백삼십오년의 상공에 누구보다도 먼저 유량한 신춘보(新春譜)를 그리기시작햇다 기체는백미돌ー이백미돌ー어느새성동수철리(水鐵里)의 상공에떠다녀서의 의지하야다아부르든장은 석양개비들은 신당리(新堂里)의빈민촌이다 청량리(淸凉里) 와장안을연결하는 신장한가로의한곳에 말뚝처럼바킨동대문을 눈아래구버보며 대학(大學)의이마를도라서북촌(北村)에나타낫다 창덕궁(昌德宮) 창경원(昌慶苑)기픈숩속에는 수백년의 정서와꿈이 그대로기픈것갓고잣은 바아지속가든이장안에온갓풍운과변화를 모라너흔오백년의 꿈도가엽다엽는 한눈의「베일」을 뚤코군데군데검은 뼈를주어든북악(北岳)아너만이 보살것업는 인간의영위(營爲)를 발아래구버보며비웃는 오직하나인굿세고거만한거인(巨人)의 종족이다살금숨은 다시백미돌의저공에떠서광화문통을남으로 나려서대경성의 복판에나서기상으로부터 사십만시민에게새해첫날인사를전하고 령시십분무사히여의도비행장으로도라와서 이로써본사기의력사적처녀비행은끗낫다

新年부터實施되는 思想與論等統制

法律、制令、府令、等各樣의 政、軍、產業多角으로

총독부에서 이미 제정공포하야 새해부터 실시될법령과 또새해중에 개정실시될중요법령을 개별적으로 드려보면다음과가튼데 이러한법령은 모다 산업통제와 국가권력의 강력적 집중주의의 단행을위한 사상과 여론의통제라는새로운 의도가법령제정 또는근본적개정을 촉진식히게된것이 주목된다

▲不正競爭防止令(制令) 상표(商標)의장(意匠)기타상업계의 부정경쟁을방지하기 위하야류사품사용의 금지를 제정한새법령으로 일본은물론 세계각국이전부실시한 국제적법규로 일월일일부터 실시된다

▲自働車交通事業令(制令) 륙상교통의 전반적 통제를하야교통산업군사상의편의를도모하려는새법령인데사월일일부터실시된다

▲自動車取締規則(府令) 시대진운에 적합하게 자동차의속력설비기타를 근본적으로 개정한 현행규측의 개정법으로 방금심의중인데 사월전으로 실시될터이라한다

▲痲藥取締令(制令) 『모루히네』아편등의 마약취체를위한 통일법으로 재래보다위반자의 엄벌규정이 새법령의주안이되여잇는데 법제국에서 심의중으로불원실시될것이다

▲警察犯處罰規則(府令) 현재의 법령은 합병당시의것으로 시대착오적규정이만흠으로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위하야 방금 경무국에서 립안중으로 불원간실시된다

▲改正治安維持法(法律) 이번의회에 제출되는데 통과될것은 운이농후함으로 조선에도 실시될터인바 현행법보다 엄벌주의와예비구금(豫備拘禁)보호감찰제도등 세규정이마논것이주목된다

▲新聞紙法規의改正統一(制令) 현행신문지법과신문지규측을합하야 단일법령으로개정하되 어느정도까지 시대진운에적합하게 개정한다고하는데 금년중에는 실시한다고한다

▲輸移入新聞雜誌許可制度 일본내지로부터 이입되는 신문잡지는 물론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것도허가제도를 단행하야 조선내의사상과 여론의 강력적통제를단행하려는것으로 방금 도서과에서립안중이다

▲出版法規의改正統一案(制令) 현행출판법과 출판규측을 통일하야 단행법규로 개정하자는것으로 금년중에는 구체화될것인데 신문지법규의 개정통일과가치 매우주목된다

▲工業組合令(制令) 각종공업의 자치적통제를 위하야조합의법인화를 규정한 법령인데 이미립안되야 법제국의 심의중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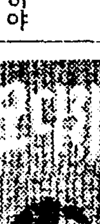
▲鑛業警察令(制令) 현행광업령에는 광업경찰에 관한 규정이 업슴으로 현하조선황금광시대의 광산에대하야 그위생치안기타의 취체규측을 새로제정할것으로이미 립안도 끗낫슴으로불원간 실시될것이다

눈코못뜨는 元日의 配達夫

滿中通郵와 新制定한郵票 今一日부터

【新京發】종래중국은만주국을승인하지안는다는 방침으로 만주국에서오는우편물의『만주제국우정』(滿洲帝國郵政)이라는문구를너흔우표를부친것은 접수와 발송에 모다책임을지지아니하야서우편물취급상 불편이여간하니엿든바 이번통우문제(通郵問題)의해결과 아울러『만주제국우정』이라는문자가 와백탑도(白塔圖)를배치하고다만 란화문장(蘭花紋章)과고량(高粱) 장백산(長白山)등만주국을표현하는도안과 우정(郵政)이란 문구를너흔것으로우표를새로만들어금일일부터 그우표로써 통우하기로되얏다

◇사진은만주국과중국사이에통우하는새만주국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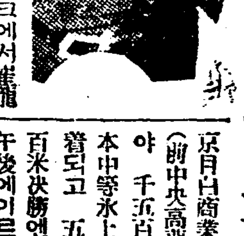
철업는六歲兒가 四月된乳兒惨殺

【大田】여섯살먹은 애기가 넉달된 이웃집애기를빨래방망이로 때려죽인 세상에도드문 살인사건ー 충남당진군 면천면성상리(唐津郡沔川面城上里)문정원(文正元)의장남 능한(能漢)(六)은 지난이십륙일 오후네시경 그이웃인 박인송(朴仁松)의 집에놀러갓섯는데 그러기조금전에 박인송의처김씨(金氏)는 그장녀인생후사개월의구영(九英)이가아래목에서자고잇섯다 그런데김씨가외출하엿다가약십오분가량해서 도라오니까 방안에서구영이의 자즈라지게우는 소리가남으로 드러가보즉 의외에도구영은얼골과 머리가피투성이가 되엇고 그엽헤는 전기이웃집 능한이가피무든 빨래방망이를 들고서서잇섯다 김씨는 벌떡할듯이놀래어소리를웨치자 동리사람이달려와 구영을즉시동리의사김성원(金成源)에게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연약한두개골이 산산이바스라지고 얼골기타전신에 타박상을입엇기때문에 미구에 절명이되엇다 급보를 접한소관주재소의 경관이현장에 출장검시하고 시체는량친에게 인도하엿는데 무엇보담도 범인이여섯살먹은 어린아이인만큼 하는수업시그량친에게 보호를잘하도록 설유만하엿다 그리하야 부근에서는 근래에업는『그로』사건으로이약이거리가되어잇다한다

새해첫날氷上制覇첫消息

全日本中等氷上千五百米 金永河斷然優勝

五千米엔二着으로入賞 평긴軍日光에總集合



【日光細尾스케ー트링크에서崔龍振發電】지난廿九日부터行하려든 全日本中等校氷上大會는 氷質關係로延期되여 昨卅一日午前八時부터擧行하바 朝鮮選手로는 東京日日商業에在學中인 金永河君(前中央高普選手)이 孤軍奮鬪하야 千五百米決勝에는 斷然全日本中等氷上界의諸雄을제치고 一着되고 五千米決勝에는二着、五百米決勝엔 三着으로入賞하엿다 午後에이르러氷質이極히不良하야 드디여全日本中等氷上大會는流會되엿다 그리고 昨卅一日까지에는 우리평긴全員이 當地에集會하야 猛練習을開始하엿다 (寫眞은 金永河君)

◇同大會의優勝候補新義州三務學校는 事情에因하야出場치못하얏다

◇千五百米 (타임래ー스)
一着 金永河(日白商)二分四五秒三
二着 泉山(八戶商)二分四五秒七
三着 中村(苫小牧工)二分五五秒五
四着 尙林(諏訪蠶絲)
五着 播磨(北海中)
六着 杉浦(東京六中)
(得點)日白六、八戶五、苫小牧四、諏訪三、北海二、六中一

◇五百米(타임래ー스)
一着 中村(苫小牧工)四九秒五
二着 泉山(八戶商)四九秒九
三着 金永河(日白商)五〇秒六
四着 高林(諏訪蠶絲)
五着 山田(同)
六着 杉浦(東京六中)播磨(北海中)
(得點)苫小牧六、八戶五、日白四、諏訪五、六中〇、五 北海〇、五

一月一日(火曜)

◇午後六時〇分 童話 山도야지 金牧星
◇同六時二五分 講演 (朝鮮總督宇垣一成) 譯講 田中德太郎
◇同七時三〇分 歌曲【男女唱】一、男唱羽調初數大葉 二、女唱羽調節擧 三、男唱編樂 四、女唱編 五、男女合唱太平歌 男唱·河圭一 女唱·金永晶 玄琴·金雨鏞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 바이올린獨奏와피아노獨奏 一、바이올린獨奏 (가)슬라브舞曲 第一番 드보르작作曲…크라이슬러編曲 (나)가보트…모ー차르트作曲…우어編曲 二、피아노獨奏 十七變奏曲…멘델스존作曲 三、바이올린獨奏 (가)維納의멜로듸…크라이슬러作曲 (나)세레나ー데…당브로지오作曲 바이올린

一月二日(水曜)

獨奏 洪承裕 피아노獨奏 金元福
◇同八時三〇分 野談 尹白南
◇同九時 西道歌謠 一、山念佛 二、긴아리랑 三、孔明歌 四、난봉가 金玉葉 李眞鳳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赤壁歌 二、唱劇調 박타령 金素姬 鼓手 韓元俊
◇同六時 童謠獨唱과피아노獨奏 一、童謠獨唱 (가)하늘나라 저쪽(宋) (나)대장간(全) (다)산넘어오막사리(宋) (라)겨울참새(金) 二、피아노獨奏 羊치는아이 웰츠作曲 三、童謠獨唱 (가)집보는소녀(金) (나)나의고향(宋) (다)조각달(宋) (라)귀뚜라미 唱 宋甫先 全明姬 피아노獨奏와伴奏 玄琴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一) 金潤晶
◇同七時三〇分 라듸오·플레이·미ー팅
◇同八時 舞踊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李日善 奚琴 池龍九 杖鼓 林鍾成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새벽종…에머ー슨作曲 二、봄의信仰…슈ー버ー트作曲 三、希望의속삭임…호ー손作曲 四、安息의님…슈ー버ー트作曲 五、詠歌 歌劇「白衣의婦人」中에서…부알듸作曲 權泰浩 伴奏金聖南
◇同九時 京城立唱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崔聖根

一月三日(木曜)

◇午後〇時五〇分 獨唱 金海南
◇同六時 童話劇 되잡힌원숭이 全一景 金泰晳作… (配役) 호랑이…金鍾喆 여호…朴富姬 두기…李貴福 원숭이…李福順 가마귀…金銀星 할아버지…金命植 靑鳥會員… 效果…姜又學 指揮…金相德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二) 朝鮮中央日報社 金東成
◇同七時三〇分 管弦樂 靈山會像 玄琴 金基豊 伽倻琴 李石蓮 洋琴 李秀松 奚琴 金德鎭 短簫 洪斗憲 細笛 李宰睦 杖鼓 池龍九
◇同八時 京城歌謠 一、時調와歌詞 二、漢山歌 三、제비歌 趙牧丹 金蓮玉
◇同八時三〇分 管弦樂과獨唱 (레코ー드演奏) 一、管弦樂 (가)피가로의結婚…모ー차르트作曲 (나)歌劇魔笛序曲 멘델스존作曲 二、獨唱 (가)牧者의노래 그린제作曲 (나)田園風景 同 四、獨唱 歌劇노르마…베리ー니作曲 五、二重唱 歌劇 세빌리아의理髮師…로시ー니作曲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編國名山 二、唱劇調 春香歌中 李東伯 鼓手 韓成俊

謹賀新年

京城府堅志町一丁目八二 京城精米所 金光準 電話本局三〇三四・一四八二番

京城府壽松洞七四番地 元興運動具部 延百善

京城府黃金町四ノ二 三星洋靴店 韓東薰

活版印刷機械專門製作 合名會社 岩田鐵工所 京城工場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八四番地 電話本局長三四六八番 東京工場 東京市神田區三崎町三丁目一〇 川口工場 埼玉縣川口市壽町

京城府嘉會洞一七〇 嘉會商店

京城府寬勳洞一二二 中學堂運動具店

京城府堅志洞六八 吳聖完洋服商店 電光一五三五番

京城府堅志洞四六 中華料理 東海樓

漢芝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朝陽學院職員一同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四一七 永和精米所 主 成文永 電話龍山一三九一番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七二 陸運馬車運送業 李春成 電話龍山三三番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四五七 梨當花典舖 主 李春成 電話龍山三三番

京城元町二丁目一番地 龍山石鹼製造工場 主 金錫辰

京城府漢江通九番地 布木商 吳喜淵商店 電話取次龍山三三番

京城三坂通三三二番地 秀英學院職員一同

高陽郡漢芝面梨泰院里 朝陽學院後援會會員一同

京城府漢江通九番地 和洋雜貨商 金春成

京城新龍山漢江通九番地 米穀、新炭、布木雜貨商 李文根

高陽郡漢芝面漢江里一八八 漢興穀物商會

參禮

全州郡參禮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參禮合同運輸合資會社

全州郡參禮面參禮里 李奉承

益山郡王宮面光岩里 學務委員 李殷承

全州郡參禮驛前 昌新商店 宋炳雨 電話一六番

全州郡參禮面瓦里 柳謹玉

全州郡參禮驛前 荷物自動部 李承玉

電話八番 益山郡春浦面雙井里 學務委員 崔鳳來

參禮驛前 金融組合長 權日用

全州郡參禮面參禮里 柳永昌

益山郡王宮面東龍里 王宮水利組合

益山郡春浦面雙亭里 春浦酒場 鄭俊謨

益山郡王宮面 王宮面長 宋廷植

全州郡參禮面瓦里 柳演玉

參禮面警察官駐在所

益山郡王宮面王宮里 洪淳熙

慶全線三禮驛前 多山農場

全州郡參禮面瓦里 柳在玉

全州郡參禮驛前 齒科全門 鄭完順

益山郡王宮面興岩里 吳普善

全北全州郡參禮面參禮里 肥料叺搭業 尹成執 電話二〇番

全州郡參禮驛前 精米所 黃斗鉉

益山郡王宮面溫水里 精米業 朴溶根

全州三禮驛前 忍齋精米所 主 白南

大同

三神鑛業所

林原面 鮮于燿

柴足面職員一同

柴足面土浦里 大辰精米所

全州郡參禮面瓦里 柳成玉

全州郡草浦面下里 朴正得

參禮驛前 昭和會

全州郡參禮面瓦里 面協議員 柳士浩

全州郡參禮驛前 精米所 崔錫天

益山郡王宮面龍華里 蘇鎭奭

全州郡參禮面 面事務所一同

全州郡參禮面參禮里 東信化材局 姜金玉

全州參禮驛前 米穀商 河在雄

全北參禮驛前 同仁醫院 任正宰 電話一七番

全州郡參禮驛前 肥料布木及穀物商 朴相龍

益山郡春浦面雙亭里 崔炳龍

參禮驛前 東洋醫院 公醫 金敎昌

益山郡王宮面興岩里 李完承

全州郡參禮面舊瓦里 面協議員 柳亭道

全州郡草浦面下里 柳鋼燮

全州郡助村面東山驛前 助村酒場 朴燦皓

長水院 長水商店 朴燮鎭

柴足面湖南里 醫生 許

美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美林 尹國柱

將來일군養成機關 우리學校의자랑

松都高普校

花岡石三層建物 設備도遜色업서 더욱이博物館은全道第一

松高普校長 金俊玉氏 談

最近우리學校는 三十年가가이 犧牲을다해가며 經營의責任을다해오든 米國宣敎部와 本校의設立者中 한분인 尹致昊씨와이우에 全開城의 有力한人事들이 一心協力하야財團法人完成을 目標로 熱熱한 活動을繼續해온結果目下九分의 成功을보게되엿든바 이우에더깃븐事情과 조흔자랑이 別로업슬것입니다。

그러나 學校施設의 內容에드러가서 첫재우리 學校의 花岡石三層建物이 開城의 북쪽 松岳山밋헤 氣勢조케 걸터 안즌點으로 보아 朝鮮內의 어느學校에比하아서나 遜色이업다고내세울수잇는것이며

◇

다음으로는『理化敎室과博物敎室』의完全한設備이니 우선理化室로말하면 本館南쪽高臺우에 二層石造로따로세워 百二十名을收容하는階段式敎室에는 五〇볼트五암페아의直流發電機配電板과各種電流의導線이 識者의注目을끄을것입니다。 物理實驗室에는 열개의大型實驗臺를 學年別로난호어重要한實驗裝置를 常備해노앗고 電流를必要로하는實驗臺에는 電流裝置도完全하야 언제나마음대로 實驗해볼수 잇게되엿스며『化學實驗室』에도 九個의實驗臺우에完全한 化學實驗裝置를常備해두엇습니다。 그리하야暫時觀覽하는人士에게라도理化學에對한興味잇는實驗을卽席에보여드리게되엿습니다。 뿐만아니라 有名한理化學者의肖像을四壁에걸고 그우에조흔 材料를만히모하노엇슴으로生徒들은 이두實驗室에만혼愛着心을붓치고잇습니다

◇

다음으로우리博物室을드러말하면 全朝鮮第一의博物室로定評이잇스니 새삼스러히내세울것도업스나이제暫間內容을紹介하면 亦是本館과떠러진 二層의石造別館으로 外貌에마추어內容도참으로充實합니다 顯微鏡가튼것도三打나되여實驗하기에不便이업고 標本도 敎材에나오는程度는어느種類나다 備置되여잇습니다

더욱이鳥類、爬虫類、兩棲類、蝶類에잇서서는 本地方뿐만아니라全朝鮮을網羅하엿다고볼수잇으며外地產도적지안습니다 其中鳥類는 그蒐集된內容으로보아 京城恩賜科學館에 陳列된第一高普의것과 더부러 朝鮮서는 二大『콜렉숀』이라고 볼수잇으며 特히爬虫類、兩棲類、蝶類等은現任石宙明先生의 直接蒐集한것으로여간 博物館에서는 보기어려운『콜렉숀』이라고 자랑할수잇습니다 그中에도蝶類에는 우리石先生이처음으로 命名하야學界에 新事實을이르키게된 標本도적지안고 그數에잇서서도 數萬으로 計算할수잇스니 이것은世界에 자랑해도그다지 遜色이업다고 봅니다。事實 外國에서는어더볼수업는 標本도 적지안허歐米의 著名한大學、博物館等에우리 學校標本을 提供해준일도적지안코 現在도 그要求에 一一히酬應키 困難할 쯤되여잇습니다。지난가을京城서開催된動物學大會에參加하엿든 蝶類研究의世界的權威九州帝大敎授江崎悌三博士外諸氏가 일부러開城까지來訪하야 우리標本室을參觀하고간것만보아도 우리의자랑이허되지안흠을짐작할수잇지안습니까

◇

이우에地歷敎室가튼것도完全한階段式特別敎室로되어 남북그럽지안흘만한施設이만사오나 一一히枚擧치안사오며 끗흐로우리學校의 남다른자랑까리인『松高樂隊』이야기를 暫間하겟습니다。

우리松高樂隊는 全朝鮮中等學校를通하야그技術로보거나 그訓練으로보거나 名實相符하게第一가는樂隊입니다。三年前부터 始作된 延專主催全朝鮮中等學校懸賞音樂會에잇서서 우리樂隊가 連三年當當의 優勝을해왓다는事實만드러도 這間의消息을짐작할수잇지안습니까? 그런데이러한樂隊를養成해내는데는 크다지수월치안흔 歷史가숨겨잇는터이니 松高樂隊의 어린싹이松高의前身인韓英書院時代부터 이머웃득이기始作하엿다는事實도 事實이려니와 現任音樂敎員邱士乙先生의多年間苦心努力해오신 功勞는우리로니즈려해야니즐수업는事實입니다 우리樂隊가말업는 古都의寂寞을 우렁차게깨트릴때마다우리는 邱先生의苦心한자최를거듭感謝하는터입니다。

◇

以上에말슴드린 學校의諸般施設이本人으로보면自慢自讚의感도업지안흐나 틀림업는事實이니남북그럽지안흔자랑이라고미더주시기바랍니다。

이밧게도 우리 學校와 經營上直接或은 間接의關係를 가지고 開城의名產으로 남에게자랑할수잇는것이 한두가지 안이니 松高牧場에서 生產되는 松高牛乳와 松高아이스크림은 이곳 男女老幼의 가장 조화하는것이며 松高果園의『松高능금』도 가을한철의 開城名物이 틀림업고끗흐로 松高實業場의 所產인 松高織物에이르러서는 그이름이海外에너무도 잘알려젓스이 다시금數數코저하지도안습니다(끗)

◇松都高普校舍全景과 校長金俊玉氏

載寧明新學校

唯一의民間經營 敎職員의誠實

明新學校長 韓泳鎭氏 談

黃海道內에民間經營으로의 中等學校는 아마 우리學校가 嚆矢요 그리고 아직도健實히그발거름을 넘어뎔뒤잇다고 봅니다。이제그沿革을 紹介하면大略이러합니다。

明治三十二年 卽只今으로부터 三十四年前 本邑文昌里에서八人의兒童을 모아서가라치기 始作한것이우리明新學校의 처음입니다。其後設立者 君芮彬 孔章亮을지나現在韓偉廉氏가 就任하서서 우리學校를 經營하십니다。

스사로 부끄러울 일가티생각되지요만은 우리는 一萬五千圓의經費를들여 校舍를 다시 지엇습니다 이것이 純全히 우리의땀과힘과정신의結晶이라고생각하며 全朝鮮에널리자랑하기마지안습니다。

◇

우리學校의位置는 뒤에北岳을지고 앞으로는 潮花嶺을 향하야 고개를 들러 眼界가은 白岳山이 호소하는듯 웃득소사잇서서 새가와서 노래하고 窓밧으로 손을내어밀어 진달래를 꺽글수잇는 大自然의숨속에서 人間生活의 一面인波瀾苦를 校舍에서 배울수잇는 그야말노 俗談에 一擧兩得이란 우리學校를 일크름이안인가합니다

◇

그다음으로 우리學校의職員입니다 우리學校의先生님들은 모도가 家族가튼 親睦味가잇고 어려운學校事務를 自己집안일 보시듯하여서한가지例를들면 아직것新記錄을必要를 늣기지 못하엿습니다。그러케되니까 學生들도 自己學校임이라면 밥을먹고나서서 일을하게됩니다。

◇

가까운例를하나들면 今春에 運動場을닥는데 客地에잇는學生中에 濟를 빌닐수업는이는 皿匠하는이야이가 近日感歎가려 돌근가사가지고와서 일을하엿다고 아닌입니다。이러한 精神아래에 모혀드는 배움에 주리學徒이지 곰에 四百을헤아리며 別에잇서서도 다른都市의 큰學校에比하야 지지안을만하게되엿습니다。그것은 純全히 우리學校를爲하야알게몰으게 힘을써주시는黃海道民의 好意로생각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寫眞…明新學校全景과 校長韓泳鎭氏

須彼亞女校

設備도設備지만 寶物만키로第一 珍貴逸品高麗古器等等

須彼亞女校 崔興琮氏 談

우리학교의자랑一아니一步를 더나가내故鄕자랑거리의하나로 天下讀者의압헤紹介코자하는것으로 리地方唯一의 私立中學校요 女子敎育의 첫出發을信號한光州須彼亞女校이다 光州市의西便楊林町의한쪽을 호올로차지하고 寫眞에서보는바와가튼 훌륭한校舍를가지고잇스며 이미數百名의賢母良妻를길러내고 그래도不足한듯이 百餘名어엽븐딸들을가라치고잇는이學校는 光州뿐만안이라全南唯一의 私立女子中學校인데同校先生崔興琮氏는 다음과가티말한다

◇

千九百年七月頃에 女子敎育의必要를늣기고 敎會에서가티일보든 親知崔在翊、徐炳基、金元洙等三君과 合意가되여 須彼亞學校의初代校長인 裵夫人의도음을바더 가지고 夫人의住宅에서우리네사람의딸들을 다려다가우리가先生이되여가라치기시작하야 一九〇八年二月에 須彼亞女學校라는 名稱을붓처서 처음으로開校式을擧行하고 同年十二月에 尋常科四個年과高等科四個年의學制로舊韓國學部大臣의 認可를엇고 大正二年(一九一二)五月에 朝鮮敎育令에依하야 普通科四個年과高等科四個年의 學制를 朝鮮總督에게 어더는것이 可를 昭和六年二月에 學則을變更하야 初等科를 廢止하며 中等科만을두어 只今에일읏는데 光州最高榮華의 하나인 現本館校舍『윈스보로─호─ㄹ』은同名美國人宣敎師가 昭和二年에이學校를爲하야 十萬餘圓을드리여 지어준것이요、同年中에同校에서는 本館의東便에雨天體操場을지어 鄕土添花의자랑거리를일우엇다 그外에도 寄宿舍等附屬建物이 만히잇서서 建物設備에對한不便은 조곰도업스며그우에 이學校 자랑의하나인 理化學室、家事室은 昨年에 새로짓고또 今年中에는 特別敎室附物理化學室、家事室을 一萬圓豫算으로 解氷期부터 着工할터이며

◇

또이學校의 所有品으로 가장世上에자랑거리되는 第四代校長金雅各氏가莫大한 私財로모아노흔三千點이넘는 美麗하고 珍貴한逸品高麗古器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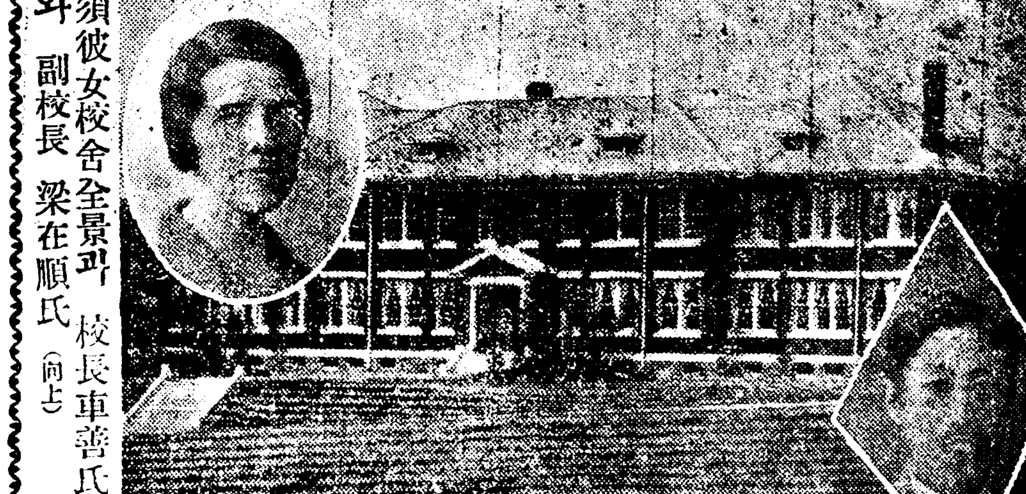
아마이寶物만으로는 世界第一富者인줄로짐작한다 이것으로만미루어보아도 다른敎材의具備되여잇슴것은 말치안어도讀者가먼저斟酌이 잇스리라고 밋는바입니다

◇

歷歷名師들이나 學校式날은勿論平素에도 朝鮮女服을하고 잘나오는 現校長柳華禮嬢은 才德이兼備한 四十壯年으로 該校의第五代校長으로 就任한以來四五年에校勢는 內로外로 逐日隆盛하여간다하며 그미테校務主任 金明信先生을비롯하야 十二男女先生들은 밤을낫삼어熱心히 學生들을가라치고 學校를爲하야奉仕한다하니 듯기에도 感謝하여現在百二十名의 어엽분朝鮮의 딸들은須彼亞樂園속에서 後進朝鮮女性의 先發隊가되여 가라치는것을배와進軍한다는바 今春에第十六回로 母校수피아를卒業하고 社會로家庭으로나갈 卒業生들은 그들先輩들의 名聲까지도 한層더빗내게할 收穫가다되엿다고하니 새希望좃고 새봄에수피아學園의따수한 보금자리에안기일五十名의 新入生들에게 자리를빕니고校門을 나설그들의一行은二十五名이라고

◇

자랑보다事實 事實보다實驗 이것이光州의자랑이다 새봄을마지한수피아여 幸福스러우라



◇須彼亞女校舍全景과 校長車善氏(向上) 와 副校長 梁在順氏(向上)

樓氏女高普

一般施設의完備와 後援會의健實活動 組織後二十餘年동안에

樓山女高副校長 梁在順氏 談

元山에잇서서 女子高等學校를 드드면그누구나 樓氏女高普를聯想할것이다 그만큼元山樓氏女高普校의 存在는 一般에게널리알여잇는 歷史깁흔 學校이다

그러면 樓氏女高는 如何한 沿革을가젓스며 現在의育英狀況은 어떠한가를 이에簡單히記錄하리라

◇

只今으로부터 三十一年前인一九〇三年 米國南監理派女宣敎會經營下에 元山府陽地洞某頁家를어더 無依無托한 女兒十餘名을모아 學資一切를주고 漢文、朝鮮語、聖書等初步를 가르침으로부터 樓高의形態는섯고 그後近十萬圓의 巨金을 當時米國女宣敎會總務이든『루씨·커닝햄』녀사가 敎會의 寄附이 업슴에不拘하고 責任지고 支拂하야舍德으로 只今의山祭洞 基地에다堂堂한 四層花岡石洋屋(建坪二百九十餘坪)을세우게 되엿다 이에그의일홈을 永遠히 記念키위하야 校名을樓氏建仍金 女學校라고命名하고 認可를申請하얏던바一九一三年 四月二十五日附로認可되엿다

◇

以上은樓高誕生의 前景이엇거니와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로서의出世는 一九二二年 四月에四年制의高等科를 設置하고 監督官廳의認可를 어덧고 그後一九二四年六月에 樓氏女學校라고改稱하고翌年二月에 普通科를 完全히分離한後 同年六月二十六日附로서 新敎育令에 依한女子高等普通學校 設置認可를 得함으로부터 一層女子高等普通學校로서의新面目과權威를 가젓섯다고한다 그리하야一九三一年二月에從來의四學級四學年을 校勢를一層擴張하야 入學級四學年으로하야今日에至하얏다고한다

◇

그러면現在의校況全體는 어떤가를槪括式으로보면 敎員은十五名在籍學生은三百一名이며 今年四月까지의卒業生은二百五十五名이다 校長은米國人車善氏이고 副校長은梁在順氏로京城高工出身의秀才이며 設立者名義는 米國人吳利富氏라고한다 生徒들의 入學前出身校를 보면 公立普通學校가二百二名 私立學校及 其他校가 九十九名이며 그들의 原籍地別을본다면 元山이 斷然一位로 百十三名、其次는 德源이百十七名의多數이고 其次가 咸東으로서 四十三名이며 殘餘는其他의遠方이라고한다

◇

以上으로서 樓氏女高의概觀을 大略들엇다

이에樓氏女高의자랑을 同校副校長梁在順氏로부터들으면 다음과갓다

우리樓氏高普로서는 世上에내여노코 뚜렷이자랑할것이못되엿스나 是은 업다고봅니다 第三者인社會人士가 本校의어떠한것이 자랑이될것이라고 보는지 알수업스나 나로서는 아무자랑을갖지못하얏다고봅니다。다만다른女子高等普通學校와가티 가르치고 施設을 하야갈뿐이냇까요、그러나 억지로라도 조금特異하다고할것은 本校가 北朝鮮에 잇서서는 第一먼저設置되엿다는 말하자면第一긴歷史를 가젓다는것과 딸아서新敎育令에依한 女子高等普通學校로서 昇格이 일즉되엿다는것인가합니다。創設된지今年이三十一年이고 明年이昇格滿十年이닛가요、그리고 施設難은私立女高普로서는 그다지遜色이업다고보나 이것은別달은 자랑도안될것이지요、그리고 本校의位置에 對하야는 좀자랑이되지나안흘가합니다 三面은靑松이빽빽이선山이 圍繞하야 自然의城廓을이루엇고 前面은碧海가 멀리眼界를가로막아風景이 佳麗하지요、말하자면本校의位置는 大自然을품속에서 맑은空氣를 呼吸할수잇지요。

◇

이外에한가지强調해둘것은 本校의今日을일우게한데 큰도움을주엇고 또將來에도 큰도움을줄後援會의存在입니다。이後援會가組織되기는 벌서二十餘年前의일입니다。本校의昇格에도이後援會의힘이만허섯고 더욱히最近인一九三〇年겨울에竣工을본 本校寄宿舍도 後援會에서 會員들을爲始하야咸南、江原兩道로 돌아단이며 二萬圓의寄附金을 募集한德이고、또四學級四學年을 入學級으로延長케한動機도 寄宿舍를本校四層에서 옴기게되든德이지요、그러니가 오랜歷史를가진 後援會를가지게된것도 本校의자랑이라면 자랑일것이지요。

農地令實施以後 各道의農村情勢

平南道

無形의緊張뿐으로 實地는無風狀態 아무런속크도업다

平壤·支局 M·H生

平身不隨의 法令이나마 朝鮮農地令이 十月二十日로서 發表되면서 平安南道에도 農地令施行規則과 府郡小作委員會規程이 適用되엿다

따라서 平壤府를爲始하여 各府郡에는 小作委員會라는것이組織되엿다 豐年恐慌이니 凶年饑饉이니 春窮麥嶺이니하는術語는 朝鮮農村을中心으로 생긴文字이거니와 草根木皮로延命한다거나 飢餓線上에서彷徨한다는 悲慘한事實도 오늘의 朝鮮農村에서흔히듯는 뉴ー스일것이다

소경의잠자나마나格인 農地令이 貧寒한 平南農民에게 그러케달가울것도업고 또한설울것도업다그저 平凡하여 아모런속크도업다는것이 똑바른評이될것이다

그러나農地令이 實施된後의平南의情勢는 地主나 一般小作人이똑가티 緊張해잇는것만은 事實이다 지나치게 怜悧한地主側에서는農地令이 或時自己에게不利하지나 안흘가하여 덥허놋코緊張햇고아모것도 모르는小作農人側에서는 農地令때문에 도로혀小作權을剝奪이나 當하지안흘가하여 各其緊張하여잇는 狀態이다

本來平南地方이라는 自古以來로貧富의差나階級의差가 크지안흔地方일뿐안이라 따라서大地主도혼치안코 舍音이란中間 搾取의寄生物이極히少數이다 그래서三南地方이나 他方에比較하여서 根本的으로 小作爭議가적은地方이다

다시말하면 自作農과小作農을兼行하는中小地主層의 農民이大多數를占領하고잇다고보아서 크게失手될것이업는터이어서 農地令은別問題하고라도 從前에도小作爭議는 過히만치안엇고 또한小作權의變動도 퍽도적엇다고볼수잇섯다

그러나 一部의橫暴한地主들이 農地令實施를前後하야 小作權의移動을圖謀하고 또는小作料引上을꾀하는者도 업지안은貌樣이며 小作人移動申立은 明年一月末日까지로되여잇는關係上 그時期에는 多少의爭議가暴發할지도몰으는形勢에잇서서 前述한바와가티農地令實施後의 一般의情勢는오직 無形의緊張으로 一貫하고잇슬뿐으로 그러케有色하게 表面化하는狀態는 認識할수업는터이다

爭議元來僅少 全部調停成立

平壤地方法院에 나타난 小作爭議의 調停狀況을보면 農地令實施前인 昨年度에는合計六件으로 全部가小作權保全을 要求하는申立이엇섯는데 六件中에서調停成立된것이 四件이요 二件은申込을取下한것이다 그리고今年度에들어서도 亦是農地令實施前인 十月까지의 三件의小作權保全의 申込이잇서 全部가調停成立이되엿다

그러나 農地令實施後 十二月中에 들기까지에는 아모런小作爭議도업섯든지 申込된것이 一件도업는 此所謂 無風狀態에잇는터이며 小作人移動의 申立이一月末日까지이므로 一月을지나서부터 調停申立이 暴注하거나 안흘가하여 今後의動向을展望하고 잇는터이라한다

그런데 昨今兩年을通하여平壤地方法院에 提出된小作調停은前記한바와가티 全部가 九件뿐으로 地方別로 보면中和三件著位로 平壤、龍岡各二件、平原、龍岡各一件이라한다

인플레景氣

平壤을中心으로 隣接한 郡部一帶의土地價格은그야말노날개가돗친듯이暴騰又暴騰하여借地人對地主間에 抗爭이極度로 尖銳化하고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이거니와平南全道各地를 通하여農耕地價格이一般的으로 高騰하고잇는것도또한否認치못할 事實노이것은오로지 인플레景氣에 左右되는것뿐 農地令이나 其他의 理由는介在치안은것만도 事實인模樣이다

그러나 最近의一般情勢와有力地主들의 이야기를 綜合하야보건대 廣大한土地를가지고잇다면至今까지 賦課되지 안엇든第三種所得稅에든옴이 빠지게되다하여 收穫이적은土地는될수잇는대로放賣해야되겟다는 主義들가지게되여 압흐로耕地價格은 反面으로低落되지안흘가?하는것도一種의推測에만 머저지지안을往日對點이라한다

其他特殊事項

平壤地方法院管內에는 三南地方에나 其他地方에서聯絡不絕하게 일어나는所謂立稻差押이란苛酷한偵鬼는 퍽도적어昨今兩年을通하여 法院區內執達吏事務所에서執行한件數가 겨우十一件에갓처다는것은平南地方에서나볼수잇는現狀이오 그나마도管轄區域이變更되기前黃州郡內에서 三分의二以上이 執行되엿다한다

以上과가타서 小作爭議나 立稻差押이란 그리注目을끌을지안는것만은事實이며 地主對小作人間에直接契約으로 小作料를意識定하는것이通例이오 中間惡的分子인舍音制度가 極少數이란것이他地方에서 發見할수업는 特色이라할것이라한다

全南道

큰期待는一時的 벌서舊法令化 特殊問題에만適用

光州支局 一記者

全南은天時와地理의利를입어서 朝鮮의穀庫이라는稱이잇는 富饒이다 따라서富者만키로도全南이十三道中首位이니 이것은 이러하고 貧者만키로도第一이다 全南은土地가肥沃하야 農產物이豊饒한裏面에는 富의偏重이强行되여 土地의兼併이激甚함으로中間層이 缺如하고 地主가아니면小作人일것이니 勿論小作人의數는만코 地主의數는적을것은 論證을不要하는바어니와 全道總戶數四十五萬戶中 六割三分인三十七萬戶가農家戶數이다 이것을 地主와小作人別로區分하야數字的으로본다면 地主는甲乙丙種을合하야 겨우六千五六百戶로農家總戶數에對하야 一分五厘弱이요 小作人의數는自作兼小作을除하고도 十七萬戶를훨신超越하야 農家總戶數의五割에가직하니 自作兼小作을合하면 八割二分强이다

이것이야말로 朝鮮問題의根幹인農村問題의 疲弊相을 證言함이안이고무엇일가

거긔에다 朝鮮의農民은經濟的으로만劣位에處하여잇는것이안이라 그들 多大數는오히려封建舊殼을버서나지못하고 世襲的 即人間的低位에處하여잇나니 하물며封建意識이 强固히얼키여잇는 全南에잇서서랴

◇

그런데 近代的商工業에比하야原始的 產業形態인農業이 至極히利益이 적은것을알게된 地主들은資本主義思想에 感染되여所有土地를資本化시기고 그의生產利益을 現代商工業의 利潤에비겨同等化시기라는동안에 小作人의經濟的地位는 漸漸劣惡化하여지고 世襲的으로 低劣한그들 社會的地位는 小作農乃至 失業農民의 激增으로 回復은 커녕더욱더나저질 따름이다 그런데그反面에는 古諺에『窮鼠噬猫』는格言과가티 經濟的社會的地位가極惡化된 農民大衆은물어오는時代思潮에不知不識間에、서로迎合되여 個人的으로或은 成群的으로上部階級인 地主에게對하야反抗乃至 鬪爭을惹起하야 重大한社會問題를 惹起하나니 이러한것쯤은 今日에는 오히려平凡한本來的例事인것처럼 吾人의耳性을일우기허저여 덧치게되엿다 그러나 眞摯히 이러한問題를考察할때에 이는가장重大한 社會問題이다

◇

그런데 物質的으로 社會的으로現代的貧富의 差와舊式的貧賤의差가더욱 現隔한全南은地主對小作人間의 問題도따라 만흘것은理의 自明한일이며또過去와現在의事實이이것을證明하고잇다 이엇지 關心者의그대로 放任할바이랴。

◇

오히려 晩時의歎이업지안은바이나 時代的法命인 即農地令은日本內地의 小作法보다 압서서朝鮮에먼저 實施케된것도 一理가잇슬것이다。

本法令의內容이 元來吾人의企望하든바에比하야는 差異가너머나크나그러나 한번法令으로서公布實施되는以上 他言을略하고 施行後筆者가이글을 執筆하기까지의二個月동안 全南의農村에서바든新影響을써보라는것이 當初의目的이다。

◇

前言한바와如히 本令이 施行된後 二個月동안 全南農務課小作官의손으로 法院을通하야法的으로屆出된『小作調停申込願件數는不過二十數件이라는데 이數字는勿論만치못한數字로서當局者들暫時慰安시기는材料가 될는지몰으겟스나 問題는當局의統計臺上에오르는그것보다 本令第十七條下段『……에關하야 必要한事項은朝鮮總督이此를定함』이라는本條에對하야別로히 判定한小作調停令第一條 第二項上段의『當事者는合意로써……』云云의後絕的條項에는 맛치여 法的行動에抹殺시기여바린것에不過함이다

그理由는詳論치안어도 알일이이려다는것은想像하여둘따름이다

그리하야 小作人은自我에게有利한法令인줄로만밋고 既成階級心理는 一時的이나마 一層高調되여過去의모든積鬱을 一時에提訴하라하나 法의手續도手續이요陳情書等을寫發하니 農地令이알어줄배안이니 도리혀地主들의反感만을일으키여 小作料引上、保證人의更迭等의 難問題에만逢着케되다 이러케하야 일부러組織된府郡島小作調停委員會는 虛名無用의것으로도라가버리고 諸問題는法令線以下에서만 오고간다

그리하야 農民들의 一時的活潑하든思惑도 二個月以內에 사라지고 新法令인 農地令은 발서 舊法令化하야 特殊問題二三件에만適用되고 말게되어버렷다 要略하여 結論하면 土地新有者와 土地耕者의사이에 經濟的社會的地位의差異가너머나 激甚한全南의農村에는理想的農地令이가장必要한 裏面에 가장그實地適用이적다는것을말하여둘따름이다

謹賀新年

龜城 龜城郡廳職員一同

朔州郡外南面梁賢洞 義合鑛山事務所 金允行

龜城郡廳 李公厚

龜城警察署 龜城警友會

龜城金融組合 渡邊五郎

龜城公立學校職員一同

龜城郡館西 信興義塾

龜城邑內 昭和醫科院長 安榮生 電話取次一五番

龜城邑內 龜州印刷所 許熙九 許殷道 電話一七番

株式會社 朝鮮日報社龜城支局 支局長 金應芳 (年賀狀禁廢)

新義州地方法院龜城出張所 栗原末吉

梨峴面職員一同

龜城郡東上市 催東雲 張昌根

龜城面院興洞 龜龍鑛業所 洪亨植

龜城邑內東門通 甲種料理 芳花亭 李疊來 電話二〇番

龜城邑內 芳花亭 申初月

龜城邑內 芳花亭 裵香娘

龜城邑內 甲種料理 明月館 主 金炳淳

龜城邑內 明月館 金錫桃

龜城邑內 明月館 方玉姸

龜城面職員一同

龜城邑內 司法代書 金載熙

龜城邑內 天道敎宗理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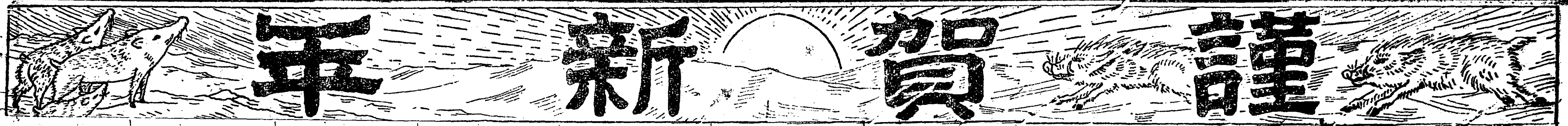
龜城邑內 韓基賢

芦洞面中坊洞 芦洞醫院 元錫象

芦洞面中坊洞 五成精米所

龜城邑內 龜城自轉車店

龜城邑內 朴·京樓



宣川

宣川 入院隨意 仁濟醫院 醫師 洪致業 醫師 吳震泰 電話五九番

宣川 信聖學校

宣川郡宣川邑南洞四九二番地ノ一 信一商會 朴義京 電話七〇番

宣川邑川北洞 高等料理 琴松館

宣川邑內 朝鮮高等料理 碧城樓 主 吳三女 電話一五七番

宣川邑 松林金山事務所 李泳貫 電話一三八番

宣川邑內 青山木工場 朴寶鎭

宣川邑 又帆

청거ー會社宣川分店 金基輔 電話長一一六番

宣川邑 宣興商會 金景熙 電話三六番

宣川郡東面 金明琺

宣川邑 泰平理髮館 李炳泰

宣川警察署署員一同

宣川本町 不二屋自轉車商會

宣川邑本町 平和食堂

宣川邑 吳遠根

宣川郡東面路下洞 田泰永

平壤府仁興里五一五番地 羅相龍 電話六四二番

宣川郡廳

藝妓 金玉蓮

郡山面 金洙鉉

郡山面 桂晋培

平北宣川邑川南洞 救世醫院 金迺興

宣川郡新府面承旨洞 申鳳千

平北宣川邑 藝妓 郭錦仙

宣川邑 藝妓 田錦花

宣川邑

入院隨意 外科專門 金醫院 電話五二番

宣川 林京範

宣川本町 和洋雜貨 萬貨商店 主 魯炳燮 電話六八番

宣川郡宣川邑 大英書院 金碩河 電話一三〇番

京義線宣川驛前 鑛山用諸機械設計製作元 商工鐵工所 電話長一四五番 振替口座一六三四五番

新義州府初音町一四 金凌波

宣川邑 朴銀玉 電話一一一番

宣川邑內 最新流行高級洋靴製造販賣 國一商會 金福寬

宣川邑內 洋食和食支那料理 黃海食道園 電話一五五番

京義線宣川驛前 鑛山用具專門 平安鐵工所 長電話一四四番 私書函第十九號 振替京城一一四五七番

宣川邑 金得寶

宣川金融組合

宣川本町 全基賢商店

宣川邑 東亞洋服店 主 金匪澤

宣川邑內 高級洋服調進 鮮一洋行 安秉均 康玉齡

宣川本町 中央洋服店 金明道 金應瑞

安北宣川本町 綢緞布木貿易商 龍洋商會 主 魯九烈 電話六八番

宣川本町 諸雜貨直輸入卸商 東興印洋襪製造元 金成商會 電話一三四番 私書函本局第一七番 電略(ヨ)又八(キン)

平壤府旭町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西鮮出張所長 崔秉纁

宣川醫院 醫師 郭麟模 電話一五四番

京義線路下驛前 三合精米所路下支店 本店京義線古邑驛前

京義線路下驛前 濟衆醫院 趙生均

宣川邑 中根之智

宣川邑 和洋料理 松竹食堂 電話一四六番

宣川邑 朝鮮料理 金剛園 主 金淳玉

宣川黃海食道園 金春子

宣川農民共生組合 徐達河

金商說

宣川邑 朴希賢

宣川邑 田文信

宣川邑 保聖女學校

宣川驛前 活版石版和洋製本 族譜名刺文具一式 宣川印刷所 電話一〇四番 振替京城一四四五二番

朝鮮平北宣川邑內 和洋食料品雜貨 三衆商會 電話五四番 電略(サン)又八(삼)

安岳

安岳郡大杏面 加藤農場

黃海印刷所 主 安益三 黃海道安岳 電話十五番

安岳郡安谷面職員一同

安岳郡廳 電話四番

安岳郡公立學校長一同

安岳郡公立實業補習學校

黃海道安岳(電話一四番) 昌信醫院 公醫 宋洪植 女醫師 閔榮玉

安岳邑內 元翊燮

安岳司法代書人一同 李在燮 金孝根 宋丙基 郭弘燮 澤根 李旋球

安岳郡大遠面 金農場 電話五九番

朝鮮日報社安岳支局 元性甫 柳在明 邊宗瀅

安岳邑內 協茂東

安谷金亭里 安秉昱

安岳溫泉 玉乃井旅館

山川面職員一同 面長 閔貢植 文致祚 金鎔河 金光華 朴奎中 閔長植 鄭炳谷 許山鳳

安岳郡安谷面 私立明進學校 設立者 柳明保

安岳郡大谷面職員一同

安岳郡西河面職員一同

安岳邑內 萬和醫院 院長 尹相烈 電話三四番

安岳公立普通學校長 井上勇

安岳邑內 金應石 電話四〇番

安岳邑內 楊山商會 電話二〇番

安岳邑內 朝日自轉車商會

安岳郡龍順面職員一同

安岳邑內 元楨玉

朝鮮鐵道株式會社 安岳自動車營業所 電話一七番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海州支店安岳營業所 主任 沈忠求 電話六一番

安岳邑內 宋榮環

安岳邑內 金泰燮

東亞齒科醫院 院長 李東煥

安岳溫泉 近藤朝喜

安岳溫泉 姜能學

安岳溫泉 又春館 主 呂宗淳

安岳溫泉 青山醫院 鄭學龍

信川郡用珍邑柳川市 河有聲

信川郡用珍面柳川市 高弼勳

東倉浦 趙孝植

安岳邑內 崔大淳

安岳邑內 李禎燦

安岳邑內 金昌植

安岳邑內 延學斌

槐山

株式會社丸石商會代理店 忠北槐山邑市場通 各國自轉車、特約販賣、オトバイ修繕 稻扱機修繕、發動機修繕、附屬品一式 亞細亞自轉車商會 主任 李濟德

槐山邑 林田久吉

七星面松洞里 金容元 申洪哲 金容宰 洪丙憙 (無順)

忠北槐山邑內 槐山醫院 醫師 淺野勝三

槐山市場東五二六 和洋百貨 萬物專業 穀物商 精米部 義信商店 主 朴圭浩 振替口座京城七二〇七 (日曜休業)

槐山邑內 金星會

槐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槐山東部里 笑春館 主 張根七

槐山邑內 東一釀造場 主 朴根陽

忠北槐山邑內 仁濟醫院 醫師 朴三陽

槐山面長 沈載憲

槐山郡沼壽面 公普校長 葛井力

槐山公立小學校 富岡卓巳

槐山邑內 李尙一

忠北槐山 日用雜貨 直輸送 藤江商店 藤江仲一

忠北槐山邑市場通 我帽百貨店 主 金陽洙

靑川里 姜斗七

青川市場 青華旅館 主 鄭完西

朝鮮忠北槐山邑 青始洋服店 主 李祐承

槐山邑內 金觀應

槐山蹴球團

忠淸北道槐山郡延豊 錦上醫院 公醫 金泰河

延豊金融組合 理事 岡本哲郎

佛頂面長 李之榮

槐山郡牧渡金融組合 理事 方洛維

槐山牧渡市場通 牧渡釀造場 主 朴一陽

牧渡市場 料理業 永興館 主 金永釗

槐山郡甘勿面長 權泰鎭

槐山郡沼壽面長 李昌珪

上芼面溫泉前 親切本位 昭和旅館 主 盧元俊

七星面道井里 長春釀造場 主 金德鉉

忠北槐山邑市場通 高級自轉車附屬品販賣修繕 金輪自轉車店 主 金昇日

忠北槐山郡沼壽面沼壽里 沼壽酒釀造場 劉義鎭

春紡金銀房 主 李佐承

槐山邑 松月屋 主 閔三吉

朝鮮忠北槐山邑內 酒類、藥品、食料品 高見支店 販賣元

普生堂大藥房 主 姜翼秀

張福龍旅館 主 張福龍

槐山邑 保泰號

泰均製帽所 主 趙泰均

忠北槐山邑市場 朴承來商店 電略(ト)又八(一)

靑川酒造場 申榮淳

槐山郡 靑川面長 李福漢

槐山面大寺里 李重善商店

延豊郵便所長 緒方安平

槐山郡延豐面 延豐面長 曺秉俊

槐山郡延豐市 金福女旅館

廣信商店 主 盧然珍

七星面道井里 鄭雲榮

延豊酒造場 主 朴秀湜

佛頂面牧渡市場 安部ミツ

牧渡市場 世一醫院 醫生 全永靑

槐山郡甘勿面光田里 新昌社釀造場 慶鳳浩

溫泉里 仁濟藥院 成君錫

溫泉里 金泳珍

唐津

唐津麵子組合

石門面事務所職員一同

日月釀造場 元容泰

唐津郡 利和金鑛

唐津邑內 □仲植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五

不安恐怖下의 歐洲
파시즘의 激流 ②

洪陽明

파시즘의 脅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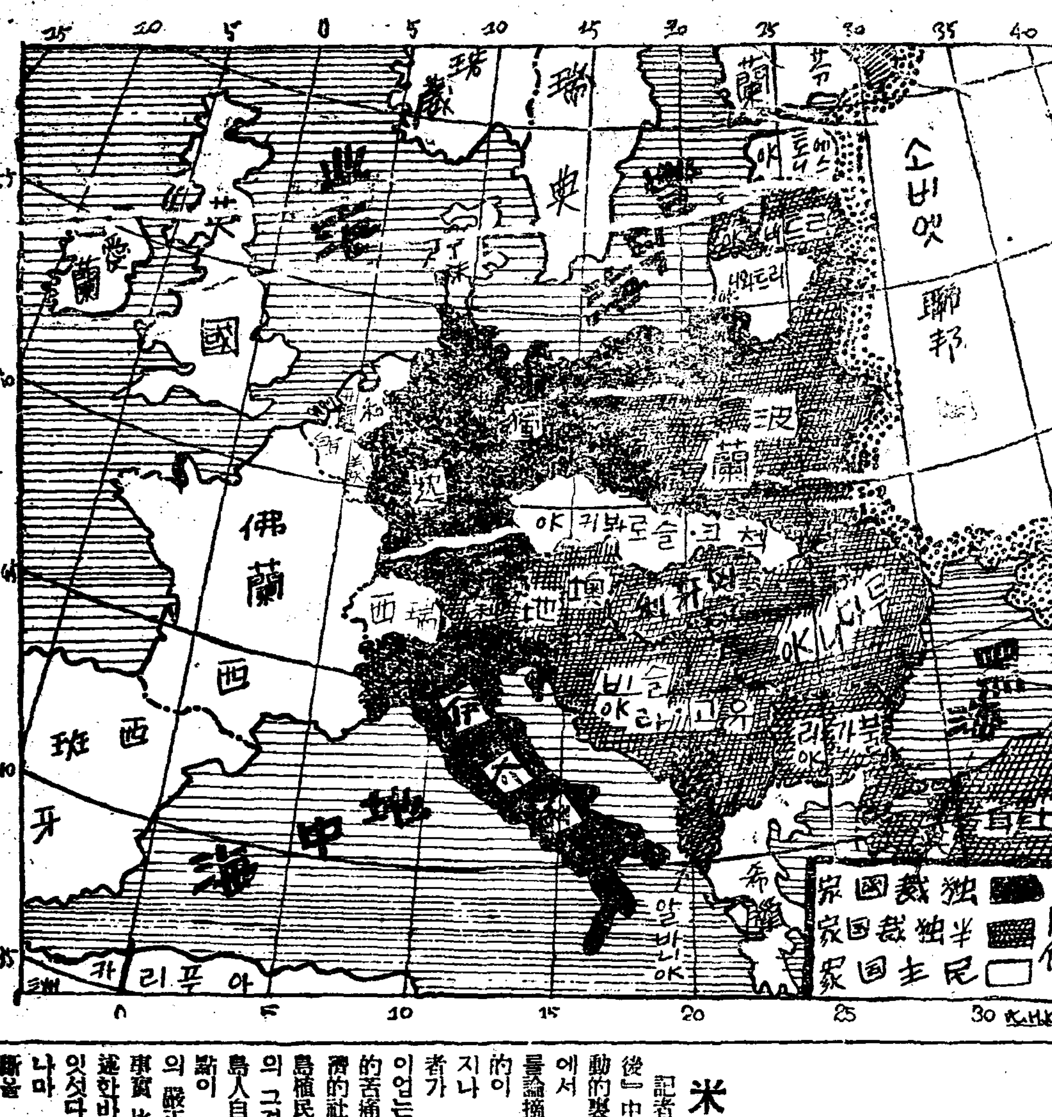
歐洲의現勢는縱으로보면 一般的平和의破壞를 勢力均衡外交로서彌縫하려는累卵의狀態이오 横으로보면『파시즘』과『데모크라시』로現在各國의 舞臺正面에서 雌雄을決하고잇는것은『파시즘』과『데모크라시』이라할것이다『파시즘』의創始者『뭇소리니』가 一九二二年 羅馬에進軍하야 政權을掌握한지 滿十二年間實로歐洲各國의政界는 파시즘의爆頭에依하야驚異할만한變化가 니러낫지마는그中에서도一九三四年과가튼變化를 이르킨해는업다。二月六日『스타비스키』事件에依한 佛國파시스트『악숑·프란세즈』의 巴里大暴動은 佛國大革命의 再演을聯想케하얏고 二月十二日의 維也納의社會民主黨 革命暴動을機會로墺國파시스트『하임베르』는 돌푸스政權의 中堅部를掌握하야 十五年間사흔 社會民主主義의 牙城『칼막스宮』을 破壞하여버렷다 有名한 外交評論家『칼라덕』이이兩大事件을 가르켜『十八世紀와二十世紀의鬪爭、維也納과墺地利의鬪爭이라』고 하얏지마는 實로十八世紀以前의 絶對主義를 溯及하야 崇奉하려는 王黨파시스트『악숑·프란세즈』의 暴動과이에對立한 社會黨系 共産黨系勞働者의『제네스트』의對立은 數世紀間에亘한『이데올로기』의鬪爭이엇고 全墺國人口의 二分一이居住하고잇는 維也納의庶民、勞働階級은 農村封建意識에根據를둔『하임베르』에게 維也納을빼앗기어 劃一化한墺太利에게敗退되고마럿다는點에서 생각하면 安當한말이라고도 할것이다 어더케되엿든지 十八世紀의 絶對主義乃至古代哲人政治의 模造인『파시즘』은이해에 歐洲民主主義의 牙城 佛國을찔러 國民一致協力內閣을 맨들게하얏고 共和國墺國을『팟쇼』色으로칠하야 노코멀니『도버』海를건너『데모크라시』의宗主國英國에까지侵入하야『짝、모슬레』一派의 英國파시스트 『오더피』將軍의愛蘭青샤쓰黨의 共和制에對한鬪爭을展開식혓다。이에이미確立된『파시스트』國家의 大支柱獨伊兩國과『필스드스키』將軍의 波蘭의 軍事獨裁『유고슬라비아』의 君主獨裁『루매니아』『불가리아』의 軍事獨裁、土耳其의『케말파샤』의 官僚獨裁等等을 加算하면歐洲의 約半은 이미파시스트革命에 席捲되엿이다。

파시즘의 本質

왜그러케되느냐? 무슨까닭이냐? 民主主義가防禦的이오『파시즘』이侵略的行動이라는것만으로도 政權移動이力의 均衡破壞에잇고 力의一方集中이此를成就한다는點에서 力의政治인 파시즘이 優勢한다는 簡單한理由가되겟지마는 그보담도『파시즘』이 優勢한 理由로써는『民主主義』가 緊迫한 今日의 政治的經濟的 非常時를 打開하는데잇서 伸縮作用이 遲鈍하고 그行動이 無力한理由에도 基因한다 非常手段으로써 迫力이잇는『파시즘』으로하야금 現狀에不滿을가지고도 現在의生活組織을 根本的으로 變革하려는運動에는加擔할信念과 勇氣가업고 그러타고그대로잇기에는 脾肉之歎을感하고잇는 各國社會의流動的小市民、룸펜、退職將官、在鄕軍人等不可屆의魅力을感케함은 特히軍隊的組織의 團體的妙味、直接行動에依한痛快感等이 世紀末的氣勢를 刺戟하야 社會心理的으로有力하게 作用하는 때문이다。各國의 파시스트가 빠짐업시制服을입고 最上의武로하는것은、그軍國的精神의 鼓舞、또는『파시즘』은 資本階級에對하야는 資本主義를 根本的으로、否定하는『볼쇠비즘』보담은 危險率이적다는것을表示함으로써 그行動의拘束을緩和함에잇는것이다。獨裁政治는 根本的으로는 그것이、『볼쇠비키獨裁』이냐『파시스트』의 그어느것임에는不拘하고 階級對立이激化한엇더한 歷史的段階에잇서 一階級이 他階級을 抑壓하기 爲하야 客觀的으로 要求되는一種의 政治形態이나、資本主義機構의修正을 企圖하는것은資本主義의 變革을制限하려는資本主義自身의要求에서 出發된것에對比하다면『파시즘』은그것이資本主義의修正과 國家統一經濟를爲한 組合國家建設을그經濟綱領으로하지마는、實質的으로는 無産階級獨裁를主張하는 볼쇠비즘과 正面으로對立되는點에서볼때 終局的으로는 他의形式에依한資本主義의獨裁라할것이다。아모리力拔山氣慨世、精力과 智慧가絶倫한獨裁者라할지라도階級集團의背景업는『獨裁者』는생각할수가업는것이다。또한『파시즘』은何等法律에拘束밧지안는實力의支配를要求하기때문에 그政權獲得의手段은『暴力』과『暴力』에終始되다 絶對者의行爲에는오즉 服從뿐이 잇슬뿐이오 批判의自由가업다。『이기면官軍이고지면賊』이라는말과가치 엇더케되엿든지勝利하는것이『파시즘』에잇서서는 正義가된다。

社會不安增大

勿論파시즘自身에도여러가지精神史的基礎와 倫理的根據가업는것은아니다。그러나그어느것이나그基調를當該民族의福祉를第一條件으로하야 他國人排除이른바(Xenophobia)──를 內容으로한點에서그것이一國民의幸福을增進한다할지라도 各國民의 一般的平和를無視하는傾向이잇는것은『나치스』獨逸의猶太人排斥이 그것을例示한다。『힛틀러』의나치스獨逸의最近經過는『파시즘』의本質을 明示한바가만타『힛틀러』는 獨逸에잇서서는 이제는天上天下에唯我獨尊! 首相兼終身大統領이되엿슴으로 그의 支配가 人民의 憎惡하는바되드래도 그强權을 實力으로써 누를만한 新勢力이 國內에서 形成되든지 或은國外의 勢力이 彫謝하기前에는 그權力은 維持될것이라볼수잇스나 그經濟政策이結局 뒤선等의 一面의大工業家를利하게하얏고 失業者減少라든가 人民의生活安定에는 成功치못하야 피로써피를 씻는戰慄할六月三十日의、淸黨事件을이르키기까지에이른것은 吾人이周知하는바이다。無力化한 民主主義의牙城을 向하야 突進하고 잇는『파시즘』의 激浪은 國際的國內的으로 最近社會不安의 重要한 動因이되고잇지마는 一九三四年에 特記할『돌푸스의暗殺』、『알렉산더』유國皇帝와 및 바르투外相의 暗殺等 一聯의 戰慄할『테로』行爲에 關聯하야『暴力』을 政治行動의基調로하는『파시즘』의 再現과아울러、歐洲에戰雲을 부러오는 暴風雨라할것이다 (커트는 뭇소리니氏)



◇歐洲의獨裁主義國家와民主主義國家分布圖◇

比律賓獨立과 中立國化問題 【2】

韓普容

米傳統的政策(續)

記者는 前項『獨立法案과그背後』中에서 米國資本主義의 活動的裏面을 指摘하엿고、또本項에서 比島占領의 양키帝國主義를論摘하엿스므로 이小論의 目的이 아메리카의 黑面暴露에잇지나 안혼가하고 誤解하는 讀者가 잇슬는지、모르나 自主權이업는 民族으로 比島의 精神的苦痛은 別問題로하고 大體經濟的社會的 見地에서 米國의對比島植民地政策은 어느다른宗主國의 그것보다도 寬大할뿐안이라比島人自身으로보아도 幸福스러운點이 만혓다고보는것이 第三者의 嚴正한觀察이나 안일까한다。事實 比島獨立法案의 背後에는上述한바와가튼 여러가지 事情이 잇섯다하드래도 不完全한獨立이나마 米國이아니고는 그만한英斷을 가지못하리라는것은 英國의印度政策、佛國의安南政策에비추어 잘알수잇는일이다。比島農産物이 稅金업시 米本土로드러오는것과 比島人의 米本土無制限入國이 比島獨立을 促進한것은事實이나 이것은 米國사람이 그만치 境遇를알고 體面을차리고 또待遇를하는까닭이오、獨立식히지안코도 比島農産物 또는 比島人入國을 어느程度까지 制限할수잇는것이다。이러한일은 現在他國에는 公然히 施行되고잇는事實을 우리들은 잘알고잇는터이다。

『比律賓은』

(過去三十六年)間 非常히發達되엿스며 이發展이 主로比島人本位로되엿는데 特別히 留意할必要가잇다。勿論 現在比島에는 二億五千萬弗假量의 米國資本이 投資되여잇스나 이것은無資本國으로는 産業發展上 어느程度까지는 必要한것이오 반드시排斥할것은안이다。

現在比島의 耕地는 九十八%까지 比島人이所有하고잇다。그러고 國法(一九一九)으로써 土地를어느程度까지 各個人이 公平이갓게되엿고 東印度會社가튼 큰會社의出現을 禁止하엿다。比律賓은 大學生數가 一萬五千을 超過한다。義務敎育制가 實施되지못한곳에 就學者 特히 高等學府學生이 만타는것은 그땅百姓의 向學熱이 놉다는것보다도 經濟的으로 裕足하다는것을 證左하는것이다。比島에는完全(?)自治制가實施되여 議會는比島人에依하야 움즉일뿐이아니라、아즉 日本에도實施못된 婦人參政權까지承認되엿스니 이몃가지例로도 아메리카의 比島政策을推測할수잇는가한다。

比律賓을 獨立식히려함에際하야 對外的關係에잇서 米國이第一關心하는바는 獨立後에 다른나라에서 比島를占領 또는勢力範圍에 너치나 안흘까하는 點이다。上述한바후-버前大統領의

『獨立法案』

拒否理由에서『人口過剩、物資缺乏에 苦惱하는隣邦의脅迫이잇슬念慮가잇다』하야 日本을 危險視하고잇는 의 比島는 帝國主義的侵略의 標的이될念慮가잇다』고指摘的危險性을 指摘한것은 무엇보다도 多數의 米國人의 共通的關心을 如實히表示한것으로 볼수잇나。이와가티 責任잇는자리에 잇는 官界要人들은 어느나라라고 指摘하지는안치마는 一般米國社會에서는 露骨的으로 이點을論評하고 宣傳한다。지난十七日刊의『뉴-욕』허-스트系新聞이 一齊히『萬若 比島를 獨立식힌다면 日本은 適當한時機에 比島를占領할것이다……比律賓을 獨立식힌다함은 領土慾에불타는 日本에잇서서는 더할데업는 조흔 糧食이 될것이다』라고 堂堂히 社說로써 論破한것은 한가지顯著한 實例이다。

이러한危險을 想像하며 米國政治家들이 苦心한結果 案出한 名案이 즉 比島永世中立國問題이다。그러하야 比島獨立法案中에도 明文으로써『比島中立保約을 列國과締結할權限을

『大統領에게賦與』

한다』라고規定되여잇슬뿐안이라 米國外交協會及世界平和聯盟 幹部들이中心이된比島中立委員會라는團體는去三月早大統領에게比島中立協約締結을建白한일까지잇섯다。

比律賓自身으로보면 中立國으로되는것이 多少 獨立國으로서의 威信關係는잇다하드래도 財政이豊足치못한나라로서 巨大한軍備를 自擔할必要가업고 同時에 周圍列强으로하여금 不侵略을約束하게하야 獨立을保障하는것이 確實히 한便으로보아 良策이안인것은 안이다。

『中立』이라함은 一國家가 隣國間에 戰爭이이러난境遇에 中立을嚴守하는同時에 一切 戰爭當事國이되지안흘것을 約束하는同時에 諸隣國은 共同하야『不攻擊』『中立保障』을 約束하는것으로 如斯한例는 許多하다。卽瑞西共和國은 露、英、佛、墺、西、瑞典、普、八個國에依하야 一八一五年三月二十日 維也納에서 調印된後 今日까지 中立國으로繼續하여온다。

『白耳義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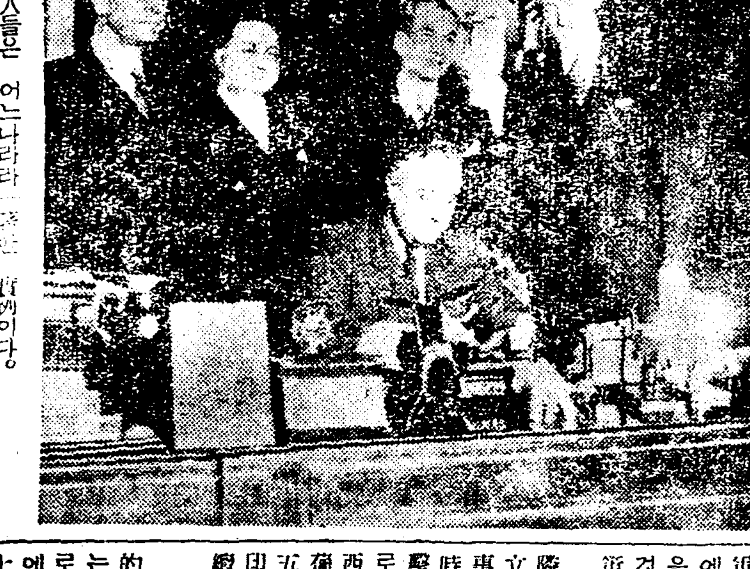
(大戰直後中立)的 地位拋棄를 宣言 하엿지 마는 一八三九年四月十九日條約으로 英、露、佛、普、墺、和諸國에依하야 中立이保障된 以來八十年의長期間을 中立國으로서 繁榮하여왓섯다。이外에도 룩셈부릑、호-뉴리스等 一時的中立國이되여잇슨나라의例는 相當히만타。

그러나 比島問題에 잇서서는 現在形便으로는 難處한點이잇다。萬若 比島中立協約이 必要하다면 日、英、佛、中、和、米等六個國은 加入하여야 할것인데 此等諸國이 中立協約에 加入할는지는 매우疑問이다。

新獨立法案에는 陸軍根據地는 放棄하엿스나 海軍根據地에對하야는 아즉도 拋棄치안헛다。卽 海軍根據地에 關한 新法案規定은『獨立後 二個年以內에 米比兩國政府가 協議決定한다』고 되여잇다。이問題가 將次如何히 決定될는지는 알수업지마는 米國이 如何한形式으로든지 海軍根據地를 갓고잇는以上 이것은 比島政府에 一種의 威脅的存在인同時에 直接間接으로 比島內政에 影響될것이므로 獨立國으로 認定할수업스며 非完全獨立國인、米國勢力範圍內의 地域에對하야 關係列國이 中立的地位를 주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極端의例』

(를들면 日米가)戰爭하게되는境遇에米海軍根據地가比島에잇슴에不拘하고比島가中立國이라는理由로日本海軍이此를攻擊치못한다면여기는確實히理論上矛盾이생긴다。反對로 日本海軍이 此를攻擊할수잇다면 比島의中立化는 全然無意味한것이되고말것이다。딸아서 比島의 中立國化問題는 簡單한듯하면서도 其實은 相當히複雜한 關係가잇나니 今後 米·比關係가如何히進展될까하는것도 興味잇는바이다。(完)



寫眞은 루大統領이、타이딩스獨立法案에署名하는光景、其他人物은比島代表

獨佛間의火藥庫 『잘』人民投票(來十三日)

獨逸? 佛國? 現狀維持?

新春劈頭 來一月十三日에 決行될重大한 政治的事件인『잘』地方人民投票는 歐洲不安의根源인 獨佛兩國의 直接對立抗爭을 實際上으로 演出하는機會가되는 마큼 그歸結如何는 一九三五年 歐洲政局의 陰晴을卜하는 一大『모멘트』가되고잇다。『잘』地方은 面積千八百八十八平方粁、人口七十七萬七千을有한 歐洲에서도가장人口稠密하고 豐富한炭山地方으로써有名한곳이다。이곳은歐洲大戰當時 獨逸의軍士가 佛國北部의炭坑을 破壞하얏다는 理由로『베르사이유』條約에依하야 炭山所有權과 探掘獨占權이 佛國에讓渡되고 그地方의施政權이 國際聯盟으로 너머가佛國人一名과佛國人以外의잘地方住民一名 三名의 獨佛以外의國籍을有한·都合五人의國際聯盟任命施政委員에 依하야統治되게되것은 一九一九年六月二十八日의일이엿다 그리고 同條約規定에依하야 잘地方은 滿十五年後에는 人民投票에依하야 一、依然히聯盟施政下에잇든가 二、佛國에合併하든가、三、獨逸에合倂하든가、三者中의一方에歸屬할것으로되여잇는것인데 어느듯歲月은흘러、今年으로써그十五年의期間이完了되엿슴으로 來一月十三日이바로、그最後의歸屬을 決定하는人民投票施行日이된것이다、그런데 同地方에는佛國의工業資本이十八億法이나 投下되여잇슬뿐만아니라 貿易에잇서서도 佛國對잘地方輸出年額二十億法輸入年額十五億法에達하여『알사스、로렌』과隣接한잘地方의石炭年産額千百萬噸(一九三三年度)銑鐵二百條萬噸(一九三三年度)鋼鐵百八十萬噸(一九三二年)은『알사스、로렌』의鐵과合하야 佛國重工業의根幹을이루고 또農業經濟上으로도서로깁흔依存關係를 形成하고잇는만큼、同地方이獨逸로歸屬된다는것은佛國國家經濟에 一大脅威를齎來하는것이된다

나치스獨逸의 死活問題

他方獨逸에對하야말하면 歷史的으로兩國의 關節이든『알사스、로렌』이大戰結果다시佛國에讓渡된것만하여도經濟上으로 損失한터인데八十五%以上의純粹『게르만』族이사는 잘地方의獨逸復歸 ─『게르만民族』統合을國是로하는 國民社會主義의 體面이설수가업는것이다『잘』을作戰하라!『獨逸은잘을斷念치안는다』는 同時에잘은 獨逸을斷念치안는다、等等의 힛틀러式獨特한熱辯을吐하면서 東部失地恢復과 墺國合倂運動을一時斷念하다십히하고『잘』地方의獨逸歸屬에 百%의勝利를어드려고 버르고잇는『힛틀러』에對하야『잘』問題는經濟上餓死로써마는 測定할수도업는政治上死活問題가되고잇는것이다。勿論現在 外交的으로大端不利한立場에잇는 힛틀러로서는 人民投票에 同地方住民의 八五%以上이 獨逸人인만큼 이들에게 民族意識을 强調하야獨逸的一票를 던지도록 精神上影響을끼치는外에 事不如意한때에武力에訴할과가튼 非常手段을쓸勇氣가 잇슬것가지는안다。佛國은一方의 影響을强調하는作爲를禁止할것을强調하야 昨年一月聯盟에서 任命한잘人民投票委員會(伊太利、西班牙、瑞典의三國代表로써構成)에對하야나치스宣傳行動의監視를 要求하야이미千五百名의國際警官隊가 派遣되어잇는等의 事實에對하야 힛틀러가 最近스스로 나치스突擊隊와親衛隊에 嚴重한指令을 發하야써『一月十日부터 一個月間 잘地域國境을隔한 二十五粁以內地點에 黨制服을着用하든지 又는右地域內에서 會合行進을 하여서는안된다』고 한것은 注目할만한일이나 勿論이로써簡單히『힛틀러』가 聯盟에서 指揮하는대로處理하는대로 羊과가치 順從하리라고는 速斷하여서는 큰誤算이다 이는 도리혀『힛틀러』의突擊的 退却戰術이 아니라고 누가保障하랴? 또한『잘』人民投票는 投票가壓倒的으로 一方에集中될때에는比較的簡單한지도 모르지마는그러치못할時에는 聯盟理事會는投票의結果를 參酌하야適當한處置를할수잇도록 委任되여잇는만큼問題는投票數의 如何에만介在치안코複雜性이잇는것이니 그것은今回의잘人民投票와特殊하야베르사이유條約規定에依하야國際聯盟이施行하고處理할權限을가지기때문에、이에『잘』人民投票의 特殊性을要約하건댄 첫재從來에施行된人民投票는 割讓되는地域의人民은假令獨逸을擇하든가 佛國을擇하든가 二者의一을擇하면그만인데 今回에잇서서는 獨逸이나 佛國이나 聯盟(卽現狀維持)의三者中의하나를 擇하게되는것 二、잘地方은 過去十五年間 聯盟施政下에잇든만큼 一定期間中 잘所屬國과 全然關係업는 獨立行政地域이엿다는것、三、投票方式『잘』地方全體를 一單位로行하는것이아니오 町村別郡別로行하게되엿슴으로 投票結果住民의過半數의意思와 町村又는郡別에依한地方的希望과의 間에相異點이生할수도업서 卽어떤部分은佛國에 또어떤部分은 現狀維持를 願하는結果가잇슬수잇슴으로 聯盟이任意로投票結果를 參酌하야 適當히處置하는强大한 權限이잇는것을생각하면 佛國이支柱가 되고잇는聯盟의投票結果處置에는 融通性이만케되리라는것을想像할수잇는等이다 이모든點은어느것시나多數를엇고잇는 獨逸에對하야安心이못되고條件이되고잇는것이지마는이에 加하야 더골머리압흔일은 人民投票結果『잘』領域의 全部又는一部가 獨逸에合倂되는時는이等地域에잇는 鑛山에對한設備및所有權은 獨逸이金貨拂로써買受하지안흐면 그炭山의 權利는佛國에 그대로存續하는데 獨逸이買受케되면 그價格은 獨佛兩國人各一人 第三國人一名合計三名의 專門家가協議한 報告에依하야 聯盟理事會가 此를決定하도록『베르사이유條約』에 規定되고잇는것이다。이러한모든 點을綜合하야『잘』問題를 考察하면實로 一月十三日은 獨佛兩國의歷史的葛藤을 深化又는淸算하는大分岐點이 된다할것이다。그리고 現實上으로 投票結果 豫想에 對하야는 同地方의 住民은八五%以上이 獨逸人임으로人種的理由로는勿論獨逸에 歸收될可能性이만타는論者가만타。그러나同地方에는『힛틀러』의 宗敎政策을憎惡하는『로마』·『캐토릭』敎徒와舊社會民主黨系共産黨系勞働者 亡命나치스의遺臣을두려워하는 舊社者가만허 現狀維持가낫다는것을一方에宣傳하고잇고 佛國資本과依存하는住民도만흠으로 佛國의用意周到한戰術과合하야 現狀維持에기우러지리라는 觀測도有力하다 그러나그어떠한境遇를不拘하고 나치스獨逸은 最大의國民的『에네-지』를 集中할것은疑心할것도업는일임으로 投票結果如何는 實로모든點에서重大視되는것이다 (完)

聯盟잘施政委員長녹스氏(英人)

이사람이 제일일세 昨年八月十九日 힛틀러의 大統領就任에對한 人民投票[illegible]外紙의漫畫이다

◇인제는 갈대로 가보게! (外紙의比島獨立案觀)

碧潼

碧潼三朴浦 尹龍周

碧潼邑內 御會席 甲種 御料理 永春館

碧潼邑 朝鮮料理 常春館

碧潼警察署

平安北道 碧潼郡廳職員一同

碧潼郵便局 職員一同

碧潼邑內碧松館 劉玉蓮

碧潼邑內碧潼館 金昌信

碧潼國有森林保護組合聯合會

平安北道 碧潼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碧潼邑一洞 金秉洌

碧潼邑一洞 金官興

平北碧潼邑一洞 食料雜貨商 三同商會 電話二八

碧潼邑內一洞 雪城旅館 主 鄭榮

碧潼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郡畜産會 會長 劉秉權

平北碧潼邑內金融組合 青森秀雄

平北碧潼邑內 高級洋服調進 金城洋服店

碧潼邑內 司法代書人 金相燾

四同印刷所 電話二三番

碧潼邑內 食料雜貨商 大和商店 電話二二番

碧潼邑內 明月館

邑內 高興壽

碧潼邑內 天一社

碧潼邑內二洞 雜貨貿易商 新興商會

碧潼邑內 同興商務組合

碧潼邑內 公炳球

碧潼邑內一洞 河泰栗

碧潼邑內 趙英鎬

碧潼郡邑內 天道敎宗理院

邑內 崔信國

洋品雜貨商 우리商店

平北碧潼邑內 碧潼農民共生組合

阿間

天道敎明川郡宗理院

天道敎青年黨明川部

阿間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明川農民共生組合 專務 太一俊

明川郡阿間面事務所 崔泳俊 玄丙喆 崔昌墡 金澤龍 金松岳 太鎔澤

私立阿一普通學校

阿間面長 崔俊九

阿間金融組合 理事 陳泰琬

明川郡阿間面事務所 會計員 太明鵬

明川郡阿間市 醫生 李元馥

古站驛前 吉州自動車商會 古站出張所

古站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古站代行營業所

共信商店阿間支店 (本店 明川郡雲峴場)

太龍俊

李明善

金永傑

司法代書人 朴鵬燮

乾材藥局 一堂

試驗管中의 나라運動

NRA의改造와 國際的協調主義 (二)

韓普容

不景氣退治策으로 NRA運動이 아메리카에 出現한지도 於焉間 一年有半이되엿다。그사이 아메리카社會는 相當히 騷然하엿고 루-즈벨트政策은 複雜多端하엿다。一般社會에는 戰時的 非常氣分이 가득찻고 政府政策에는 曲折이 許多하엿다。어떤 學者가 『루-즈벨트에는 一定한 外交政策이 업다』고 말하엿다。그러다 그리고 루-즈벨트의 所謂 New Deal(新政策)에도 一定한 經濟政策이 업다。萬若 거게 어떠한 主見 目標가 잇다면 그것은 資本主義가 가저온 社會苦(經濟恐慌)을 經的으로 征服하고십다는 그것뿐이다。말아서 『뉴딜』을 觀察한다면 『적재』的으로 展開되여간다。이리하여보다가 안되면 저리하여본다는 말하면 닥치는대로하여보는主義이다。다시말하면 NRA는아주 試驗管속에잇는 結果에잇서 未知數 그대로의 未成品으로 將來歸結如何를 말할수업는 形便에잇다。그런까닭으로 一部에서는 NRA의 成功을 諷歌하고 他部에서는 NRA의弔鐘을 노피친다。或者는 A政策을主張하고 他者는 B政策을力說한다。그러면 過去一年半동안의 NRA의行跡은 어떠하엿스며 인제로부터의 NRA의行路는 어떠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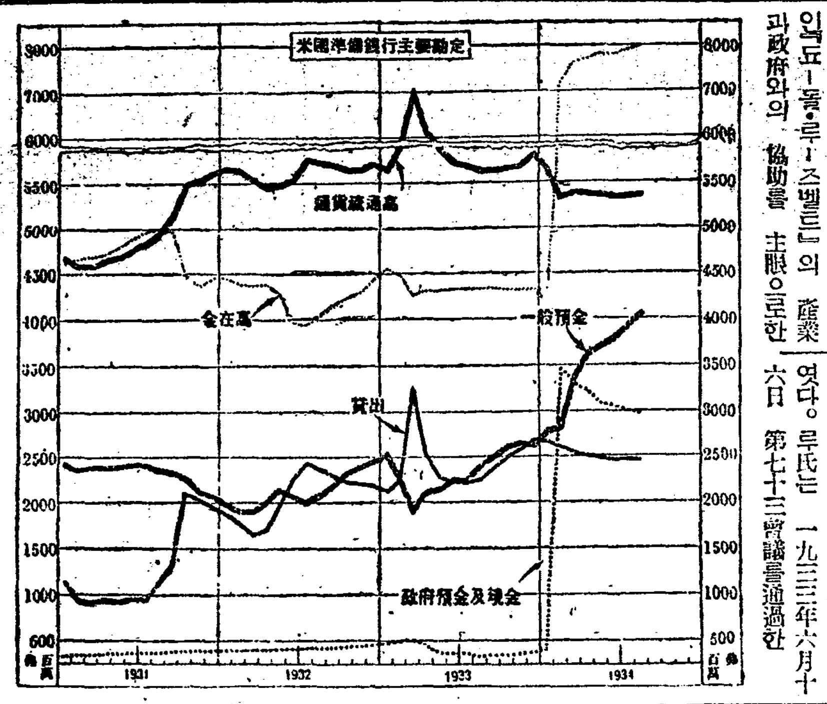
루-즈벨트大統領

루氏의英斷과 『뉴딜』의意義

恐慌旋風中에 就任한 루-즈벨트大統領은 就任直時부터 歷代大統領中 차저볼수업는 非凡한英斷으로 緊急銀行法을 爲始하야 無數한 重要法令을 制定하엿고 金本位停止、金買上、平價切下、銀國有等에依한 온갓手段으로의 인플레政策을 實施强化하는以外에 NRA(産業復興策)AAA(農村救濟策)PWA(共公事業策)等 尨大한政策을 繼續公布 實施하엿다。以上重要法令及政策이 一般的으로 從來에 그類例를 보지못한 革新的意義가잇다는意味에서 此를 總括하야 New Deal(新政策)이라고 부른다。그러나 루-즈벨트의

新規政策을 讚揚하는사람들은 『뉴딜』이라는말에特別한意味를부처 그의政策을 理想化하려한다。卽 New Deal 은 近代米國大統領中에 가장 傑出인 테오돌・루-즈벨트의 産業과政府와의 協助를 主眼으로한 Square Deal(公正政策)과 우드로-윌손의 政府權力發動에 依한 企業弊害制限論을 主潮로한 New Freedom(新自由政策)을 總括한것이라한다。그러나 루-즈벨트自身은 『뉴딜』이란 『國民經濟에對한 政府의任務及責任에關한 新概念이다』라고 말하엿고 『뿌렌인・츠러스트』의 한사람인버얼氏는現代社會의 大支配力인 金融、工業、農業、交通等諸方面의

大同協力을 政府의認容、監督下에두고 此를助長使役하려는 方策이다」라고말하엿다。



國民産業

復興法을義務的으로 … 如斯한 變革的意義를가진 新經濟政策體系는 此에直接關聯된 側面的意義로 觀察한다면 或은 財政、通貨政策이되며 或은農業政策이되며 或은社會政策이되며 或은 商工政策이된다。그런데NRA는『뉴딜』의 根幹政策이되여잇는關係上 『뉴딜』의代用語로使用되는境遇가 적지안음에 留意할必要가잇다

可함에際하야 『從業使人에 生活賃金以下의支拂을하지안코는 하여나갈수업는企業은 이땅에存續할 權利가업다』고 宣言하엿다。루-즈벨트政策卽『뉴딜』의內容을 大別하야말한다면(其一)은 全産業을通한 인플레政策이오(其二)는 直接的 物價引上政策이라할수잇다。

全産業을通한 인플레政策으로서 루大統領이 斷行한 그主要한者로 (一)緊急農業救濟法及通貨增發法에依한 聯邦土地銀行의 二十億弗 社債發行許可及 聯邦

尨大한『풀랜』과 NRA의陣容

『萬若 世上에무서운것이잇다면 그것은 우리自身에게잇는 恐怖心이다』『빅손(洞察力・先見)이업는國民은 滅亡한다』라고 웨치며出馬한 루-즈벨트大統領은 單純히 觀念의皷吹에 끗치지안코恐慌에呻吟하는 悲鳴中의 國民을救濟하기爲하야 그는곳 實際救濟에着手하엿다。그리하야 그가 머지着手한、그리고 가장重要한 恐慌克服工作이 所謂NIRA(國民産業復興法)의 公布이엿다。루氏는 一九三三年六月十六日 第七十三會議를通過한

準備銀行의 三十億弗 公債買入 (二) 聯邦緊急救濟法에 依하야 復興金融會社에對한 五億弗限度의 公債發行許可 (三) 住宅所有者 融資法에依한 二十億弗까지의 住宅所有者 融資會社 社債發行 (四) 産業復興法에依한 三十三億弗의公共事業費로의 公債發行等等을 列擧할수잇는데 以上만을 合算하드래도 그總額이百八億의 巨額에達하거니와 여게다시『뉴딜』에關한

諸般資金을計算하면

그總額이 百五十一億弗을 突破한다。이것으로 보아 루-즈벨트氏의 인플레 政策이 얼마나 宏壯한가를 알수잇는것이다。

다음 直接的物價引上策에잇서서의 가장重要한者는 (一)金買上政策 (二)平價切下 (三)銀政策等을 指摘할수잇다。

루氏는 就任直後에 金買上令을發布하야 國內國外의 金價를 騰貴식혓고 昨年正月末에는 四割一分의 平價切下를斷行하야物價引上을 直接的으로꾀하엿슬뿐아니라 銀價引上을爲하야、國內銀買上法을 發布하는 한便 倫敦會議를 通하야 銀에關한 國際協定까지하엿슴에不拘하고 去八月九日에는 다시 銀國有令을發布하야昨今 海外(特히中國)에까지 銀騷動이惹起하엿다。

金融財政政策의理論과實際

公平히보아서 NRA의實施以來 아메리카에 어느程度의 經濟的活況이 齎來된事實을 否定할수는업다。聯邦準備局 景氣指數에依하면 工業生産에잇서 再昨年三月의 五九로부터 昨年三月에는 八四(一九二三—二五年基準)에 增大하엿고 同期間內에 雇傭契約에잇서서는 一四로부터 三五에、就業者指數에잇서서는 五七로부터 七七에、支拂賃金에잇서서는 三七로부터 六三에 百貨店賣上高에잇서서는 五七로부터 七六에 增進되엿다。그리고 一九三〇年以來 減滯的趨勢를표示하던 外國貿易도 一九三三年에드러서서는 騰勢를示하야 金本位停止 平價切下의 影響을如實히 表示하엿다。

그러나 以上活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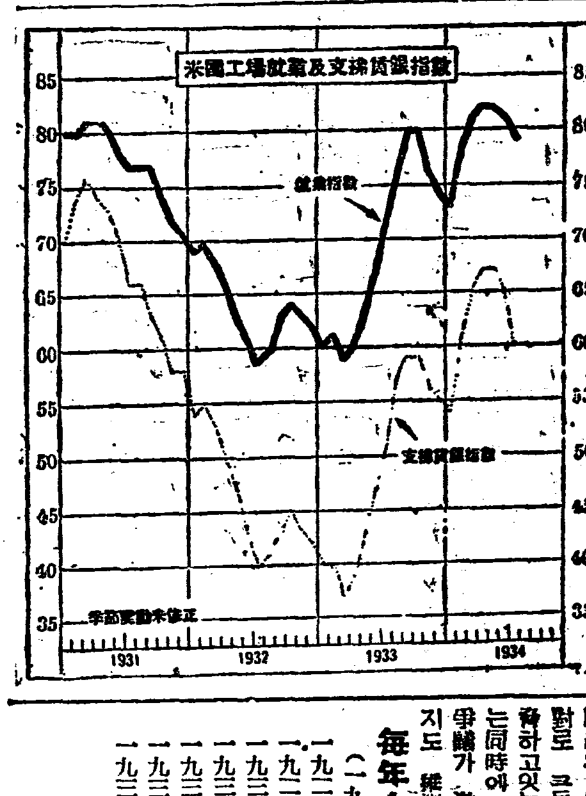
政府當局者와 發言

者의 言明한數字에達하기는 아직도 그距里가 遼遠할뿐아니라 再昨年七月乃至十月을 絶頂으로 漸次 停滯、下降的傾向을 보이게始作하야 社會的不安은 다시 增加하게되엿다。

우에서 루-즈벨트政府의 尨大한인플레政策을 略述하엿지마는實際에잇서서는 通貨膨脹이 그대로되지못하엿다。이事實을如實히表示하기爲하야는政府의豫算과實際、銀行의貸金及預金狀態、其他關係를具體的으로 檢討할必要가잇스나 制限잇는紙面에 到底히할수업는일이므로、單히 이關係를 抽象的으로 要約한 結論을 紹介한다면『政府發行의 赤字公債는 聯邦準備銀行의 引受에依하야 購買力으로서 政府手中에드러가 이것이 다시 公共及救濟費로 나오자 資金은 市場에서 곳 預金으로서 銀行勘定에 集注되며、銀行은集注된預金資金

運用方法으로

聯銀所有의 公債를買入하야 國債에 投資함으로 政府公債 發行高는 增加하나 聯銀公債所有高는 比較的 增加되지 안코 加盟銀行의 國債投資額을 增加하게 되다。말아서 流通貨幣와는 關係업시 公債와 預金은 窓然히도려가게되다』이러한 現象 卽 政府資金이 곳 預金增加로化한다는 事實은 이資金이 事業擴張發展에 投資되지안는것을 말하는同時에 銀行은 從來의 쓰아린經驗에依하야 事業貸付를 極度로 警戒하는反面 一般人心은 아직도 景氣回復에對한 信賴가 薄弱하다는것을 雄辯하는것이다。



物價의騰貴와 勞働者의苦悶

NRA의目標는 資本家에게利潤을내게하고、勞働時間을短縮하야 失業者를就業케하며、賃金을引上하야 購買力을 增進하려는데잇다。이것이可能하다면 此上에 더 조흔일이어슬것이다。그러나 利害相反한 勞資雙方에 다가튼滿足을 줄수잇것다는것이 NRA出發의 妄想的理想이오 內在的缺陷이다。

NRA實施以來 過去一年有半에 上述한바와가티 그初期에잇서서는 勞働賃金도 引上되고、就業率도 增加되고、物價도 騰貴되고、購買力도 增進되엿다。그러나 이現象은 昨年에드러와 停滯、降下的狀態를 示할뿐아니라

勞働賃金

가튼것은 皮相的으로본다면 繼續騰貴한듯이 보이나 實質的으로는 도로혀 反落되고잇다。다시말하면 過去三四年間의勞働賃金을 時間的으로본다면 確實히 騰勢를 示하고잇스나 週所得은 此에 同伴치못하엿스니 다음數字에依하야 그事情이 明瞭되어질것이다。

工場勞賃者所得

	週所得	時間所得
三一年七月	二二·三四弗	五六·四仙
三二年七月	一六·四三	四八·九
三三年七月	一九·三四	四三·六
三四年一月	一八·八九	五五·一
三四年四月	二一·〇四	五七·九
三四年七月	一九·九二	五八·七

以上數字에依하야 勞働者의實質的收入이 增加되지못한것을알수잇거니와 이것을다시

物價引上

에依한 生活費騰貴의 事實에關聯식혀본다면 NRA의 인플레政策이 勞働階級의 生活向上은姑捨하고 反對로 그들의生活을 얼마나 威脅하고잇는가를 容易히 알수잇는同時에 最近아메리카에 勞働爭議가 激甚한原因이 어데잇는지도 推測할수잇슬것이다

每年十月生活費指數

(一九二三年平均=一〇〇)

一九二八年	一〇一、二
一九二九年	一〇〇、八
一九三〇年	九六、四
一九三一年	八五、六
一九三二年	七六、六
一九三三年	七七、九
一九三四年	八一、〇

(繼續)

인플레!

日本經濟前途

惡性化? 데플레? (二)

申泰翊

赤字景氣

亦是 다음에는 인플레景氣에對할 支柱의하나인 財政膨脹의異狀이다 卽 첫재로 目一千九百卅五、六年의 危機를 目前에앞두고잇슴으로 財政이 膨脹을 繼續하야 增發할에 이赤字公債를 繼續하야 增發할에잇서서는 무엇보다도 一般民間의 公債消化力을 생각지안흘수업다 그러나 이미國內의公債消化力은 飽和點에 일흔傾向이 잇다 그럼으로 繼續하야 尨大한赤字公債의發行이어렵게 되지안흘는가 하는생각을 갓게된다 그럿다고하면 이런機會에健全財政으로도라가는 增稅斷行을 하는것이어떠할가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이미藤井前藏相의손으로 決定되엿特別利得稅의 經驗에依하야 오늘에잇서서 日本經濟의 實情이그以上의 增稅를 容易히 實現케할可能性이 잇서보히지안는다

今後動向

以上으로써 오늘의日本인플레經濟에對한前途는相當히 不安定性을 띄이고잇슴을 足히 엿볼수잇다 그러면結局인플레景氣는 어듸로갈것인가하는點이 나오게되다 이에對하야樂觀을 하는사람들의보는바를 드르면 다음과갓다

日本輸出貿易에잇서 生絲를除이고는 그外의主要輸出品은大部分이 原料를 輸入하여가지고 이것을加工하야 製品으로한뒤 다시 海外로 輸出한다 그러나 일즉이 獨逸에서 惡性인플레가생겻든原因은 그輸入品中에는 國內에서消費할食料品이 重要品으로 되엿든때문에 馬克의慘落을 보게되고 말어서 惡性인플레가 나타낫든것이다 그러나 日本의輸入品中에는 以上과가티食料品이 重要한地位에잇지안흔만큼 惡性인플레出現을緩和케할수잇다 그러고 惡性인플레를 中心으로하는換物運動 卽三個年間蓄積解放으로因한景氣上昇을 보게된다고하드래도 이에對하야는 國家經濟의統制力으로 누를수가잇다이것은最近景氣動向에對하야、國家의統制力이 直接影響을微細한程度까지 일흐고잇는때문이다

(一) 이미再禁止를前提로 海外市場으로부터의影響을 爲替市場에對한 統制力確保에依하야 阻止한는點

(二) 國內로는 赤字公債發行과 日銀오픈마켓・오페레이슌을通하야 景氣動向을支配할수잇는條件이잇다

그러나 오늘의日本인플레景氣가 顯著히 異狀을 呈하고잇는것이 그實情임으로 今後動向에對하야 樂觀的觀測을갓기가 어려운것만은 事實이다 그런대앞흐로 惡性인플레를 避하려고하면 [illegible]이에잇서는軍縮會議의進行이 어떠케될지모르며 또는目下開催中에잇는議會의空氣가 果然政變을보게할는지難測인마큼 이結果 如何에依하야 左右될바가만흘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잇서 大體의情勢를 살핀다면 大勢上으로는 容易히 樂觀을 가질만한根據가 薄弱치안흔가생각한다 目前에잇서서는 赤字公債를 우선 고도는 銀行預金의 形式에依한 人爲的 操作이 容易히 樂觀을 가질만한 根據를 주지안는 것이다 惡性인플레景氣의 前途는 今年日本인플레經濟의 一層의波瀾曲折이 아닐가 하며 말허서 지난三個年間 繼續되여온 인플레景氣에對한 警鐘을치게되지나안흘가 하는바이다(終)

뿔락經濟의動向

自由貿易主義解體와 國民主義의强化 (下)

金洸鎭

勿論現在와가티國際間의危機가 不斷히增大하고잇는狀態에잇서서는 一朝戰時를考慮하야뿔럭內의自給自足經濟의達成은平時부터準備하여둘必要가잇슬것이다。그러치만그때문에平時에도自國의商品과資本의活動을自國의뿔럭圈內에만멈추어둘必要는조곰도업슬뿐더러 더욱 만흔利潤을어들수 잇는곳이면 뿔럭圈의內外를勿論하고流出할것이다。

그럼으로現在의뿔럭經濟가 如何히促進할지라도적어도平時에잇서서는 完全한

自給自足

經濟는不可能한것이다。그럼으로 뿔럭經濟의自給自足的性質은 다음과가티解釋할수잇다。卽그것은 뿔럭의盟主가되는 强大資本主義가 뿔럭內에서 他國의勢力을排除하야 될수잇는대로 自國의商品과資本으로서充實할라는點에 잇서서만自給自足的性質을가지고 잇는것이고 한편으로는外國市場에對하야는 不斷히勢力을擴張할라고함은 從來와조곰도 다름이업다。換言하면 뿔럭經濟의運動은 獨占資本主義의 排他的政策과膨脹的政策을一層露骨的이 一層强力하게實施하는데 지나지못한다。이와가틈으로 뿔럭經濟는 그內部的統制의如何를 勿論하고 各資本主義國間의 對立을 一層激化케할것은分明하다

이와가티 資本主義列强을中心으로한 뿔럭主義의發展은世界經濟를解體分裂케하야 諸國間에和睦키어려운 政治的對立과經濟鬪爭을 이르키게하는同時에資本主義的 貿易政策은鬪爭의武器로서 새로운 分野를創造케하엿다。最近의國際貿易政策의새로운傾向은 單只關稅引上이라는舊手段으로는 滿足하지아니하고더욱直接的인 여러가지 貿易制限政策이 斷行되엿다。卽 各種商品에對하야輸入許可主義、輸入割當制度・輸入禁止及制限、輸入國家管理等여러가지 새로운貿易政策이 廣汎한規模로適用되엿다。그러고 一九三一年의英國을비롯한 世界金融恐慌은 各國의金本位의離脫、爲替의崩落을激成케하야 爲替戰은日熱化하야 各國의貿易戰을 一層刺戟하엿다。그結果 外國爲替管理制度가 輸入의抑制策으로 各國이採用하고 또그와關聯하야 物物交換으로 二國間의輸出入을平均이라는 所謂『바-타-・씨스템』이採用되엿다。

이와가티 여러가지貿易政策은 世界市場을 狹隘케하엿슬뿐아니라 世界經濟를 解體케함으로써 國際的分業背反의 過程을促進하야 自由主義的인 인터-나쇼나리즘은 退化하고、國際政治는더욱緊張의度를 加하게되엿다。이와가튼 世界經濟의情態를 表徵하는一例로서 世界의軍備支出과武器貿易의 狀況을도라보면、먼저軍備支出과 世界生産의 發展은다음과갓다。

軍備와世界生産

	軍備支出	世界生産
一九一三年	六四	五四
一九二五年	九〇	九七
一九二八年	一〇〇	一〇〇
一九二九年	一〇四	一〇四
一九三〇年	一〇七	八六
一九三一年	一〇四	六九
一九三二年	一〇七	五六

【備考】 一九二八年基準의指數

世界生産價額은、最近의最高點인 一九二九年으로부터 恐慌이가장尖銳化한 一九三二年에이르기까지에半分以上을 減少하엿는데、一九二九年以後의 軍事費는七%를增加하엿다。世界生産에比較하면

軍備支出

의 增加는 一九二九年以來거의 倍加하엿다고 볼수잇다。이와가티 軍備支出의增大는 國際政局의現特徵을表現하는 가장有力한現象이다。

그리고 世界의武器貿易의輸出은 一般商品貿易의 衰縮傾向과 反對로 一九三二年부터는 次第와가티增大하엿다。

	世界輸出貿易	火藥彈藥輸出
一九二八年	一〇〇	一〇〇
一九二九年	一〇三	一〇九
一九三〇年	八二	九四
一九三一年	五九	五九
一九三二年	四〇	六四
一九三三年	三六	七五

以上의數字는 반듯이 的確한것이라고할수업다 왜그런고하면 武器의貿易은 大部分이密貿易임으로 以上의 公表한數字는 그最少限度傾向을 表示한데 不過한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을보아도 世界輸出貿易의 一般的減退에比하야 武器輸出만은 顯著한 增加를뵈이고잇고 重要한武器輸出國을 個別的으로 보아도 佛蘭西는 一九三一年以來 武器輸出은 거의 四倍를 增加하고 체-코스로바키아는 一九三一年과三三年까지에 二倍를增加하엿다。

兵器輸出의 盛況 軍備支出의 增大、이것은國民主義의膨脹 따라서軍備競爭의一端을말하고잇는것이고、世界經濟가 또다시 砲火의洗禮를바드는危機가갓가워간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終)

恭賀新春

慶州

慶州釀造株式會社

慶州八幡町 慶州合同印刷所 電話六三番 印刷鮮明 迅速叮嚀 販價低廉은本所의特色

慶州本町通 酒類販賣 石川商店 電話三三番

慶州土曜會

慶州穀物商組合

金丈酒造場 金正奎

入室釀造場

慶州邑長 井上茂

見谷面職員一同

安康金融組合 金森述

慶州郡山內面 義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慶州 金在典

慶北慶州驛前 穀物肥料食鹽紙物貿易商 重成商會 電話一〇五番

古蹟遊覽 岡本自動車部

內東面 酒造場 黃[illegible]祚

內南酒造場 孫秉權

金剛園 主洪[illegible]九

慶州山內面長

慶州本町 松嘉商店 孫永卓

慶州大市場通 和洋雜貨洋品文具商 文化商店 主崔錫[illegible]

江東面長 李源英

田中敏信

江西面長 鄭鎭俊

大東醫院 崔宇俊

內南面德泉里 [illegible]東俊

乾川 吉原義郞

慶州 乾川酒造場

乾川 完成粧籠商店 主朴鎭斗

綢緞布木商 金元錫商店

良洞 李錫海

慶州 鷄林食道園 主李叔子

安康 裵中欠禮

慶州 安東旅館

良洞 無何子

月城紙物商會

漢藥醫生與海醫院 金世奎

龜浦

京釜線龜浦驛前 大泉酒造合資會社

龜浦穀物商組合

龜浦同島 植田義夫

京釜線龜浦驛前 薛慶海

龜浦同島 金永國

京釜線龜浦驛前 株式會社慶尙合同銀行龜浦支局

京釜線龜浦驛前 金宗斗

京釜線龜浦 龜浦金融組合

金海郡大渚面沙德里 金演台

東萊郡沙上面 沙上面職員一同

京釜線龜浦驛前 孫致浩

京釜線龜浦驛前 趙來炳

龜浦同島 高德鳳

京釜線龜浦驛前 龜浦面職員一同

京釜線龜浦驛前 張鎭逵

金川

金川郡廳

市邊里 德濟醫院 趙漢英

金川郡外柳面文修里 柳基承

金川邑 金川自動車商會 金川市邊里間三回往復 金川溫井院間二回往復

金川邑 米國紐育스탠다-드石油會社特約店 共益社代理店 穀物貿易 金雲鶴

金川郡 西泉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警察署員一同

金川트랙운송合資會社 韓錫東

金川郡 山外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郡 外柳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郡西北面邊洞里漁火洞 金川金鑛事務所

金川郡助浦市 東光商會

金川郡 西北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邑 朴利淳

金川郡外柳面文修里 協同組合

金川邑 共濟醫院 金[illegible]

市邊里 金聲五

金川邑 綢緞布木商 表大基

金川郡西北面 助浦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金川郡 金川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郡 古東面事務所職員一同

金川郡助浦市 劉元七

金川郡助浦市 禹相根

金川邑 近藤豊

金川郡口耳面德安里 孫[illegible]周

鷄井 日井高新藏

金川郡德安公立普通學校 朱炳乾

金川郡西北面長承里 李東春

朝鮮小作問題와 農地令의實施 (二)

朴用來

다음에 最近의小作爭議를보기로하자 (朝鮮日報七月十九日附夕刊同二十日附新刊參照) 總督府農林局調査에依하면

▲最近五年間小作爭議件數

	昭和四年	同五年	同六年	同七年	同八年
京畿	一八	六五	五四	二四	一一七
忠北	二五	一七	三五	二	六六
忠南	一〇〇	三二	一〇〇	六〇	一六六
全北	二八	六四	六四	七〇	五九八
全南	四四	一四八	一四〇	三六	六六五
慶北	五	八六	三五	六	七七
慶南	一八五	一九九	二七	三三	二二三
黃海	四	一三	一〇	一四	四一
平南	一	二	一	一	一三
平北	六	三	一	一	三
江原	二	四	一	六	四
咸南	—	—	—	—	一
咸北	—	—	—	—	一
計	四三三	七二六	六六七	三〇〇	一九七五

로 小作爭議는 大體로遂年增加傾向에잇스며 昭和八年中은一千九百七十五件의 破記錄的數字를示하야 前年의三百件에比하면一千六百七十五件의激增이다 이를地方別로보면 全南의六百六十五件을 筆頭로 全北五百九十八件 慶南二百二十三件 忠南一百六十六件 京畿一百十七件 慶北七十七件 忠北六十六件 黃海四十一件 平南十三件 江原四件 平北三件 咸南北 모다 一件의順序로 在來에爭議가업든咸鏡南北道에까지發生하게된것은注目된다 昭和八年度에드러서爭議가如斯히激發하게된것은勿論小作農經濟窮乏의深刻化를意味한것이나 一面에잇서서는이때까지地主의權力에威壓되여抗爭의機會를어지못하고잇슨小作人들이同年二月一日부터 小作調停令이實施되자 물에빠진사람이 집검불이라도붓들려는셈으로 不平을이法令에 呼訴하게되든것과 地主側에서이러한小作人의 利益主張을叛防하려고 自己의意思에順從치안는 小作人에게서 小作地를奪還하는等으로 爭議는一躍激增하게되든것이다

그리고爭議關係人員은 昭和八年中一萬三百三十七名으로 前年의三千六百八十七名에 比하야이 또한 六千六百五十名이 激增하얏다

이제上記昭和八年中 小作爭議의發生原因을보면 地主의 土地返還要求그他 小作權關係에 依한것一千四百八十件으로 總件數의七割四分九厘를 占領하고 風水旱災그他凶作으로 小作料의一時的減免에依한것이 一百六十六件 小作料滯納에依한것이 八十六件 小作料高率에依한것이七十件 小作料를올린때문에 생긴것이五十四件이다』여기서 우리가看取할수잇는것은 地主의攻勢이다 小作權에關한것이 壓倒的多數이니만치 爭議의性質은切實味가잇스며 小作料問題로부터 그本質인土地問題로轉換하게되엿다

爭議의結果는엇더한가『要求全部를貫徹한것이七百五十件 一部貫徹한것이六百八十一件 要求撤回三百四十一件 自然消滅이百五十四件 未解決四十九件으로』小作人의主張이 相當히貫徹되엇다할것이며 小作農生活改善의方向을말하야준다

『解決件數의 內容은 調停者에依하야解決된것이 一千四百三十一件 當事者間의協議로解決된것이二百九十六件 訴訟判決에 依한 것이八件으로』小作調停令의積極的發動을보며 이로말미아마小作人의 團體的對立抗爭은줄고 小作人個人個人對地主의爭議가늘어』自然分散的으로되엇다 이小作爭議의分散的傾向은小作人個個人에對한地主의農土返還要求가增加함을따라助長된것이며 爭議時期에잇서서도四月中이 가장만허五百七十三件 三月은二百十九件 五月中은九十六件 六月은二百十五件 十一月은百六十五件 十月은九十七件으로 爭議의大部分은 겨울들어서봄까지에가장 만히생겻슴"는데 이를爭議發生原因中土地返還要求가大部分을 占하고잇는것과符合시켜볼때 理의當然한歸結로 秋收後春耕이始作되기까지의即民法第六百十七條『收穫季節이잇는土地의 賃貸借에對하야서는 其季節後다음耕作에着手하기前에解約의 申入을함을要한다』이라는規定에該當한 期間에 잇서서 地主의小作地返還要求가 原因이되어爭議가 만히發生한것일것이다

農地令實施前後

如斯히急迫하야오는農村情勢는 마층내 그緩和策으로小作立法을考究치안으면안되게하얏스니 昭和九年四月十一日制令第五號로朝鮮農地令이 公布되엇고 뒤니어 同九月十三日總督府府令으로 朝鮮農地令施行規則과 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規程이 公布되여 農地令은 十月二十日부터 實施케되엇다 이法令은本來農業政策의『基礎』라稱할뿐더러 日本內地의小作法制定에압서 制定實施되는이만치 各方面의期待와 注目을끄을어왓스나 그內容의貧弱은도리혀失望을주게하얏다 同令이制定되기까지의 迂餘曲折과內容如何에對하야서는 여긔에詳論치안커니와 單只小作立法으로서 重要한 不備點몃가지를 들어보면 一、小作權物權化의規定이 薄弱한것 一、小作期間이짧은것 一、小作料比率의規定이업는것 一、小作料運搬距離또는 運搬費徵收에對한制限의規定이업는것 一、公租公課小作人轉嫁防止에 關한規定이업는것 一、作離料의規定이업는것 一、府郡島小作委員會에 判定을求하는데當事者의合意로써하게한것 一、小作委員會의構成이官僚的인것 一、積極的規定이 잇서야할事項까지도官憲의裁量에 맛긴것等 幾多의缺陷이잇다

그러면 이法令이小作關係에 밋치는바影響은 엇더한가? 아직 農地令制定實施가 日淺함으로그 全貌를 把握할만한 材料를가지 못하얏스나 新聞紙上을 通하야 나타난短片的事實을들어 農地令實施前後의情勢를살펴보기로한다

農地令의實施를압두고 地主의 强權行使와 策動으로小作人은窮地에陷入케되엇스니『一、小作料의引上——農地令이 實施되면 함부로小作料를 올리지못하겟슴으로 地主側에서策動하야 小作料를올리며 또優秀한小作人들을競爭시키어가지고小作料를 올린다 一、二毛作의禁止——從來의小作은米作에對하야만 契約을하엿든것을 二毛作을할때에는 따로히 地主의承諾이 必要하다는것인데 이것은二毛作의 小作料까지地主가바드려고 二毛作의禁止를한다 一、小作料를못밧을까하야連帶保證契約制度가增加하엿다 一、小作契約의更新의激增——昨年六月末現在가 四千八百件이든것이 今年同期에는 七千五百件에達하며 一、委託耕作의弊害——舍音의小作地의爭奪이甚하게되엇다等(朝鮮日報八月二十五日附夕刊)으로因하야 小作爭議는今年에들어서 이미六月末現在에一千四十九件에達하야 僅僅六個月間에 前年一個年間의件數인一千九百七十五件을突破하얏다

그런中에 農地令은 去十月에드듸어實施를보게되엇다 地主는法網을避하야 또는法에違反하야依然橫暴를곳칠줄을모르고 小作人壓迫에汲汲하고잇다 例를들건대『最近 南朝鮮一帶에서 地主가從來 小作人에게 一部分을負擔시키든 地稅를 農地令實施後에는法令에依하야 地主가全額을負擔하게되엇슴으로 이것을小作人에게轉嫁시키기爲하야 小作料를暗暗裡에올리어 秋收期에徵收한것이만흔것을發見하엿다한다 即地主들은 地稅를負擔시키든그代價으로 그前보다小作料를多少間增收할好計로 아모理由도업시 小作權을解除한다는口頭 또는書面으로 一般小作人을威脅하는同時에一斗落에對하야 七八割을要求하는者도잇고 從來에는 斗量으로收賭하든것을 只今에 突然斤數(一斗에對하야十六斤)을强請하는者도잇고 또從來에는 一斗落에對하야 十斗式收賭하든것을 十三斗式을要求하는等의 無理橫暴한不正行動을敢行하는地主가 各處에跋扈하야 더욱水災로莫大한被害를입은 三南小作人에게는堪當할수업는 壓迫』(朝鮮日報十一月二十二日附夕刊)을하고잇다 또한가지의例를들면 安城郡內各農村에서는 地主와舍音이無謀히小作人을壓迫하야 問題를 이르킨다는데 그手段은『(一)從來定租이든것을 今年의 豊作을 奇貨로 半分倂作을 要求하는일(二)小作料를 地主나舍音의 住宅까지運搬시키고 다시 出浦買리는名目으로小作料를石에四、五十錢式밧는일(三)色租라는名目으로 打作마당에서 한번打作에벼한말式밧는일(四)小作料벼한섬에一百八十斤式地主에게 바치는데 舍音이 小作人에게서는二百二十斤式바더가지고 四十斤은舍音이中間取得하는일(五)地主나舍音이 小作人에게 賦役시키는일等이라는데 小作人이 아직農地令을理解하지못하는 關係로地主、舍音의無理한 要求를應하지안흐면 小作權을빼앗기겟다고念慮하야 어찌할수업시服從하엿다가 다시返還을要求하야 問題를일으키는等일로 各面所와郡廳에서는 이問題때문에 奔忙하다한다』그리고 마즈막으로 農地令의不備로생기는 또한가지의弊端은特히三南地方은水災의關係도잇서農地令實施以來小作人으로부터地主에게對한 小作料의減免申請이殺到한다는데 이와關聯하야小作料의 看坪을할때에 小作人이이에不服하고 小作委員會에判定을求하려면 農地令第二十四條에依하야當事者의合意로써 하여야만되게되어잇슴으로 地主가이를拒否하면小作委員會에 判定을求할수업서自然小作人은 地主에게盲從치안을수업게되어 災民의小作料減免要求도 얼마마한効果를나타내일는지疑問이다 이에따라減少되어야할小作爭議는 도리혀增加하야反對現象을 呈하고잇다

如斯한狀態는 救世主처럼생각되든農地令도 疲勞困憊한小作農을救出치못하는 不幸한結果를맷게나되지안흘는지? 農地令實施後날이기뻐갈수록 하나 둘式漸次로 그缺陷이나타나고 잇슴에鑑하야 總督府에서는 來秋收期前까지에 同令을改正하려고準備中이라하니 이번에나 小作人에게 鄭重한法令이 생겨나기를 期待하야둔다 (完)

鼎齋 崔愚錫 氏試筆

朝鮮産業의轉換期 (2)

朝鮮工業의新階段

月山生

(2) 消化의餘裕

둘재 朝鮮에는 消化力의 餘裕가 만타。現在 朝鮮은 需要工産物의 大部分을 日本內地 其他 外國에서 仰하고잇는바 이것을朝鮮에서 生産하면 그部分만치를 넉넉히 消化할수잇다。一例를 들면 朝鮮窒素에서 生産하는 硫酸암모니아는 昨年度에 三十萬噸을 生産하고, 本年度(昭和十年七月까지)에는 四十二、三萬噸을 生産하야 그親會社日本窒素와 完全히 日本의 硫酸界를 리드하고、또 亦是朝窒은 그硫安工場에서 年二萬噸의 硬化油를 生産하야 外國에서의輸入을 不必要로하게되엇다。또 永安工場에 七百萬圓을 投하야 年二十萬噸의 石炭을 消化하야 液體燃料、石油、揮發油、重油、파라핀、코크스를 만들며、永登浦에 日本、昭和兩麥酒工場이 생겨 年三萬四千餘石을 生産하야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入을 防止하게되것은 그一例다。

(3) 無盡藏의資源

셋재는 原料가 豊富한것이다。從來 朝鮮에는 石炭은 八千萬噸밧게 埋藏되지 안흔것으로 알앗섯는데 資源을調査한結果、十七億五千萬噸이 埋藏되어잇슴이 判明되얏고、朝鮮의水力을調査한結果 發電能力이 二百四十萬키로와트가 되는것을 알게되얏다。鐵은 良質의 것이적으나 茂山鐵은 四十%의 含有量을 가진것으로 年二百萬噸의鐵을 外國서 輸入하는 日本에對해서는 無上의寶庫요、金은 昨年 四千萬圓의 採掘이잇스므로 今後 精錬會社의設立을 볼수잇다。이밧게 非常時에不可缺한 金屬의 明礬石이 全南서産出하고 마네슘이 端川郡에 六億五千萬噸 埋藏되엇고 南棉北羊策은 原料의 豊富한것을말한다。

(4) 滿洲國의出現

넷재는 滿洲國의 出現이다。이때문에 日本內地보다 地理的으로 交通的으로 가까운 朝鮮에서 工業品을더速히 販賣할수잇는것은 明若觀火한 論理다。昨今 仁川에 東洋紡績工場이 三萬一千錘의設備를 가지고機台千三百台를設置한것이라든지、安養에 人絹工場이 생긴것이라든지 朝鮮絹物、大昌織物에 機台를增加한것이라든지 朝鮮紡織이 五割機台를 增加한것이라든지、木浦에人絹工場、釜山에製麻工場이 생긴것이라든지、모다 滿洲國의 出現때문이아닌가。淸津에大豆油工場、淸津에朝鮮油脂의 工場이 생기는것도 그때문이다。

五、必然한工業化過程

그러고보면 朝鮮도 工業이發展할 餘地가 만흔것은 確實하다하겟다。그러나 朝鮮의 工業이 主導的産業이 될가 하는點은 이것만으로 알수업다。그러나 그것은 時間上의 問題요、朝鮮도 先進資本主義國의 例에 따라 工業이 發展하야 今後얼마동안은 農業과 倂行하야 發展하고、그後는 다시 農業을凌駕할날이 잇슬것은想像키不難하다。그러므로 朝鮮은 漸次工業이始作하거니와 最近 特히 滿洲國의成立後 顯著한 轉換을 하지안는가 생각된다。이런點으로보아 나는 現在 朝鮮의産業은 轉換期에 잇다고고도하고 朝鮮의 工業은 新階段을 올라섯다한다。다못 問題는 누구의 資本 으로써 이 劃時期的 産業時代를 現出하느냐 하는것인바 이것도 多少 朝鮮에 關한 常識이잇는 사람은 日本內地의 金融資本家의 統制미테 强行되고잇다는것을 料得할것이다。(終)

今年財界는 警戒가緊要

有賀殖銀頭取談

昨年十二月 金輸出再禁止가 斷行되고以來 三個年間 日本經濟界의一面에는 相當히顯著한改善이 되엇슴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인제 이것을二三의計數로써 多少具體的으로 말하면 먼저證券界는 昭和六年十一月의全國有價證券時價總額二百十五億五千九百萬圓이엇든것이 昭和九年七月에는 三百七十億七千九百萬圓에達하고 同十一月에는 證券界에 一時的의反動이 顯著하엿슴을 不拘하고 그時價總額은 三百五十三億四千九百萬圓을示하고 物價는日銀의東京都賣物價指數에對하야보면 昭和六年十一月에 一四七이엇든것이 昭和十年十一月에는 一八一、一을 示하고 또一時몹시萎縮하엿든 工業生産高도 漸次增加하고 綿絲、人造絹糸、其他 重要工業生産指數는 昭和六年의月平均一〇〇、四를示하엿든것이 同八年의月平均은 一二四、一로되고 同九年八月에는 一三六、一로 나타내엿다 딸아서 諸會社의營業成績도 好轉한것이 不少하고 全國의一千二百五十의 重要會社의

營業成績 調査에 依하면 그平均利益率은 昭和六年上半六分一厘、同下半三分九厘이엇든것이 昭和八年上半八分四厘 同下半九分三厘 同九年上半九分八厘로 可驚의向上을出現하엿다 이런狀勢의繼續에伴하야 諸會社의新設擴張도亦是激增하고日本內地의諸會社

計畫資本 은昭和六年 五億二千一百萬圓이엇든것이 昭和七年에는 一次三億七千七百萬餘圓을激減하얏스나 同八年에는六億三千九百萬餘圓 同九年一月以後 十月까지의累計도이어八億六千萬圓을突破한實狀이다 이와가티日本經濟界의 一面이相當히改善케된것은 어떠한原因으로볼가하면 이것은主로

輸出貿易 의躍進과 軍需品의需要激增에基한 關係商工業의殷盛 金融의 緩和、金利의低下로因한것은 이미世間의周知한바이다 그래서經濟界의이런順調의狀態가今後도 持續되야財界는此等을素地로 漸次根本的으로恢復케될는지 안될는지는누구이나重大한關心을가지고잇는바이다 먼저 貿易부터檢討하면各國의

輸入制限 關稅를 버서나 日本生産品이 過去의産業合理化에基한原價의低下와 品質의優良 또 低爲替로생긴對外價格의低廉에依하야 現下顯著히進出하고잇는바 最近 國際通商戰은더욱激化의傾向이며 西班、南阿、中南米의諸國新市場에對하야도 將來큰期待를가질수업다는 意見도잇스나 滿洲其他新市場의開拓、舊市場에잇서도

相互安協 의 精神으로생기는 通商工作의强化와 良質低廉의强味로써市場의 維持에힘쓰면 이곳에貿易進展의길이열릴것으로 그將來는반다시悲觀할것이아니다 다음에 新聞에發表된昭和十年度의陸海軍事業豫算은十億二千百四十萬餘圓으로 前年度에比하면 八千三百七十萬餘圓의增加로서

軍輪工業 이 依然 相當히活況을呈할것은想像할수잇는바이다 또昭和九年度 公債未募債額 約四億圓과 十年度의公債를 가령八億圓으로하드래도 今後一年有餘의期間에約十二億圓以上의公債가 日銀引受로 發行될것임으로 物價의騰貴 其他로資金의需要가 안생기면 가령日銀의『마켓오페레이슌』이생겨 一時的으로

金融實勢 에 緩急이잇슬지라도 그基調가 緩慢을呈할것은豫測키어렵지안흔바이다 四圍의狀勢가 前述과갓다고하면 經濟界의一面은 今後라도大體順調의推移를呈할것은 한번肯定할수잇는바이다 그러나누구나 이런情況이 不安이업시 어느때까지 繼續할수잇는것으로생각치못한다 昭和七年以後 最近까지의日銀引受인赤字公債十七億六千萬圓은거의全部가 民間의需要에應하야消化되고 日銀의『마켓、오페레이슌』은大成功으로

通貨膨脹 도何等顯著한것이업고 爲替市勢도大體 安定하야 一部의念慮와가튼 何等通貨上不安의兆가업고 今後도어느時期까지는 그工作이 可能할것이나 漸次 赤字財政을克服하야財政上一轉換을要할것은 勿論이다 또視角을轉하야 地方農村을 보면 昭和七年以來 各種의匡救對策이實行되엇슴을 不拘하고 아즉도莫大한負債의重壓이잇고 오랫동안米價低 繭價低이엇고 特히今年은稀有의風水害

低氣溫等 으로大凶作에遭逢한地方도不少하야 萎微한農村의救濟及振興은 目下의重大問題이며 또以上과가티事業界와 이에關聯한一面에는 相當히改善된傾向이顯著하엿스나 一般購買力이아즉不振함보다도 大衆이밧는恩澤이比較的甚大치안흔것과가티 생각된다 그럼으로今後 都市의一角에서 이러난

事業景氣 가地方에波及하야 跛行的의것으로부터 普遍的의것으로 될는지는容易치안코 또內外情勢의 動向을생각하면 財政은 漸次變態에서 常道로再轉함에는 그前途에 多大한困難이 橫在하다 어떠튼지 日本經濟界의前途는

多事多端 하야 擧國一致的勇氣로서局面의 打開에 勇往邁進치안흘수업다 朝鮮의 經濟는 善惡이 모두그大勢에잇서 日本內地에追隨하는바또 朝鮮自體의 特殊事情에依하야그 隆替를 招致할境遇도 元來부터多하다 近者朝鮮에잇는 各種의資源과 日本內地、滿洲間에 介在한地理上의 優越性에着目하야 工、鑛業方面에 日本內地有力財閥 또는事業家의 進出이漸次만케되다 今後 朝鮮의眞價는發揚될것임으로 朝鮮의特殊事情을活用함이 必要할바로생각한다

今年經濟 好況疑問

東銀頭取閔大植氏談

今年에는 漸次好轉되는趨勢에繼續하야 事業界가相當히活氣를呈할모양이며 滿洲國의新規事業은着着勃興의機運을促할것이다 朝鮮에잇서서는 主로昨年의不作과在米不足으로 米價가向高의餘地가나고 딸어서諸物價가 一齊히高調의豫想으로 金融이相當히緊忙을呈하야 好景氣의回復을傳한다 그런대인플레政策은 어느때까지繼續할는지 多少疑問으로 國際貿易의順調가 容易치안흔現狀임으로 財界의惡材料가 어느때생길는지모름으로써 金融의調達은財界의大勢에應하야 適宜히할것은勿論이나 好景氣를豫想하고積極的으로함은注意할바이아닌가한다

惡性인플레 念慮不無

商銀頭取朴榮喆氏談

朝鮮에 農村方面을 비롯하야一般에相當히 明朗、好轉의機運을 呈하고 南朝鮮方面에는 稀有의 水害이엇스나 米穀收穫高는大體 平年作으로 米價의昂騰은農家經濟를潤澤케함이 不少하엿다 自力更生運動、副業奬勵의成果도漸次表面化하고 딸아서 地價의昂騰을招致하엿스며 鑛業界도産金熱의旺盛、新礦開發等으로 鑛業朝鮮이 可觀이엇다 工業界도 漸次勃興의 機運으로 日本內地資本의流入도顯著히 促進되야 取引의伸展으로 昨年度貿易은前年에比하야 二割以上의 飛躍的增加이엇다 金融界도 年初以來 未曾有의緩慢狀態를 呈하고 金利도 顚期의低下이엇스나 後半으로부터 狀勢는變化하야 騰勢이엇든預金도漸減傾向으로 變化하엿슬뿐아니라 米價高로因하야 日本內地移出은殺到하야 米資는 依然히 緊縮하야 金融은相當히繁忙하야 朝銀發行高도 二億圓에 接近하라는狀勢로써 過熱을 伴하엿는데 이季節的現象으로 金融基調에는그대지變化업고 全體上으로보아 朝鮮의 財界는더욱 進展整備될것이다 더구나 滿洲國發展과同時에 朝鮮의重要性이더욱 認識되는것이다 金融界는 恒常緩慢、低金利의狀勢를 持續하고 다만昨年八月頃一時幾應的으로 短期資金의硬化를 示하야 殷盛에잇든 社債發行、新株式公開 拂込等도 一時停頓의 狀態로되엇든데 그뒤漸次緩慢케되야 金融基調에는 何等變化가업섯다 赤字公債發行은 當分間從來와 大差가업는 金額을 必要로하고 그圓滑한消化는 公債政策遂行上 重要한問題로 一步를 잘못하면 惡性인플레를 招致할念慮가업다고 하기어렵다 그럼으로 今後는 自重할바이라고 생각한다

長興

長興面事務所職員一同
安良面事務所職員一同
南面事務所職員一同
冠山面事務所職員一同
大德面事務所職員一同
長平面事務所職員一同
夫山面事務所職員一同
長東面事務所職員一同
有治面事務所職員一同

長興面平化里 高東錫

長興郡公立學校職員一同

全南長興邑內 三成麵子株式會社

全南長興邑內 長興産業組合

長興海苔漁業組合

長興水門浦 三城酒類製造株式會社 取締役 孫順基 金明植 宣炳良

全羅南道長興郡邑內 朝鮮農林株式會社長興出張所 主任 李載洵

長興邑內 喪中欠禮 金裕述

司法代書人 金富岩 金廷炫

長興邑內 司法代書人 周長鎬 金容鎬

冠山面玉堂里 白守寅

長興面月坪里 白玗寅

冠山面竹橋里 面協議員 曾田曉之助

長興面行院里 魏鍾善

長興邑內 喪中欠禮 金甲基

長興邑內 辯護士 加藤孝一

長興邑內 道會議員 金倖寶

南面揆亭里 李永文

長興東橋通 牛車製造、自動車修繕 具昌煥鐵工所

全南長興邑內 三成麵子製造株式會社職員一同

大德面新月里 酒造場 主 李亨白

全南長興邑 新文堂印刷所 主 安章錫 (電話六三番)

長興邑內 辯護士 李政相

長興南門外 面協議員 朴昌式

長興邑內 綢緞雜貨 湖南商會 金性一

長興邑內 印刷業 房平睦

長興郡南面三千浦 海陸物産委託販賣 崔文玉

長興面三山里 曺一煥

大德面眞木里 面協議員 李圭献

安良面堂村里 白柄寅

長興郡長平面 白廣善

大德面蓮池里 李處玉

長興郡冠山面市場 雜貨商 齋藤商店

冠山面玉堂里 面協議員 白金五

冠山面玉堂里 面協議員 崔聖完

冠山面三山酒造場 主 魏復良

長興郡長平面登村里 申尙均

南面三十浦 酒造場主 孫敬華

長興邑市場通 海産物商 朴士用

長興市場通 雜貨商 李永轍商店

長東面船亭里 張南錫

長興東橋通 酒造業 皆川醸造場 電話四七番

忠州

可城面龍溪里 龍興醸造場 金商鎬

東良面事務所 權泰東 崔勉壽 外職員一同

金加面漆亭里 秋敎胄

金加面荷潭里 金龍鳳

金加面沙岩里 金麟培

金加面砂岩里 金允成

忠原印刷所 崔翼煥

忠州邑大手町 同勝公

東良面早洞 鄭益鎔

東良面造洞 安商浩

東良面早洞 面協議會員 鄭完鎔

東良面早洞 吳夏根

東良面早洞 權泰東

東良面早洞 吳龍富

嚴政面新萬里 閔泳翰

忠州郡內倉市 錢龍起

可良面大田里 韓東洗

東良面早洞 李殷曉

東良面早洞 吳大燮

忠州郡東良面早洞 徐先學

東良醸造場

忠州郡東良面早洞 吳盛孫

忠州郡東良面早洞 代書業 金觀洙

ヘチマコロン
헤찌마코론
謹賀新年
今年은도야지해·勇進하는해
倍前의 指導와援助를힘입어 더욱더욱精
進의意氣를更新하야、堅實한去來下에共
存共榮의 一路로 努力邁進할覺悟이오니
아모조록變치마시고 愛護하여주심을懇切히
希望합니다。
「ヘチマ化粧料本舖
天野源七商店
東京市日本橋區横山町六番地
ヘチマクリーム
헤찌마크림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六

慶南水災跡踏査

本社特派員 李鍾模記

回顧於焉半年間 三南沃野大刼禍

六萬生靈瘡痕은綿綿不癒

新旦瑞輝도尚無色

작년여름 칠월에 경상(慶尙)충청(忠淸)전라(全羅)의삼남지방에 흐르고잇는 락동강(洛東江)금강(錦江) 영산강(榮山江)등 삼대장강의 류역을휩쓸은 대홍수의 참변은이제생각하여도 몸에소름이끼칠만하다 그대홍수는 오십년래에 처음보는 큰수재로이백여명의 귀중한생명을 빼앗고일만삼천여호의 가옥이류실혹은도괴되엇스며 오만이천삼백수십호의 가옥은침수가되엇고량전옥답이십삼만사천팔백사십오단보가매몰되어버렷스며 일백팔십삼만이천칠백삼십구단보가 물에잠겨버렷다

그로 말미암아 륙만여명의 만흔생명이 도탄에빠저헤여날바를 몰르게되엇섯다 다행히국내국외의 동족을사랑하는 동포들의열렬히끌어난정성으로 옷이며도이며량식으로 림시의응급구제는되엇스나 알몸에두손만남겨쥐고 탁수가씨처가버린빨간풍지에서서 노픈창공만처다보고한숨만 쉬게되엇다 철호조차바귀엇스니 눈보라치는 겨울은 닥치어 차듸찬 바람은 헐버신그들의 쇠약한 몸에사정업시 핍박하게되엇다 위정당국의 알선으로 머나먼만주벌판으로 집단이민(集團移民)도하고 서북지방의 농장흥은탄광으로 살길을 차저옴겨 보내기도하엿다 그리도저리도 가지못하게된 만흔사람들은 그냥그진저리가 나는 고로에서사방(砂防)흥은 토목(土木)공사에 종사케하야 연명을도모케하고잇다

그러나 타관으로 간이들은 처음에듯든 말과는 아주조건이 틀려서밥여낼수업다고도로 랄주하야 이곳저곳에서 류랑을한다는 소식이끄리를이어 도겨으고현지에남아잇는 사람들로부터는 일거리가 적어서호구일삭이 협해서먹고 살수업다는 소리가또한자조전해온다

이와가티 고향에 잇는사람이나고향을 떠난사람이나모다가살수업다고 소리를치고잇는것이 홍수에짓밟힌 륙만여명리재민들의 현실로목전에 겨고잇는 떠한 사정이다 이들의 그따한경경을 우리는 곳곳마다차저가서 실제로보고듯고 느끼엇다 그들은세상이다 기뿌게마지하는 이새해를어떠케마지하게되는가─

滄桑은飜覆됏스나 農跡업는密陽平野

작년 수재에경상남도 지방에서 수재를 가장마히당한곳은김해(金海)창원(昌原)함안(咸安)밀양(密陽)등지이다 작년여름망망한대해와가티산판나저 노코는평지라는때는모다가물천지로되어잇슬그당시 물가운데서만흔생명이순식간에오라가라한든그파경을보고이제그원망스러운 물결이 씻처나간이후반년만에다시 이재해지를 차저등게되엇것이다 기자가 이번거름에제일먼저기자의 발길이 다인곳은밀양울 첫지점으로정하야 북풍이살을어여낼듯이 쌀쌀히 부러대치는일은아츰이엇다 밀양역의두에 발을내려자마자 눈아페 전개되것은넓다란 밀양평야이엇다 사방으로회회를러보앗자 버들테기한개 보이지안코 사막가티넓엇는 벌판(無毛地)이다 이벌판에 두길 세길의 탁수가 집편한는것이다 그때그물우의로우리 신문사의 구조선은사나운 물결을헤치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락가락모협적 활동을 하엿든것이다

그당시 파경을 돌려생각하며이제 벌판에버들테기 한개도업는파경을 보매구태여 기이하게 보이지도안는다

남천강(南川江)맑은 물은 예나 이제나 다름업시 고요히동으로흐르고잇스며 그강기슭에 옷득히소사잇는령남명승영남루(嶺南樓)는 어느사이에 낡은때문든 형태를새단장으로 꽷꽷이차장을하야 면목이일신하여잇다 강산은 여구하건만은 사람의일은어찌하야 변화도 만흘고 밀양성안거리에 한거름드려서자마자 기자는등에 헌포대를 걸친 어린아이를업은 중년부녀한명이 남의집첨하며려서서 벌벌떨고잇는것을 발견하엿다 그부녀는 중의로로동하고겨우사오십점의협한 배치마하나도 가진것업서든 모양 입금을 바더가지고 사오식구흥은으로 누르포대기로써 아랫두리를 두르고잇섯다 등에업힌 어린아이는착구보채며 울고잇섯다

기자는 그한가지 가여운광경을 보고 무러볼것도업시 기한에떨고잇는 그모녀는정녕코 수재에몰려난갈경업는 재민인것을 추측할수잇섯다 그의남편은 그약처유자(弱妻幼子)를두고어데로일터를차저갓슬가 차저갓슬터가 여의하엿다면 굶주리고길거리에서 방황하는그처자에게 하로의 호구할량식갑이라도 부처보냇스련만흔

『오지 마라』坑에서온전보

한숨의勞役場

廢洞복판에새개천 砂防工事場

七十老翁부터十一歲少年까지 零細勞賃에孜孜勞役

밀양군에서도 수해가 가장심한곳은 락동강연안에잇는 하남면(下南面)과 초동면(初同面)일대이엇다 초동면에서는 삼십호에일백오십여명이 만주영구(營口)로 이사를갓고 하남면에서는 팔십여명의장정이 가족동반흥은 단신으로 함경북도탄광으로 뽑혀갓다 초동면반월리진촌(半月里津村)가튼곳은 락동강가에서도지대가 상당히 노픈곳이엇스며 작년이나 재작년가튼 그러한 큰물만 나지 안햇슬때에는 강가에 집편한 기름진 땅을갈아서풍족하다고는 할수엇섯지마는 그래도 가유만 거두게되면 배부르게 먹고 살는곳이엇다 그럿튼 그동리는 원래 사십여호가 진합하야 살는곳이엇는데 사람살든 동리가 그야말로 상전이벽해로 된다는 격으로 모진 물결에 씁러버려서 이제는 강바닥이 되여 물이흘르고잇고 겨우 오륙호가 떠러저나가다가 남아잇는옛터의 한모퉁이에 씁씁히 의지하고잇다 이것이야 말로홍수가지어낸 폐허(廢墟)이다 지형으로보아서는 압날의 자취라고는차저볼길 전연업고 다맛검은돌멩이와독그롯꺼여진 조각들이 점점이하구석에 나머잇서서 그저여기가사람살든곳이든가하는인상을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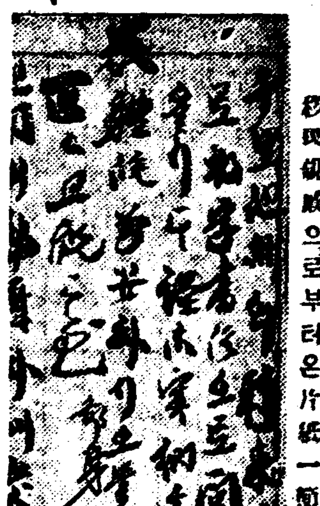
그이웃동리 대곡리 (大谷里)라는데를차저드니당하나벼하나도남은것업시 다허러저버리고 겨우기동과집웅만이 남아잇는집들이 여기저기눈아페띠인다그비참주인은 모다어데로갓는가하고무르니한경북도 계림탄광(鷄林炭鑛)으로 뽑혀갓다고한다

행혀나 살아갈수잇슬가하고 갱생의기대를가지고 탄광으로 뽑혀갓든사람들도 정작실지에가서 보니 처음갈때에듯든말과는 아주조건이다르고 일은위험하고 일삭은협해서 농촌에서 흙을파는그들로서는 지하수배척기름에 드러가서 그석탄을파지못하겟다하야 팔월감독의 무서운감시인는눈을피하여 야간도주로 범의굴을버서나와서 고향에남아잇는 친족들에게 오든이 달려하야 수십리박게나 따한형편을 편지하야 동재서대로 어려운벗을 어더보내어 가지고그것으로 러비로삼아 도루고향으로도라온사람도 더러잇고 그런조처도 할수업는 사람흥은 탄낭에서버서나기는 하엿지마는 수중에천을업서서 낫선타향객지 떠구나 엄방과는기후가 전연다른 북방산곡에서 이리저리 전전걸식을하고 잇다한다 초동면대곡리에서 탄낭에갓든사람으로 윤이선(尹二先)(二七)이라는젊은로동자가 도루 도라왓는데 그는기자에게 탄낭경편이야기를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우리가 처음에 뽑혀되어 갈적에는 하루에 일원이상이원가량의 벌이가 된다하기로 그머나먼곳으로 떠러 갓것인데 실지에 가서 보니 쏴이라고는 하루에 겨우 오륙십전 박게 주지안코 일은 위험하야 하로에도 몃명식이나 사람이 상하는 광경을 당하니 차라리 굶어죽게 되는일이 잇드라도 그곳에는 더 잇슬 생각이 업서서 죽을 판지고 도주해 나왓습니다 그런데 탄낭에서 하로에 엽쏴 오륙십전을 바드면 근근히 살아갈수 잇슬것가티 직작되겟지요 만은 사실은 그오륙십전가운데서 무슨기구슨 비용기타 여러가지로 떼여버리면 손에드러 오는것은 사십여전 될는지말는지 합니다 그것을 바더가지고 삼사식구의호구를 어떠케 해갈수잇겟습니까……운운

우리는 탄낭에서 탈출하야기를빠진고향으로 도로도라온 이젊은로동자의실정이야기를 듯고 탄낭에가서 일을하고잇는 재민들이그엄마나 고생한지경에빠저 잇는가를 능히 짐작할수잇거니와 사람이란것은 그가생장한땅의은 고토에얼마나 애착심이만흔가를 짐작할수잇섯다

기자는 발길을다시만주에도 탄광에도 가지못하고 그냥그진저리가나는 그재지에서살고잇는 재민들의 버리터인소위 재민구제꽁사장이라는데로 옴겨갓섯다 경남지방에서 리재민구제방책 이라것은 어데를물론하고 모다 일흥적으로 락동강개수공사장 흥은 사방공사장(砂防工事場)에 나가서 일을하야그삯돈을 바더먹고 살아가게하는것이다 이밀양군에서도 재민들의 유일한버리터는 이두가지공사장뿐이다그것도일흥적현장이고모여드는 사람은만흔데일터는 그와반비례로 그대지만치못하야 며칠만큼식일을하가면서 일흥을할어 하게된다한다 이고혼초동면과 하남면 량면재민들의 구제 공사장이라는 덕산(德山)사방공사장으로 차저가보니 이편산과건너편산에 오백여명의 로동자가 해오라비떼와가티 깔려서 지개를지고 팽이를들고 삽을들고 진땀을 흘리면서 부즈런히 일을하고잇섯다 칠십로인이삽을들고 흙을 파고잇는반면에열두서너살먹은어린아이들이 지개에흙을한짐식진머지고산에서 오르나리고잇는것을 보앗다 칠십로인이면 근력이쇠진하야 가만히 방안에안자서 자녀들의 봉양이나 바들일이오 열한두살먹는 어린아이라면 아즉부모들의 귀염을받고 보통학교에나 공부를하거나 그러치안호면 웅석을부리고 잇슬만한때이언마는 그러한들은이와그려한어린아이가 이일터에 나와서하로에 장정은사십오전 어린아이들은 십오륙전밧게 주지안는쏴전이라도 밧고일하지안코면 그들의입에는또는그들의가족의입에는하로에두끼의보리죽한그릇식이라도드러가지못되게때문이다기자는그공사장에서일을하고잇는열한살먹은어린로동자한녕을붓잡고그의진형편을물어보앗다 드르니 그에는그아랫동리에 사는오랍준 (吳[illegible])이라는열한살먹은아이로그의집에는륙십되른아버지와어머니와어린두이동생까지 일곱식구인데요지음에는 그의종조부까지와서 잇슴으로 식구가하나더부럿는데 그애아버지는 오래동안병으로 자리에누어잇슴으로그애의어머니는도부(해상)를하고그애는일터에나와서하로에 십오전식 바더가지가서 근근히 보리죽을끄려먹고 연명을해간다하며 또한그애는 독자이라고말하엿다 이어린로동자에게두서너마디말로문답하는사이에기자의입은다시더말을이을수업시딱다처저버리고다맛한잘등안칠물에빠저버렷다 서산의 해는 방금 까물까물저물어진지음에 기자는포켓트에서 쓰다가 남은 잔돈몃푼을 그어린로동자의 손에집어주고 살아가고저 애쓰는 그일터의 로동자들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한마듸로 그들을 하직하고 그산을 나려왓다



砂防現場으로부터온片紙一節

密陽初同面砂防工事場所見

全講習所兒童이 闕食코一念授業

배워야산다는뜨거운정성

駕洛面濟島의其後

김해(金海)고을의 수재는 대저면(大渚面)과가락면(駕洛面)이제일 혹심하엿다 대저면덕두리 (德斗里)라는동리는락동강본제방(本堤防)이 터지는바람에외동리가삽시간에 전멸되어 버린것이다그들리재민들은 대지주들의 소유농장의 제방축조흥은 락동강제방보강공사(補强工事)에 종사하야 하로벌사식구가보리죽으로흥으대판지방풍수해에수천원은짤을사다가 끄려먹고 지낸다 그런것을먹고서 그힘드는 로동흥을 하고잇스니일을하다가 기절하는사람도 갓금생긴다고한다 그들의일하는 광경을 보면 마른땅에서만 하고잇는것이 아니고 물구덩이에드러서서 진흙투성이가되며 벌벌떨면서 일을하고잇섯다 그들의입은 옷이라는것은 걸레와 마다리를두겁 세겹으로꾸여매며 기기괴괴하게 몸을가리우고잇섯스며 솜넣은옷을 입은사람은 백의하나가 잇서보이지안햇다

그러나 기간 가락면 제도 (濟島)라는 동리에가서 그재화중에서도 눈물이재절로흘르게하는 감격한한가지 사실을 목격하엿다 그것은제도강습소(濟島講習所)에서 남녀어린생도 오십여명이주야로 부즈런히공부를 하고잇는사실이다 그천진한어린아이들은 쌔은 보리밥 수저씩으로 짤죽을 먹고그래도 배워야산다는구천 생각으로 공부를하고잇섯다 한병도(韓炳道)몰가진아이는 여섯다 점심조차굶으면서도 그천진한 어린이들은 그란로도 업는차듸찬 교실에서의 협력으로 열심으로 가라치고잇는 선생의말을 잘드르면서 정성것부 부즈런히를 공부하고잇섯다 기자는그강습소 생도일동과함께 기념사진을 박이고그어린 생도들의장래에광명이 잇서지기를 축복하고 그강습소만세를 묵창하고 이즐수업는기픈 인상을머리속에 남겨가지고그곳을 하직하고 도라왓다

點心도 굶어 가며 그래도 배워야 살겟다는 熱誠으로 부즈런히工夫하고 잇는 金海郡駕洛面濟島講習所生들

定平官公署團

咸鏡線新上 新上醸酒所 李善郁 金良琡

咸鏡線新上 大衆醫院 姜滄卓

咸南新上 北鮮精米所

定平郡文山面 文林水利組合 職員一同

春柳水利組合

新上郵便所 所長 天野規矩一

定平郡 文山面事務所職員一同

茂朱

茂朱金曜會

茂朱郡廳職員一同 茂豊面 赤裳面 雪川面 安城面 富南面 同 同 同 同 同

同信商會 乗合自動車、貨物自動車、米穀、肥料、食鹽 石油販賣業 電話七五番

茂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咸南新上 木屋商店

咸鏡線新上驛前 素飛商會 穀物 織物 貿易商 電話[illegible]

定平醸酒所 [illegible]

咸鏡線新上驛前 永平金鑛事務所

新上金融組合 理事 金知龍

新上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新上里金組 崔泰瑾 金晋元 李琓燮 李東琡

定平郡長原面 私立新成學校 設立者 文鍋宰 同 韓甲 同 韓鈺 同 金達浩 外職員一同

平和醫院 楊泰郎

新上 熊川健治郎

咸鏡線新上驛前 韓光植精米所

朝鮮運送株式會社 ⊙新上代行營業所

新上穀物檢査所 職員一同

春柳面 職員一同

咸南新上 新上消防組

咸鏡線新上 東洋商會

咸鏡線新上驛前 新上百貨店

定平郡長原面檜項里 無名氏

大昌精米所 咸鏡線株式會社 新上買入所

茂朱郡邑內 同信洋服店

茂朱邑內上里 薄利多賣 親切叮嚀 高級洋服 朝日洋服店

茂朱郡邑內 茂成商店

茂朱面職員一同

茂朱郡邑內 芝南醫院 申鉉徹

錦營酒類醸造元 茂朱醸造組合 電話二六、二三番

茂朱郡邑內 司法代書 李[illegible]鎬

活版印刷 和洋紙諸用達 官廳用達 金城印刷所

茂朱邑內 朝鮮料理 迎春館

茂朱蔘業組合

茂朱曲子組合

洛東長江구비구비·눈물어린浦辺廢里

(커트 昨年水害當時氾濫한洛東江)

慶北災害地巡歷記 本社特派員 吳在東

脫皮된滿山松枝 溪澗엔赤流滾滾

代用糧採取에山川도變色

山間地帶의災年歲色

긔자는지난여름수란(水亂)당시에 정신업시휘도라단이던 경북의재해지를 헐벗고 굶주린채새해를마지하는 이지음에 다시금한번 더차저보기로하고 넘처흐르던 락동강(洛東江)물구비를거슬너좃차 한길을나섯다

닷치는곳과 보이는곳이 모도다 자연의폭위에어지럽히운당한자최뿐이다 건물이업는들판에는마른풀만 욱어저잇고 쓸어저자빠진 집들은 다시세우는사람 조차업다 산에 송림(松林)은휘여저가고 동리압시내물은 붉어저가니 이는소나무껍질을 벗겨다가 송기떡을해서연명하는때문이다 이도 삼림령취체규측에 위반이라하야 행정당국의엄금하는바이니 그여간지못할것은사실이다 그러면 그들은무엇을먹고어떠케지낼것인가할수업스니 굶다못하야 남부여대로 전전히류리하는수밧게 업겟지마는 그남아간들어드로갈가 긔자가선산(善山)해평(海平)을지낼때와례천(醴泉)호명(虎鳴)을 지낼때에 여섯가족이한누덕이보따리 한개식 만질머지고정처업시 가는것을 동행한일이잇섯다 늙은이는 멧거름에한번식짝지를 집고서서 한숨을내쉬고 어린애는 어머니등에서 보채는데 짜도 젓이안나오니 모자가다가 티땅바닥에 주저안저서운다 긔자는여긔에서 그들에게 건구 인것과 어디로가는가를 참아무를수조차업섯다

이런비극을 도처마다 볼수가잇섯스니 안동풍산(安東豐山)장터에서한십리 떠러저잇는매곡동(梅谷洞)부근에서는배우든 학교도뒤에두고 부모를따라역시 류리의 길을 떠나면서 참아학교를떠러저갈수가업다고, 눈이붓도록울면서뒤만도라보는 보통학교 생도가잇섯다 이것을보는사람도 눈물이나거든 하물며그의 부모들이야엇지참자가 끈어지지안엇스랴 희망이가득차고 뺑랑하여야할 이새해가 경북의 재해농촌에 잇서서는이처럼우울과 긔아의 회색장막속에서마지하게되니 그들에게 새로운희망을무엇으로주랴 생각할사록단장의비극만 늠할길이업다

異域孤魂되엿다는 營口로서첫訃告

하로五錢의生活費만잇스면 飢餓禍는免캣건만!

재해지동포들의 생활비를 조사하면하로 매인평균 오전가량이면굶지안코 넉넉히연명만은 할수잇다한다 례천, 안동(醴川、安東)지방에서 실시하는사방공사(砂防工事)에는장정한사람이 매일평균삼십전의수입을보게된다그러나그들의가족오륙인이잇서 그것으로먹고살수는잇겟스나 공사지가 삼십리사십리 떠러저잇스니 지여적으로헤택을못밧는사람이만코 또그생비로서는 아침에도죽을 끄려먹어야 할터이니 놉다란산비탈에서 근력을써야 할로동을감당하기심히어렵다한다

이런때문에생로가업서긔맥히는 이재해지에서 사방공사인부 부족의 긔현상을 낫타내고 잇다 그러면만주로황해도로서선북선탄광으로 향하고 떠난이만들의소식은 엇더하나 애꾸진운명의 신에게 저주를당하고 쪼기여 왓습니다 도사실이어니와 살길을 차저못을 세우고떠나간 그들에게서나좀생기잇는 소식이잇 슬가 하얏스나 만주로는가자마자 긔후와수로관게로레천읍내(醴泉邑內)에서만김제명 (金齊明) 이란이의안해 정씨(鄭氏)의 부고(訃告)가왓다 엇지생사병고(生死病苦)가어데인들 업슬리어잇지만은 못살아살길을차저간 그들이니 한해농사도 채지어보기전에 발서이역의외로운혼이되엿다는소식이야그의친척은 물론누구나듯는 사람으로하야금 슯흔눈물을 자아낼것이다 그래도 만주와황해도로간사람들은모다들 농장지대인이만치그들의손에니고 뼈에맷힌 농사에종사하게되엿스니 잘하면항산(恒産)을마들희망이잇스련니와 서북선탄광의 로동시장에로 간사람들은일일마다 죽엄을지고 [illegible] 니속지못한 지하노동에 견댈수업서 탈주하는 사람의소식이 자자하니 더욱한심한일이다 그러면가도이모양잇서도이모양못살기는한모양이니 차라리초토그냥주저안저서 주림과추위로 터부러찻호다가 닥칠운명을 긔대리는외에아모다른도리가 업슬가 위정당국자는 여긔에엇더한 명안이잇는지그발표하는바를 아직보지 못햇거니와약간의구제금과얼마안되는립시예산으로 당면구제에도 채못밋치 허덕이는데에서 굿치지말고좀더 근본적방침을 세워 항구한 계획이 하로밧비 발표되기를 바라는바이며 역경에서 허덕이는동포들이여 이것이 우리민족의중대한 시련이니 새해부터는우리들 힘으로 자연의 저주을정복하고곳세게 살길을 개척할용긔를내자! 그리하야 못처진 전답을다시금파내고 엄퍼진집을 넘으켜세우고 어진게울을 곳처싸아서 평화와안락이을 내강산을 만들고나란공작을개시하자

當局의救濟策과 災民의措處經過

작년칠월의 경북일대를 휩쓸고지내간 대수해의참해를 경북도당국의 조사한통계에 의하면 리재민(罹災民)은 삼만이천사백오십삼호에 십칠만이천이백팔십삼명인데 죽은사람이 구십이인 중상육십인이 다경상자가 오십팔인이가옥류실이 팔백칠십일호 농작물의 피해액이 이백사십칠만칠천육백칠십오원이라는엄청난수자를 우리에게보여주엇다 그들리재민의천이백호만이 천이백이인그가명년보리가을 거지식량이업서 방금그아의 전선에서헤매이는 사람들인데그동안비어차례로 이민(移民)을 식히엿이잇스니 만주영구(滿洲營口)에 일백사십팔호 철백팔십일인 황해도(黃海道)에 삼십오호일백팔십삼인 서북선광산(西北鮮鑛山)에 이백이십이호 칠백이십일인한게삼백구십오호일천구십인인이바 이것을십칠만여천 일인의 리재민에게서 감하면 십칠만사백십일인이 결국재지에 남아잇서굶주리면서 새해를 맛게되다만이다 여긔에 경북도당국의 구조방침을 본다면 총예산이 십이만구백칠십오원으로 종자배급(種子配給) [illegible] 부락이전등이잇섯고 수해의 연음으로써도 우선 일만칠천팔백십원을드려 긔직(機織)장려 왕골스립띠장려 약초종자 배급가 마니 잔려 축종기 식량배급등의 계획이 잇엇고 그개군에 사방공사가 잇서이것으로 생업을 보조하고잇스나아예산이란 진소인홍로점설(紅爐點雪)격이라 다처을준군을압두고 그들의갈곳은 장차어드인지 막연할뿐이다

土幕에어린哀愁(昌原大山面서)

土幕裏의片照光明 不顧飢餓子弟教育

昔日面目살아진迫間王國

昌原郡下의深刻한災跡

창원군(昌原郡)에서수재를만히당한곳은대산면(大山面)과동면(東面)인데 대산면의 수해지는조선제일의 대농장이라는 일홈이노픈박간농장(迫間農場)의범위[illegible]로판으로 어대지주와 소유토지를소작하야 농변이되어 농사가잘되다한드라도 소작료문제로 해마다말성이생겨서 농민들의 생활은항상불안한 경우에잇서오든 터인데재작년과 작년으로련겨허 참혹한큰수재를 격것스니이제는 다시일어날가을 아주잇허버린듯 하엿든것이다 그러나그들은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죽을힘을 분발하야 만주따 영구(營口)로 이민에뽑히가기도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대농장으로 압선되어가기도하고 함국지방의 탄광으로모집되어가기도 하엿다 망망한대산면벌판에 여기저기배치되어잇는농민부락들은 거이다 물에쓸려가 또리고 도청에서 복구비(復舊費)로나온집오원혹은오원의적은돈으로 까치집가튼 근근히 가는다란나무가지로얽거매여집들을세워 거기서 기거(起居)를하고잇다 그러나전지에는이백여호의큰부락이엿든것이 이제는 [illegible] 여호밧게 되지안는 조그마한 부락으로되어버린곳도잇다고군청원과면사무원들의권고로 비교적 노픈지대에 집을지어사는이도 더러잇섯다 그들에게는 한평에 오리식계산하야삼십평한도로매호일원오십전식의러빌리는세를군청에서보조하야집을짓게한것이라한다그러나긔자는아즉도수재직후에지은토막속에서그냥살고잇는사람들을두서너군데서보앗다박간농장사무소근처장언덕에잇는토막한채에는 장흥안(張興安)이라는 재민의 일가족이살고잇섯는데 그토막안을 드려보니땅바닥에울들짚을깔고그우에다가나무가지를 맛대어 겨치고섬꺼적이로가리어근근히비는피하게스리되어잇스나한바람은이구멍저구멍에서얼마든지 부러드러갈수잇서 보엿다그안에서이 치운겨울을 어떠케지낼는지기자는 잠간보기만 하여도몸에소름이 끼칠듯이 떨렷다

이가티도 극도로 비참한생활상태에잇는 그어두운토막속에서 기자는놀줄기피명을 발견하엿다 그것은그토막속에서 살고잇는 그주인자의 이야기가운데서 발견하게되것이다 다름아니라 그녀자의남편은 이삼개월전에 버리[illegible]이나잇슬가하야청도(淸道)그의고향으로가서 간뒤로는 일자편지가업서소식도알수업고 자녀들만 더리고근근히 연명하여가는 중인데그의스무살먹은 맛아들은 일본사람집에가서 하로에사십전식 밧고일을하야버르고 열여섯살먹은 딸아이는역시 남의집어린아이를 보아주고하로에 이십전식 벌어다가네식구가먹고 살면서 열살먹은둘째아들을보통학교 이학년에 공부를계속하야 시키고잇다는것이다 이토막속에서 살고잇스면서도 부자집개라도 잘먹지안흘 그험한보리죽혹은쌀겨리(米糖)죽을먹고지내면서도어린아들의학교공부는그냥시키고잇스니 그들의 배움에대한그극진한정성은 참으로 가상하며그들의사는그토막속에서가자는한줄기의피명이 잇다는것을 힘써맙하고십다

이창원대산면 넓은벌판에 왕군을건설하고 수천명농민을 권세당당히 지배하고잇든 박간농장의사택촌(舍宅村)이집뿍게만남고벼이며창문이 퇴락되어버린 수재의형태그대로서 텡텡 뷔여잇는것은재해지 곤궁한재민들의 빈약하나마 새집으로 보충되어잇는광경에비하야 한가지의살스러운 대상이엇섯다

故鄕으로부쳐보낸 血淚斑斑移民音信

이 창원군대산면에도 탄광으로 모집되어간 사람들로 부터는 날마다 살아갈수업다는편지가면사무소로 련속하여 도착하는데편지마다 모다슯흔정경을 말한것뿐이엇다 그곳면장 문룡한(文龍漢)씨는 기자에게그들의따한사정에대하야 이러케이야기하엿다

처음에 모아보낼때에는 조건이상당함으로 권고해 보낸것인데그곳을 가보니 아주딴판임으로도저히 살수업다고 작구편지가닷치니 도로혀 백성들에게원망을 듯게되엿습니다 어떠케조처하든지 모다데려올가하는 생각도잇습니다

탄광에가잇는 로동자들로 부터대산면사무소로 보낸여러장 편지가운데서 두어장추려서 그원문대로소개하여보겟다

其一 비한안지를 사랑하신 면장님과 서기여러분과 군청직원여러분께 죽시 일자서신도부송치못한것은 최송만만이외다 그리옵고 이곳솔량도하니 눈도적섬이오一日작가(日作)는六十전식 흠은六十五전을 주니 매일십전식가기 (부족) 가지니어찌할줄모르겟습니다 면장임은 우리를 구제할라고 하신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대단치 이옵시다 매일사생이 탄광속에달렷스니 어찌할줄 모르겟습니다다른 창녕군(昌寧)서 온인부들은 지시환[illegible]고하엿스나 우리 창원군인부는단체를하고 그런시람들과 가치하지말고일이나하여보고말들하자고군청과 면사무소에서 애호한보람이 잇게일을 해왓스나곡가(일작)도 올려주지안코 일은위험하고 호구가안되니 면장님은우리를 생각하시거든 환고를시켜주옵소서 그렷치안커든해주(海州)나 만주(滿洲)로 보내주옵소서 그리해 주지안코면 우리들은 탄광귀신이되겟습니다 사세이러하니면장님은처분하옵소서 이날까지 편지못한것은 이쫍혀편을 자세히알라고 느저진것입니다 그리 아옵소서

平安南道江東郡晩達面新長里大成炭礦內 李月善

其二 (上略)저들은 他道他鄕에 到着하야 炭坑에投身하야 僅僅히 지나오나 坑內炭事를하고보면 一日의곡가(日作)은六十錢式出給하고 坑外炭事를하고보면 一日작가(日作)는五十錢式出給하온데 事勢形便을생각하니可嘆奈何오 主人食費를 一個月에對하야 十二圓式會計하고나니 一分錢도 家內食口는 保護할수가 萬無하옵니다 坑內에서 人夫가 一個月에數十名式傷하고 死亡者가 幾許名式되오니 坑內事를 할라면 저승가나 다름이업습니다 아침에 일것다가 저녁에도라와야산줄로 생각됩니다 故鄕에잇는 우리들의 家內食口는死境에 當하엿서도 千里他鄕에잇는몸이라 알수업스니 面長님 處分으로 故鄕으로 歸鄕시켜주시기를 千萬伏祝이옵시다

大成炭坑 金仁道 張仁介 尹慶老 金貴龍

其三 (上略)一宿舍에四五十名이 잇스니 宿舍곤란도 말할수 업스며 食事도 여간 곤란이 아닙니다 南朝鮮勞働者에게는 賃金이 最下六十錢、最上七十錢이옵시다 日本炭鑛에서數年경험者로서도 平均八九十錢밧게도밧지못합니다이러함으로人夫가 數千里他鄕에와서고향갈형편이 十年잇서도 못가게된다고하는 거동이 참으로 물수가 업습니다(中略)大山面人夫가 三四名出去(脫出)하엿는데 着所不明이오나 그들의 姓名은 李繼鳳 金滔植 朴振相 金小介올시다

遊仙炭礦 李서

土役場女子ㆍ人夫ㆍ……醴泉에서

文面우에나타난 懇曲한營口事情

만주당영구로 간이민들의 정황은어떠한가 우리는 영구에가잇는 창원군대산면재동(昌原郡大山面齊洞)청년 리종삼(李鍾三)군으로부터 대산면장에게 부처보낸글을 겨울고 파골든듯한 자세한편지한장을 어기로하야 영구사정을자세히알수잇게 하려한다(以下는그原文)

營口農村은 어떠한곳인가 送者나去者나 疑問에잇든 이農場을 約一個月동안 居住하야 實地 見聞한바를 記錄하야 故鄕에서 걱정하여 주시는 親愛友며將來 滿洲에 有意하신諸兄의 參考가 되면 幸甚가 시퍼略紹介는 拙筆이나마 大略紹介코 저합니다 이農村은 營口市街로 부터 北으로 遼河를 渡하야 約十餘里를 오면 遼河下流江邊에 散在한 無山平野로서 西으로約二十里를 가면 遼東灣에 面하엿는데 一名河北農場이라고도하고大同農場이라고도稱합니다 營口驛으로부터 渡江하면 河北이라하는 牽山線驛이잇고 다음에 大同農場驛이 잇는데이驛은 安全農村을 爲하야新設한驛이라하며 驛으로부터 約四五町오면 農場事務所가 잇습니다이 農場으로부터渡江하면 東北으로 河南이라하는 廣大한 沃野가展開하여잇는데 亦是我同胞가 開拓을 만히하고잇습니다 이農場은 前에 大同이라하엿스[illegible]은 張作霖、張學良時代에 滿洲人이數萬圓을드려 開墾할때 大同農場이라하엿다합니다

安全農村의 主體는무엇인가東亞勸業株式會社인데 朝鮮에서 興業會社와東拓會社와가튼 機關입니다

氣候는 勿論大陸性으로서 寒暑의差가 甚할것이지마는 아직朝鮮南道와 別差업고 正二月이면매우칩다합니다 全年中 七八月兩月에 全年의 二分의一의雨量이 잇다하며 暇暇히 豪雨가來하야 道路는 專혀 泥濘되여 交通上 甚히 不便한모양입니다

土質은鹽分이 多含하야田作物은栽培가 되지안코며 이農村으로부터 約三四十町가면 田庄台라고하는곳에 滿洲人이 野菜를栽培하야 우리들에게 供給하고잇스며 水稻栽培도 遼河江水를 年幾十回二百馬力揚水機로서 給水하야 鹽分을排出하여야되는대 今年初年度 收穫成績은 良好하야 反當二石乃至 四、五石의收穫豫想입니다 開墾豫定地가 二千六百二十六町步라 하는데 昨今兩年 開墾地가 約二千町步되고 開墾道中에 잇는 것이五六百町步됩니다

農南[illegible]一百戶가 移住前에 收容한 戶數가 六百二十戶이며 第二回、第三回 移民을 合하면豫定戶數千戶에서 百餘戶가 超過되엿는데 이百餘戶는 來春에北滿洲로 移送할作定이라합니다

以下三面으로

迎春

金城 金專俱樂部

金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遠東金山事務所

任南面水洞里 平泉金山事務所 主任 金[illegible]

金城驛前 酒類醸造 金城醸造場 主任 朴致珏

昌道驛前 昌道醸酒組合

昌道驛前 朝鮮料理 西鮮館

金城驛前 德順興商店 主 王仁山

金化郡岐城面昌道里三一七 絹根布木、和洋雜貨、米穀貿易 文明順商店 振替京城一五七九八番

金城驛前 同興昌商店 主 陳世厚

朝鮮料理 迎樂館

開東醫院 公醫 朴用厚

金城郵便所長

遠北面長淵里 杜木洞納稅契 契長 盧學道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運送 昌道運送店 振替京城一〇〇三七番 ◎朝鮮運送取引店

昌道驛前 朝鮮料理 白雲館

金城驛前 姜鉉玉商店

金城驛前 李鍾敎商店

金城驛前 舜屋洋服店 主 趙祥九

金城面協議員 李致祜

初西里 大新商店 主 白文基

金城變電所 所長 大塚健之助

金城金融組合 職員一同

金城面職員一同

金城初西里 李乙錫

江原道評議員 朴京鎬

金剛線金城驛前 各種鐵物、農具製造 第一鐵工場 主 馬永淳

㊂金城運輸組 代表 金炳學 ◎朝鮮運送株式會社金城取引店

金城驛前 朴匡元飲食店

金城驛前 金城森林保護區

金城驛前 崔盛源商店

金城驛前 鷄林自轉車店

金城驛前 金[illegible]商店

金城驛前 魚物商 朴[illegible]鎬商店

金城驛前 金[illegible]酒

金城驛前 回春堂藥房 醫生 李炳賢

金城面協議員 李斗渙

殷柱燮

崔漢[illegible]商店

金城美髮院

金城寫眞館

昌道驛前 金允燮

昆陽

泗川郡昆陽面 職員一同

泗川郡西浦 金津酒造場 朱南[illegible]

泗川郡昆明面 姜渭成

泗川昆明面 多率寺講院

泗川郡西浦公普校長 角谷虎介

河東郡良甫面 李丙仁

昆陽[illegible]里 崔[illegible]

昆陽大[illegible]里 [illegible]

水災退治根本策
榮山江護岸工事
災民救濟工事의大部分賃金은
非災民에게넘어가는奇現象

이우에들어온바로서 재민의 최근생활상태의 일단을 소개하엿슴으로 참해의 원인을고찰하고 현하당국의 진행중 혹은 계획중에 잇는대책들을 검토해보고저 한다
 누구나제일먼저 들어낼수 잇는 원인은 작년가튼우량을 예상치못햇다는것보담 차라리무방비(無防備)한재잇섯다는데잇다 즉산업전남(産業全南)의 심장부로 전남을 배양 하고잇는 영산강(榮山江)연안라주평야(羅州平野)에는십수년래로지방에 유일의 또한최대의현안인영산강(榮山江) 호안공사(護岸工事)를 등한시해와잇는현실적 증거가되고 동시에 전남의파행적 발전상(跛行的發展相)을웅변으로시키고 마럿다그런대영산강 하류에는 세곳에 협착한부분이잇서 상류에서 밀고오는탁류를 배수(排水)못하고 마치저수지(貯水池)와가치 물을담고 잇는관계상 이가치단시일에 참혹한현상을 연출한바이나 호안공사를 마치고 하류협착부의 개착공사(開鑿工事)를 완성시켜 수로를 확대시킨다면 작년여름의 참해를 면할수잇슬것이니 이것이 제일의원인이다
무론전재는 영산강이나락동강(洛東江)에만한한것이안이고 현하조선농촌의 어느부분에서 천재가이러날런지도 알수업는형편에 잇서서그때마다 이만만으로 고식적(姑息的) 구제예산만으로는 문제의핵심(核心)을해결할수업다요컨대 문제는 조선농민(朝鮮農民)의 생활안정에대한 근본적 해결책노력을요망할뿐이다
 다음에 구제사업의 비용을들어볼때 전귀통계에의하면토목,사방을합처일백삼십만원에달하나 재민구제사업비는 총독부결정액 십이만이천여원외에 차인노은(差引勞銀)이라는 십칠만팔천여원과 의연금(義捐金) 이만이천여원등 으로 합계삼십만원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소위제이차 구궁사업비(第二次救窮事業費)라하니대체로 밧서 전남의구제예산이란 형식적 색채(色彩)에 불과한것 이다. 식량 급여비 (食糧給與費)를 보면 每人當二十二錢平均으로[illegible] 해도一升인즉大人一日三合으로人하면 三日의食糧에不過하고 勞銀每戶當一日에四錢이라하니五人當平均치고 每人當五錢의生活費에不過하다)
예산의전체를 보든지 놀은지불상태를 보든지 고식적입시적 대책에 불과하고 더욱히 장래방침이란 우에말한삼십만원 정도의현행 또는착수미정의 전귀내용올헤아릴뿐으로 그외의 예산이나 방침이 구체적으로서잇지 안타한다 물론근본적대책의강구가 업시는안될것이다
 영산강 개천공사장에다시면,왕곡면(多侍面 旺谷面)의 재민들을 역하라하지만 토막과의 상거가이삼십리나됨으로 매일조석으로 래왕할수업고 따라서 직장을엇지못하는중이니 당국은마당히 로동자무료숙박소(勞働者無料宿泊所)를 신설할것이며또한금천면사방공사장(金川面砂防工事場)에는임금산포방법에불평이자자한바잇으니그는재민들은 일급삼십전내외의 임으로 겨일 혹은삼일에한번식의 차례가 됨에불구하고 소위귀솔자라 하야 타군타면에서재민안인 일용인(日傭人) 을일급칠팔십전내지일원사오십전식주고 매일 삼사십명식을 사용한다하니 임금의 태반은그들의게로 드러가고만다는 점에잇다
 물론당국의방침이 가지는안켓지마는 실제에잇서서 이러한결과를 보이고잇스니 압으로는 현명한조처가잇기를바라는것이다
 끄트로 지방의 최대현안인영산강호안공사(榮山江護岸工事)、라주교가설(羅州橋架設)에 대한 당국의 성의와 지방민의분발을 신년벽두에원하는바이다

恨長怨深榮山江堤廢墟에도봄이오이다

全南水災跡을차저서
羅州支局長吳快一記

蕩盡된家臟什物
所有物은債務뿐
닥처올春窮을무엇으로막나
羅州平野의點點土幕

증수십미돌오십!
일천구백삼십사년칠월이십일일밤!
팡난의파도、도도한 탁류의한복판、몹시도 흔들리는 『포푸라』에매달린 가족 칠인이 『사람살리소 사람살리소』하고 비명을울릴때、대자연의폭류、강수의마력은 바야흐로 득의의 절정에도달하고、전대미문한 비극의 제일막은 이에열리고말엇스나、세상사람들은 스스로가 비절통절한 『세리후』를 련해부르면서도 아즉 스스로 비극의주인공임을 미처 인식치못하고잇섯다
긔자는 작년여름 수재의참극이 담양(潭陽)광주(廣州)함평(咸平)령암(靈岩)으로 무대가넓어질때 『뉴ー쓰』나 구호를 자려으로는 수행할수업도 정려도다ー소멸되야 고독을大것슬때의 당황하든 당시 정경과그후에잇서서 십일월오일 이민렬차(移民列車)에옴나 그들을전송하는 눈물겨운일을 도리켜생각하면서 영산강안(榮山江岸)으로 점점히 허터저잇는 이재민부락을차저 엄한중에 헐벗고 줄임과 싸우는동포를 맛나보고 그들의신년맛는 생활경경과 이민터난자최를차저 재지소식일반을 소개코저한다
재지의 창생은 수해당시흥은즉후보담 차라리 오늘날에이르러본격적으로 참혹한장면이 전개되는것이엇게추측된다 물의의 천재인지라 당시는 재민들자신도 정신을 수습하지못하고 해내해외의 백렬적동정을바더 우선당면의 큰화는 피해왓스나、날이감에 딸아 협루약동정도 희박하여지는 반면에엄한과 싸우며 그들의생명을 명춘에 약속하자 안흘수업는그들에게는 새로운문제가 새로운비수와새로운 절망속에서 맹동하고잇다
 리재동포의 당면한난 문제는사천가족의 가옥(家屋)문제 팔만명의식량(食糧)문제삼천사백호의원료(原料)문제 칠천사백호의 직장(職場)문제에잇다 가옥을떠날닌 가족의 태반은현실 토막에기거혹은도로에 방황하며 쉬일새업시다처오는 그날그날을 걸식으로 넘기고잇다
 기자는 일망무애한 나주평야(羅州平野) 거리끼어시 부닥치는름렬한 북풍바지강변에 무방위(無防衛) 로되여잇는 재민의토막을 차저들어다 장단고르지못한 석가래사오개를 걸처가는 다란기동을 세우고 석은가마니 양철조각 누에재반(蠶具)등으로 엄거맨벽에다 처마폭으로 방문을삼은모래석지 흙바닥이 그들의방어다. 포전에서 주서온 무배차의마른닙사를 마리청어역드시 역거달어매인것이 그들의 귀중한식량이요、귀떠러진 옹긔한개가 유일의가구인데 흙날니는바닥에 모자라진비짜리 어울리안케 그들의정경을맙하는듯하다
산에감기는 홋옷이 이상스럽지도 안코、간흘솔닙을 글거모아 노흔것이가장 흥흥해보여다 당국에서장려하는가마니(叺)와삭귀(繩)도원료(原料)의 결핍으로 생산을할수업고 그나마긔후가 한냉하고농사가끗낫슴으로로동시장(勞働市場)을구할래야 구할수업스니그들은 어쩌할수업시 글자그대로 『동면』(冬眠)을하게되여잇다
 그들로잇서 둘재로닥치는 고통이 또잇으니 채귀 (債鬼)의 발호 비료대독촉 (肥料代督促) 소작문제(小作問題) 농자금(農資金) 문제 토질황폐(土質荒廢)로 인한 복구문제등으로 가젓든살림이란 다 업서젓스나 업서지지 안는것은 지긋지긋한 채무(債務)이다 동척(東拓)과기타회사등의대부(貸付) 개인의전채(前債)는범광장달가치 명춘을대기하고 잇스며 류실매몰된비료대를 독촉하는지주들의 무자비한태도는 비료대를 못내면소작권까지떼인다는각박한경우에까지다달려잇다
 명춘의 농자금이란전연 몽중에도 예상키곤난한현상에 잇는데다 류실매몰된 전답(田畓)은 삭사오변으로는 도저히 복구되지못할지경이니 그들로서는 압길이 막막할다름이다
 긔자가 가든 전날밤에는토막에까지도 랍이잇섯다하야토막민(土幕民)의 신경은 가일층 예민해젓다 토막민을 엿보는도적!실로괴로운 우슴이 터질일이아닌가? 생물여사를 부르짓는 그들에게는 과연 사려갈길이 업슬것인가?

羅州平野의災跡

移民간내子息을 걱정하는老父母
昨年의慘禍를이야기하는
黃昏에빗겨선포푸라

겨울날의 사양(斜陽)이 황량한뻐촌을굽어볼때 토막의 처마자람끈을자치고 박글내다보는 로파가잇서서 산울향하야 묵묵히무엇을생각함인지 긴한숨을남기고 다시드러간다 말엽시흐르는 영산강물은 두편언덕에서 내려갈때에 하류의 머ー드리발동선(發動船)소리가들려온다여기는영산강뚝 에서도 가장피해가심한부락ー
부락(部落)을방어하는성곽(城廓)가티보이든 강변의뻐푸라 만 이 호올노 여원몸으로 웃둑하게남피소슨것이 반년전이자리의일을 내가 잘안다는 것가티 보엿다
기자는이부락에자기의아들식구만을먼저번영구(營口)에이민을할때에보내고 자기내외만은 고향에남어잇다는리로인(李老人)을차저다
기자는 그로인에게 만주간아들소식자조롱습닛가 하고무럿터니그는
 『네!자조편지가옵니다 그곳에서만살나면조켓스나 북만주로 가라할까봐 주야로염려됩니다하니 대관절 북만주란얼마나 먼곳인지요 거긔서도 사람이사는가요?』하고 수색을띄우고는 멀리간 아들을걱정하는일념으로 이야기를 계속한다
 『나도 그곳잇는아들이자미를잡고살도리가 생긴다면 이몸서리나는살림을 치우고 그곳으로갈작정이지마는 여의케될른지알수업소』하고는 『그런데 여기서 학교졸업을하고간 우리아들동무는 부락의 지도원으로 대우가조타한데요』자기아들의 학교졸업 못식힌것을 유감스럽게 넉이는 기색을보인다
 기자는 조흔말로 멋마듸그를위로한후작별을 고하고 도라섯다페동(廢洞)의황혼! 우울그것과 가티 회색안개로 둘러싼동리를 뒤로두고발길을돌렷다

일나간 압바 엄마는 언제오나 ══(昌原大山面南洞에서)

要救急者統計와
當局의救濟方針

그러면 전남(全南)일대에산재한재민중 당연의구제를 시급히요하는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는가? 전남도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農作物七割以上減收戶數 二三、四六二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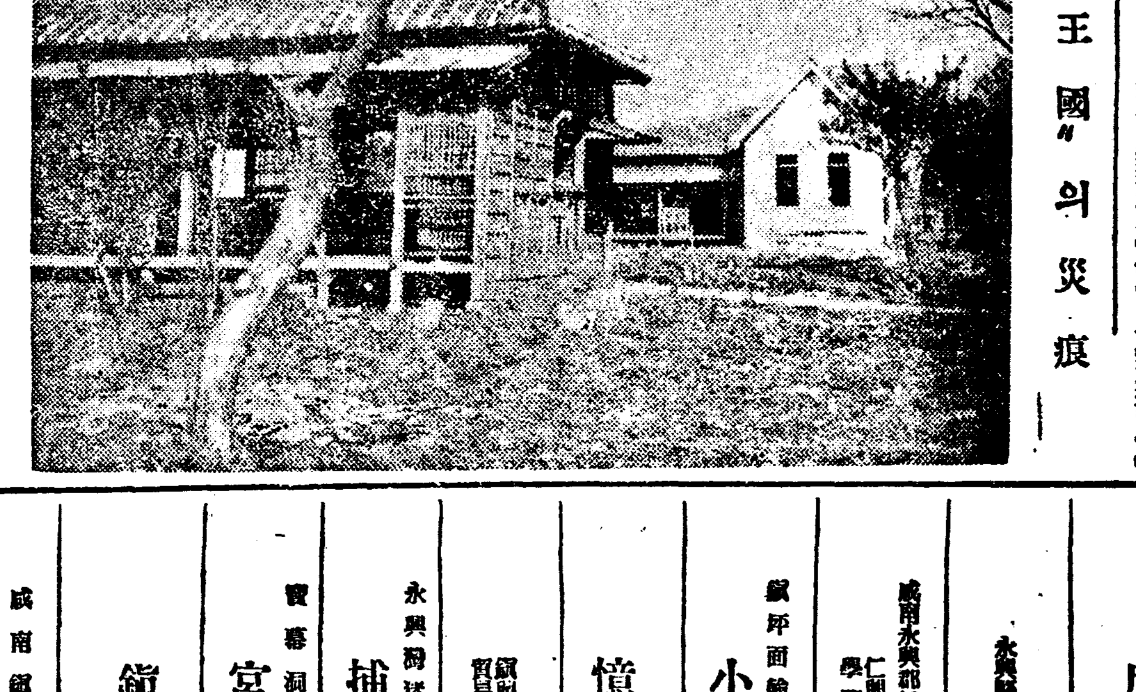
 內譯
一、地主、自力及隣保相助에依할수잇는數 六、八八一戶
二、移住戶數 一二五戶
三、代用作物에依하야 救助할수잇는數 五、六〇六戶
四、勞銀散布에……七、四二八戶
五、副業獎勵에依하야……三、四二二戶

그중 제이항은 기왕에만주흥은서부선(滿洲、西北鮮)에 출발하엿슴으로 별문제로하고라도 일항은 책임업는지주(地主)나 린보상조(隣保相助)에 의하야 과연얼마나한 정도로 계속성을확보할수잇슬는지 또는 토대업는자력에의한다할도 안정할수 업스니 대부분의 수자가 순간적으로배정(配定)된것에 불과하며 제삼항의 대용작물(代用作物)은주로포전(圃田)의 소채인바 수급(需給)관계를 초월한 장려로 방대한 생산때문에 가격이 대폭락하야 큰수확을 보지못하엿고 제사항의 로은(勞銀) 산포는 로동시장의 부족과불편때문에 로동력의 소화불량을 이르키고잇스니 현재의 공사와사업만 으로는 처음예산대로될수업다 도한오항의 부업장려(副業獎勵)는 전긔한바와 가티원료난(原料難)인데 만약 엇드라도 고가의 원료값과 운반비등을계산하면생기와 가마니의 생산비가과다하야 쪽이닷치안는다고 하니요구제민(要救濟民)의구제방침과구제긔한여부가 곳그들사활의 분기점이되여잇다
 전남도(全南道)당국의대책과구제상황을 장래방침은 대략다음과갓다한다

甲、要救濟民救濟事業費
 內譯
가、小屋掛費(家屋補助)二八、二八五圓 流失家屋…二、二六四戶
 (每戶當十五圓式)
 全潰家屋 一、三五四戶
 (每戶當十圓式)
 半潰家屋 二、一一七戶
 (每戶當五圓式)
나、炊出給與費 (食事二、一四〇圓)
 實人員 六、四四三人
 延人員 四〇、六七九人
다、應急救防費 三、三九九圓
라、食糧給與費…一八、二三二圓
 戶數 一六、四二三戶
 人員 大人、四九、二六九人 (一日三合)
 小人、三四、二八六人 (一日二合)
 計 八二、一一五人 (米三割粟其他七割)
마、事業獎勵費 三、四二三戶
 三三、九二五圓
 叺織(二個月間)
 一、一四四戶 一一、三六五圓
 竹細工 一一三戶 一、二六〇圓
 莞草細工
 一三五戶 九八〇圓
 繩二、〇三〇戶 二〇、三三〇圓
바、代用種子配給費
 一〇、一九三圓
사、桑種子配給費
 二四、七二四圓
아、醫藥救療費 二、〇一〇圓
 合計 一三二、九〇八
 右中라、마兩項은未着手 其外는完了
 全南道申請額二六一、一七一圓
 本府決定額 一三二、九〇八
 別途義捐金二二、二〇〇圓과 合하야 計劃樹立中
乙、土木工事及砂防工事
 제이차궁민구제사업(第二次窮民救濟事業)으로 리재민구제를 겸해다는 토목사업과 사방공사는다음과갓다
 土木工事 九一一、〇四七圓
 砂防工事 二六九、三九六
 計 一、一八〇、四四三
 其中勞銀 七〇〇、八三三
 罹災民救助外에支拂될勞銀 (技術員) 一二、三三六
 差引救濟勞銀
 一七八、四〇七
 勞銀에依한救濟는 每戶當二十四圓(每戶一日平均二十四錢一百日分)
丙、將來方針
 甲、乙兩項中旣定事業의、完了와 同時에 終了할豫定으로 特別한 計劃方針은 考慮되지안는다하다

自二面繼續

이農村先住民은 大略 滿洲事變에 避難民을 收容하엿다하며 住戶當 二町四反步式 均一割로分配하엿습니다 住宅은 滿洲式平家인데 每戶一棟이 二尺의 厚으로 寒氣에堪耐하도록하엿스며 집웅은 春秋로 吹風이 甚한 까닭으로 土로써 덥혓는데 廚房一間에 二戶式 使用하도록 하엿스며 壁도 土壁이요 집웅도 土인데一棟六間에 四家口가 居住합니다
 農村中央에 事務所가잇고 또 中央部落이 잇스며 四五町隔하야集團部가잇는데 中央部落外一區로부터 九區까지 部落이잇스며新住民部落으로 第十區、十一區部落을 新設中이며 우리들新移住民은 舊部落에 借間하야假住中인데 今月末(十一月)까지慶南二百戶는 新家屋에 入할豫定이고 第二回移住民은 來年三月까지新築家屋에 入할豫定입니다
 食水는 鹽分이多含하야 新鮮味가업고不良하며 地下二尺만파도 水氣가잇습니다
 敎育은 假設뻐락校舍가잇는데 現學童이四百名에 總督府로부터 補助金一萬二千圓으로서 校舍를 雄壯하게 新築中인데 不遠間移轉하겟스나 不過五百名밧게 收容할수업스며新移住民子弟를 收容할 校舍가 狹窄하야 議論中이며 對策을 講究하는中이올시다
 衛生은 總督府로부터派遣한醫士가 잇스며 農場診療所만 가지고가면 治療하는데 治療費는 秋收後에 實費로서 徵收한다합니다
 治安은 營口警察署(領事館)駐在所가 잇고 또守備隊派遣員이 잇서서不虞의 危險은 업습니다
 農民의 知識程度는 朝鮮十道人이 集合한곳이모힌 農村이만큼 相當한人格과常識을 가진人物이만습니다
 이農場事務所인 東亞勸業株式會社의 本社는 奉天에잇고 支社를各處에두어 滿洲平野開拓의 任에 當하고잇스며 會社內에金融聯合會가잇서 우리들의 食糧 農具其他物品을 購入하야 配給하는데 朝鮮의金融組合連帶債務 以上 一部落이 連帶하야 農資를融通하여쓰는 모양입니다
 또 農務契聯合會가 잇서 各部落에 契長이 잇서서朝鮮으로 말하면 區長과舍音가튼 任務를 하고잇습니다
 土地買收價格은 一天地(六反步)二十圓가량이라하는데 開拓途中에 잇서서確定한經費는 來年秋라야 알겟다하나 一戶二町四反步에 二十四石을 水利組合務費로納入한다하니 來後年부터는 土地代가 包含될모양이니約三十餘石은 納入하여야될줄로압니다
 立稻刈取는 約二十日前에終了가 되엇는데 脫穀機注文한것이 到着되지안하야 今後二三日이면 시작할 모양이며 稻束數도 一一히農場에 報告하야 脫穀時라도 農場에서 直接監督하야 1年間貸付農糧、農費를 除하고餘穀은共同販賣에 付하야 金融會에 貯蓄하엿다가 必要한 用途가 잇스면 준다하니 小作制度以上嚴重합니다
 여기서 仔細한 內容을 쓰지못하겟스나 到着後 不過幾日에 慶南二百戶移住民班長會에 代表로推者外二人이 選定이되여 營口領事館及總督府로부터 우리를을引率하여가지고온 楊事務官에게 要望其他 質問이 잇섯스며 陳情한바 잇섯는데 어느 程度까지 安心이 될만한 答을 어더가지고 왓습니다 物價는 田作物外日用品은 朝鮮에 比하면 二倍乃至四五倍요 食鹽은 八倍나 高貴합니다
 살길을 차저 情든 故鄕山川을 離別하고 주린배를 움켜쥐고 南으로 北으로 헤매이는 우리同胞 어데를가면 自由가 잇스며 滿足이 잇스리요마는 우리祖先이 先住하든 이땅이 또 우리의 永住地가 될는지 榮爵의地가될는지 未知數에 잇지마는 조밥이나마 배고품 걱정은 업습니다
 바라건대 爲政當局者여 一步더나아가 移民本位의……致策을 確立하도록
 우리同胞야 目前의 糊口만생각지 말고 將來의……에 備하도록 覺悟가 잇기를 在內外兄弟에게 紹[illegible]하고 붓을 놋습니다
十一月十七日
興凱寒窓照明月下에서
李鍾三



"追間王國"의災痕

鎭興

咸南道會議員 趙昌元

虎島州事務所職員一同

永興警察署長 德田正治

咸南永興郡仁興面浦中里 仁興公普校學務委員 金南極

鎭坪面輸洞里 小德金山

憶岐人事務所職員一同

鎭興貿易商會 劉永福

永興郡猪島里 捕貝捕魚組合

寶幕洞鎭山 宮內綱利

鎭興釀造場 尹大鉉

咸南鎭興市 公醫 尹明傑

咸南永興郡鎭興場 司法行政代書人 張寬厚

永興貿易商會 米穀商 鄭宗九 姜承伯

咸南鎭興市 繁榮會

鎭坪面事務所職員一同

咸南鎭興市 鎭興魚物商組合 同仲介組合

仁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永興洞柳島 柳島捕貝組合

咸南鎭興市 山本政次郞

咸南鎭興市 大坪淸太郞

咸南永興郡億岐面九龍里 面協議員 東[illegible]

咸南永興郡德下里 黃芝洙

咸南鎭興場 鎭興自動車部 尹秉濟

咸南永興郡鎭坪面天昌里 金貞武

咸南永興郡鎭坪面鎭岩里 金衡相

咸南鎭興市 松京洋服店

咸南永興郡鎭興市 綢緞布木商 韓弘傑

咸南永興郡鎭岐洞九龍里 九龍精米所 姜東元

古興沙浦老里 陳·秉哲

虎島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元山府榮町二〇番地 [illegible] 趙正允

咸南鎭興市 元興商店 孔柱極

咸南鎭興市 專賣局販賣所長 南相圭

咸南永興郡鎭坪面天昌里 石命環

古寧面事務所 職員一同

咸鏡線馬場驛前 鐵道指定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主 朴演榮

鎭興場郵便所長 原·參治

咸南鎭興市 醫生 李允輔

咸南鎭興市 米穀貿易商 鎭興商會 趙河允 趙時元 趙元衡

鎭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南鎭興市 穀物商 金東七

咸南鎭興市 綢緞布木商 金昌烈商店

咸南永興郡億岐面[illegible]里 永興郡農會特別議員 兼評議員 朴濟鉉

咸南永興郡億岐面九龍里 永興郡農會通常委員 金雲[illegible]

咸南鎭興市 鐵金物 德興商店 林鶴俊

咸南鎭興市 醫生 金玟相

鎭興鑛山製鍊所 金相昌

咸南鎭興市 安州商店

咸南鎭興市 鐵金物 泰成商店 趙成鎬

綢緞布木洋服製造日用雜貨各都賣 中和商店主 吳泰鳳

鎭興 吳基鏞

咸南鎭興市 綢緞布木商 高益鉉

咸鏡線馬場驛前 穀物貿易商 洪鍾植

億岐面瓦碣里 金富洛

恭賀新春

倭館

倭館醫院 公醫 金顯文 代診醫 白泰興 調劑員 黃昌植 電話二九番

漆谷郡廳職員一同 電話二〇番

倭館警察署長 早馬十一 電話四番

倭館稅務署職員一同 電話三一番

倭館面長 朴熺準 外職員一同

倭館金融組合 理事 宮本庸三 電話二一番

慶北漆谷郡 倭館郵便所長 佐藤獅子人

倭館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電話二四番

京釜線倭館 驛長 大場好

慶北漆谷郡枝川面新洞 金秉業

倭館穀物商組合 電話一九番

慶北倭館 米穀肥料石油セメント 尹哲炳商店 電話三二番

慶北倭館 海岡印刷所

倭館穀物貿易商會 主 李[illegible]鎭

京釜線倭館驛前 朝鮮運輸計算會社 丸神海陸運輸株式會社 取引店 (二)荷主組運送店 主 鄭[illegible] 電話一二七番 振替大邱六五九七番 私書函第三四號

學校評議員 穀物商組合長 崔應天

倭館金融組合倉庫株式會社 支配人 大塚佐吉 電話一八番

道會議員 入山昇 電話一七番

倭館酒造組合 電話八番

慶北新洞 咸台慶

慶北漆谷郡倭館面 李萬煥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倭館特約店 食料品 雜貨 洋品 化粧品 京釜線倭館 鮮一百貨店 主 文造坤

慶北若木 若泉酒造場 申相憲

慶北漆谷郡若木 李海哲

慶北倭館 金城鎭

若木警察官駐在所員一同

漆谷警察官駐在所員一同

架山警察官駐在所職員一同

新洞警察官駐在所員一同

仁同警察官駐在所員一同

北三警察官駐在所員一同

石積警察官駐在所 巡査 道次 崔乙河 金鳳學

倭館飮食店兼宿屋組合

倭館煙草販賣所長 國弘治平 電話二六番

若木面長 申鉉九 外職員一同

倭館尋常高等小學校長 島村藤吉郎

米豆檢査所長 鶴丸有吉

倭館砂防事業所職員一同

大邱地方法院倭館出張所 石田長一

石積面長 張敏植 外職員一同

架山面長 金鎭球 外職員一同

枝川面長 李承弼 外職員一同

仁同面長 張承澤 外職員一同

漆谷面長 柳河秀 外職員一同

東明面長 李相龜 外職員一同

北三面長 張世華 外職員一同

慶北漆谷郡新洞 姜信采

漆谷郡枝川面運西洞 李基聖

慶北倭館 慶一自轉車店 周鉉在

若木公立普通學校 小野鈌助

仁同公立普通學校 校長 伊地知幸一 外職員一同

新洞公立普通學校 畑添久一郎

京釜線倭館驛前 水陸貨物運送取扱 北海陸物產委托販賣業 東亞商會 東亞運送部 主 佐伯立 佐伯鳳相

京釜線若木驛前 公醫 林宇市

漆谷郡石積面牙谷 牙谷酒造場 李逢春

慶北漆谷郡仁同 仁同酒造場 張炳濬

京釜線倭館 割烹料理 鶴乃家 電話二五番

慶北漆谷 漆星酒造組合 理事 [illegible]

慶北倭館 南一精米所 電話一六番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李鍾律商店

慶北倭館 慶尙合同銀行倭館支店

慶北倭館 中華料理 大邱館 金花仙

慶北倭館 米穀商 蔡炳祿

慶北倭館 米穀商 三共精米所

米穀商 洛山商會 電話三〇番

新洞驛前 婦人商會 李民龍

倭館驛前 朝日土管工場 朴在同

漆谷郡倭館面倭館洞 司法代書人 趙東淑

朝鮮慶北倭館 和洋菓子 各種パン商 吉富製菓舖

慶北倭館 雜貨商 徐泳鎭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權道鉉

新洞酒造場 金秉駿

仁同面鎭浦酒造場 張滜植

漆谷金融組合 理事 林根雨

枝川面新洞 孫世鉉

枝川面龍山洞 増原道義

倭館驛前 日進雜貨店 李炳浣

慶北倭館 鮮一洋服店 主 張元俊

日新理髮館 朴孝大

大邱理髮館 李質壽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李世煥

慶北倭館 洛東旅館 洪[illegible]巡

漆谷郡架山面下板洞 金台永

漆谷郡仁洞 尹巡錫

漆谷郡架山面多富 多富酒造場 張觀喜

仁同 張世明

新洞驛前 米穀商 李仁燮 張調煥

漆谷郡仁同 張世韓

漆谷郡石積面城谷洞 張敦植

慶北倭館 百貨店 權重輝

中華料理 天增祥 主 徐增明

慶北倭館 醫生 蘇鎭遠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金文吉 商務 張守琅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孫寶敬

東明酒造場 李琢一

漆谷郡若木面關湖洞 崔鳳浚

慶北倭館 朝一精米所 鄭昌植

漆谷郡若木面關湖洞 張龍俊

慶北倭館 李維鎭

漆谷酒造場 蘇鎭浩

若木金融組合 理事 金永漢

漆谷公立普通學校長 漆谷公立尋常小學校長 漆谷郵便所長

京釜線倭館驛前 湯淺商店

枝川酒造場 尹丙烈

漆谷郡石積面中洞 張永圖

慶北倭館 李相瑞

漆谷郡仁同面玉溪洞 古物商 朴太成

漆谷郡枝川面琴湖洞 尹昌達

延安

活版石版 和洋諸紙 文房一式 啓東印刷所 李庚塔 電話四六番

延白郡廳職員一同

延安邑南門內 肥料商 張命昌 電話六七番

延安邑內 日本生命延安支所 吳秋信 電話六四番

延安驛前 延安精米所 主 金相玉 電話六八番

延安邑西門外 各種農具商 宋永奎 電話二七番

延安邑 活明堂藥局 主 谷口市二 藥劑師 韓命燦 電話一〇〇番

延安邑西門外 延安乾材藥局 主 安淳永

黃海道天台驛前 各種農具鐵鋼 金物商 天台農具店 修繕部 主 洪聖根

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肥料農具 食料品 御商 姜益聲商店

延白稅務署職員一同

西鮮合同電氣延安營業所 朴容煥

延安面 宋善日精米所 電話一〇四番

延安邑東門內 濟衆醫院 院長 朴承元 電話五三番

延安邑 院長 邊錫鐸 電話六四番

延安邑 申鉉聲 電話六四番

延安邑 明月館

延安邑西通 延壽堂藥局 鍼灸師 兪衡錫

延安邑 廣德醫院 院長 吳範泳 電話五五番

延安驛前 延興旅館 主 金李淳

延安邑南門外 材木店 高慶權 電話六五番

延安邑 延安自働車部 電話四一番

延白郡 海城面長 鄭禹弘

延安邑 延安醫院 院長 金永珍 電話一六番

延安邑西門內 龍鳳館 電話一〇八番

延安延 金重仁

安面邑模井里 金興權

延安邑 司法代書 劉貞夏

延安邑 張容九

延安邑 永昇館 電話一二番

延安邑 雙昇館 電話二五番

延安邑 永春園 電話二六番

延安邑 妓生 金松竹 電話一五番

延安面長 禹夏榮

延安邑 司法代書人 朴燦然

延安邑 朴聖章

延安邑 司法代書人 方承式

延安邑 パイン裁縫商會

延安邑 中央醫院

延安邑 李敬承 電話五八番

延白郡湖南面邑洞里海星學校 校長 李運熙

延白郡湖南面邑洞里 高明三

延安面 張鵬翰

延安邑 司法代書 張春永

延白郡海井面香亭里 金昌台

延白郡湖東面秋井里 裵允京

延白郡道村面琴山里 邊英植

延白郡天台市 金裕澤

黃海道天台市 天興樓

黃海道天台市 海東醫院

黃海線天台驛前 ⊙天台取引店

黃海線天台驛前 ㊂黃海運送店

黃海線天台驛前 加盟店 ㊁荷主運送店 主 裵益鉉

黃海道天台驛前 崔義淳

黃海道延白郡天台市 金圭煥

黃海道延白天台市 沈鎰鎬

黃海道天台市 孫玆德

黃海道天台市 裵聖弼

延白郡天台市 黃德性

延白郡天台市 張天洙商店

黃海道青丹市 穀物商 方泰俊

東萊

機張面 朴孟杓

東萊邑 崔鍾昱

日光面 河柄祖

日光面 崔珍鉉

東萊邑 李相泳

東萊邑 金文奎

東萊邑 吳成煥

東萊邑 貿易商 梁泰振

東萊邑 成渭德

東萊邑 李尙東

日光面 金洪福

日光面 崔榮鶴

日光面 柳炳權

日光面 崔翔禧

北面 文湜周

西面 朴基鈺

西面 辛泌

長安面長 鄭寅湊

長安面 孫東澤

機張松亭 金琪俊

機張大邊 金洙鳳

西面 梁在燮

西面 愼順緯

西面 林義雄

鼎冠面長 金鎭萬

日光面長 黃環性

西面 盧聖煥

機張面 朴智鉛

機張大邊 裵萬石

東萊邑 金奉相

間島

間島龍井村 三光硝子工業所 主 李投澄

間島龍井市 間島機械商會

間島龍井村 李永植商店

間島龍井村 朝鮮洋靴店

間島龍井村大通路朝日街三番 朝日洋品店 主 徐英傑

間島龍井村 滿香商會

間島龍井市 元井齒科院 主 朴元錫

滿洲國龍井村新安街 大同醫院 電話三三三番 醫師 李永元

間島龍井市 北洋齒科

間島龍井市 鑛業 李容根

間島龍井市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主任 金璣憲

間島龍井市 元山商店

間島龍井村 太陽堂時計店

間島龍井村 友林商店

間島龍井村 會友洋服店 主 高天日

間島龍井村 永生局 主 趙永現

間島龍井村 安一商店 主 鄭洸俊

間島龍井村 唯一洋服店 主 許潤元

龍井市 德川麵屋 主 朱大俊

龍井市後十字街 牛島自轉車商會

間島龍井村 松野商店

間島龍井市大通 南一 婺泰熙

間島龍井市 中央商會

間島龍井村 [illegible]寫眞館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七

朝鮮古典에서차저온

일헛든우리文學의吟味

舊小說에나타난時代性

繼母와嫡女를主題한 家庭小說 薔花紅蓮傳

近代朝鮮家庭의一面相

朝鮮에는繼母가前妻의子女를虐待하는의 類小說이 만히다 이는 過去 朝鮮社會의 家庭的 一面相을 말하는것이어니와『母在에 一子寒』이라는 句는 이繼母의 虐待性을 端的으로 表示하야 만흔사람의 눈물을 자아 내게한것이다

薔花紅蓮傳은 그흐르는바 內容이 繼母虐待로 因하야 이러난 家庭悲劇을 그리는同時 그 죽은 魂이 公廳出現의 이야기와 그의魂을말하는 靑鳥의길案內等의 滋味잇는 傳說을綜合하여 지여젓다 이러한 數의 小說은日本에서도 落窪、住吉、秋月、伏屋、美人放、岩屋草子、朝顏、花夜姬等이잇거니와 朝鮮에는 유난히 이런數의 小說이만히잇스니 薔花紅蓮傳을 비롯하야 魚龍傳、張豐雲傳、鄭乙善傳等이 卽그것이다

그리엔 이제薔花紅蓮傳의內容부터 어떠한것인가를 들어보자 世宗때 平安道鐵山郡에 한사람이 잇섯다 그는裵武勇이라는 座首까지 지내인 사람으로 張氏와 結婚을 하여 團欒한 生活을 하고 잇섯다 그러나 膝下에 一點血肉이 업슴을 설어하다가 그어떤날 吉夢을 꾼뒤에 는딸둘을 나케되엿다 이리하야 언니를 薔花 동생을 紅蓮이라 부르게되엿다 그러나 不幸히도 안해 張氏는 그들이成長하야出嫁하는것도 보지못하고 가엽슨 두딸을 뒤로두고 이世上을 떠나고 말앗다

이리하야 裵座首는 할일업시 後室을 엇게되엿스니 그는 許氏라는 奸惡한女子엿다 小說은 이리하여 여긔서부터 悲劇의막이 열리지기 始作하는것이다

그런데 許氏가 後室로 드려온지 얼마안되어 아들 三兄弟를 나케되엿스니 長男의 이름은장쇠엿다

이러케許氏가 못난이三兄弟를 나코보니 더한층 똑똑하前妻所生 薔花紅蓮이가 그러케도 미워졋다 이리하야 許氏는 惡心의發動으로 이兄弟를어떠케든지 誹陷에너허죽이려고 하엿다 그러나 어떠케할 道理가업서 焦慮中 妙案하나를 만드러내엿스니 큰딸薔花가 處女로 懷姙을하여 落胎를 하엿다고 거짓꾸미는것이다 卽 薔花가 자는 이불속에 털을뽑고 피칠한쥐를 너허 두엇다가 이를 裵座首에게 落胎햇다고 密告하자는것이다, 그런데 許氏의 妖計는 드러맛게 되엿다 그리하야 直時 裵座首의 承諾을 어더가지고長男장쇠를 식혀죽이려보내게되엇다 그러나 薔花에게는 그런눈치도 보히지안케하고 그를말께 태운뒤에 外家에가자고 속이고서는 深山幽谷으로 더리고 가게되엿다 그러나그가는길이 外家는 안이요 그어느山間 仲秋

明月이 둥굴고도 빗나게 비최이는 못가에이르게 되엿다 이곳에 오자 장쇠는薔花를 强迫하야 물에 드러가도록 하엿다 薔花는 치마를 쓰고 물속으로 들어갓다

그런데 이러한 悲慘한 光景그대로가 혼자잘들고잇슨 紅蓮이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엿다 이리하야 紅蓮이는 소스라처잠을깨인뒤에 薔花의 죽은 자최를 알고 뜻안인 靑鳥의 案內로써 이곳까지 오게되엿다 언니는 간곳이업고 無心한 물결만이 고요히 흐르고 잇슬뿐이다 紅蓮은 그만 안타가운 마음에 自己도 그곳에 몸을 던지게되엿다

그後 그들은 寃魂이되여 府使의 公廳에 나타나 그怨魂을 풀어달라고 哀願한다 그러나 그들府使는 그魂이 나타날때마다 그만 무서운나마에 氣絶하여 죽어버리는것이다 그리든중 새로

도임한 郡守鄭東祐가 비로소 그寃魂들의 하소를듯고 裵座首의夫妻를부르고 薔花가 落胎한것을 가저오라고嚴命하엿다 그리하여그들은 卽時불리워지고 落胎는 解剖에부치게 되엿다 그러나그것은落胎한것이아니오 쥐엿다이리하야 府使는곳許氏를死刑에處하고 그兄弟의殺骸는 고요히 墓穴에무텨주게 되엿다. 그後裵座首는 다시 尹女尹氏와結婚하야 雙女를나하 그들과同日同時에出生한 平壤李進士의雙男과結婚을식혓다

우리는 이小說에서 殘忍無道한 繼母의 非人間을 暴露함을 보앗다, 그리고 여기서 人道主義的 勸善懲惡的인 觀戒的內容을 차즐수가잇섯다 이 小說은 이리하야 그當時讀者의 繼母型에게 한개 커-다란 警告를던진것이다。

沈淸傳의種類

沈淸傳은 一女性의孝의 極을 取扱한作品으로서 그文體는 歌劇體로되엿다. 이는 春香傳과가티 巷間에만히 愛讀되는小說로서 이제 그種類를 調査해보면

沈 淸 傳 (漢文本)
심 청 젼 (한글本三種)(全州土版一種)
심 청 가
沈淸王后傳 (呂圭亭本)
江 上 蓮 (新小說)
日文沈淸傳 (朝鮮傑作集中)

等의 六種이잇다 그런데 이 沈淸傳은 一孝女의犧牲的 精神의 發露에依하야 盲父의눈이 열린다는것으로서 이런類의小說은 翻成義傳、楊豐雲傳에서도 볼수잇다

近世愛慾篇

鄭乙善傳의虛構

이鄭乙善傳도 李朝肅宗時小說의 하나이라는것은 前述함과 갓거니와 이제그梗槪를 살펴보면다음과 가튼 悲劇이 이小說의全幕을 흐르고 잇다

「時代는嘉靖年間-곳슴은慶北(上左道)鷄林府 慈山村-여긔 鄭尙書가 살고 잇섯다 그의일홈은 진회이엿는데 그는 少年에登科한 名望잇는 사람이엿다 그러나政界가몰란하야지므로그만자리를 내여노코 故鄕에 도라가 구룸속에 밧갈기와 달아래 고기낙기로 일삼는 閑暇한 몸이되엿다 그러나 膝下에 子息이업슴을 恨하고 잇든中 秋年이란 딸하나를 나허두고 그안해는애처럽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尙書는 다시 後妻 盧氏를 마지하게되엿다。그러나 後妻 盧氏는 秋年을 미워하여 마지안케되엿다。그런데 秋年의 나희들어 鄭乙善이란 사람과 佳緣을 맷게되자 더한층 秋年을 미워하게되엿다。

그러나 기다리든 秋年의 幸福되는날은 오게되여 華燭洞房에 新郎新婦는 바야흐로 단꿈이 물으녹게 되엿다 이때 심술구진 繼母 盧氏는 견듸수업서 夜半에 사람을 보내여 姦夫로 假裝식혀『내愛人을 누가 뎌리고자느냐』고 웨치게 되엿다 그리하야 그들 初夜의 甘夢은 餘地도 업시 깨여지고 말게 되엿다。이러케 되고 보니 乙善은 秋年이가 處女時代에 愛人이 잇섯든줄로 잘못알고 그만 秋年을 버리고 王女와 幸福된 結婚을 하게되엿다 그러자 이것을 悲觀하고 秋年은『含寃歸泉』하게되엿다

이러케되고보니 盧氏는 自己의 奸計가 드리마젓다하야 기뻐을 禁치못하엿다 그러나 秋年이죽은뒤 그의원혼은 못살게도 盧氏와 그一族을 害치게되엿다 그리하야 盧氏와그一家는 모-다 이때문에 죽어버리게되고 또旱災가 續續되엿다 이리하야 이旱災의 慘禍은 結局愈夫人의 寃魂의 所致라하야 王은 秋年을忠烈夫人으로 封한뒤에 그원혼을풀어 주게되얏다그리고는 名藥으로써 秋年을回生식힌뒤 乙善은 두夫人을 더리고 一家가 榮昌하게 살엇다는것이다」

이는 前半에 잇서서는 現實味가 잇스나 後年에 잇서서의 죽엇든 사람이다시 蘇生한다는 것은 現實을떠난 荒唐한것이지만 如何間 이小說은 全體를通하야盧氏같은 虐待받든 子女의 慘愁가 똑똑이나타낫다고본다

興甫孝甫 (續)

그런데 이이야기는 옛날로부터누구나다아는바이오또 노래로 새로이것이만히 알려진것인데最近에는이것이 레코-드에 吹込된것이 여러種類가잇다

레코-드化된興夫傳

레코-드化된 興夫傳은 여러가지 形態로되야 다타령만으로 或은 이小說全體를 部分部分이 난혼것等이잇다 이제各會社別로 보면다음과갓다

◇……◇

컬럼비아盤
중타령 金昌煥
興甫쪼겨나는데 朴綠珠
興甫傳 金楚香
박타령 宋萬甲
興甫비는데 林방울

시에론盤
興夫妻기가마혀 朴綠珠
박타는데 同
돈타령 同
제비路程記 同
興夫自嘆歌 李花中仙
自嘆歌 林방울
중타령 韓成俊

폴리도-루盤
박타령 朴綠珠

以上으로써 各레코-드會社의 興夫傳의 레코-드化된種類를列擧하엿거니와 이興夫傳을 그것이비록 蒙古의박타는處女를그대로 朝鮮化식혓다하드래도 이것이 朝鮮一般大衆에게는 만히 알려진것이다

時調의起源과그形態 (二)

李 秉 岐

저재녀러신고요 즌데를드듸욜셰라 어느이다노코시라 내가논뎌점그룸레라 라는지 俗樂歌詞에 나오는 靑山別曲의

살어리살어리랏다 청산에살어리랏다
멀위랑드래랑먹고 청산에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셩 알라리알라

라는지가 다 그것이고 또는童謠形、—지금도 어린이들이 부르고 잇는 그것에도 만흐니

꼿
인정 뎡
바라 뎡
삼경령에 고고마떠엇다

라는 巡邏잡이노래라든지 또는

짱아 짱아 고추짱아
이리오면 사는니라
저리가면 죽는니라

라하는 잠자리노래들이 그例이다。

모든 노래가운대에 가장眞率하고 素朴하고 그리고 原始的으로 볼수잇는

民謠나童謠에

이러한形式의것이 만흥을보면우리조선에서는 當初부터天性으로이러한形式의노래를 조하하든것이고 조하함으로 이러한노래를만히 부르고 만히짓고 만히전하든것이고 전하면서 發達된것이 三國時代에 잇어서는이른바鄕歌이다。

鄕歌의形式에도 여러가지가잇지마는 그中 代表되는것을 들어보면

三國遺事에 나타나

는 月明師의 죽은누의를 위하여 營齋를하고 지은노래의

生死길은 이에잇아매저히고
나는간다말도 몰으다일으고가닛고
이닉마울일흔닙혜
이에더에떠덜닙히여한부리 가지에나고
가는곧몰으온뎌
阿也 彌陀刹애맛나온나道닷가 기다리고다

와가튼것인데 그中間의 한두句節쯤 省略하고보면 곳 短歌의形式이 될것이다 더욱이그러하다고할것이 이鄕歌의 끗句節첫머리의『阿也』라는句가 阿耶、後句、落句또는 여러가지말로쓰이엇고 꼭 一定하게 되어잇는점이 마치

短歌끝句節

이첫머리의 一定한 三字句와도 꼭가튼것이다。

그런데 三國時代에는 鄕歌로하여 天地怪變도消滅케하고 天地鬼神도 感動케하고 賊徒도還善케하고 그걸 專攻하는 郎徒도 몃千몃萬이 되엇든만큼 그 極盛함은 말할것도 업지마는그 燦爛하든 鄕歌의꼿도 그時代와 함께 어느덧 시드러버리고 高麗때에 이르러서는 거긔서 또 短歌의움이 도다난것이다。그것이점점 자라다가 李朝에드러와서는 더욱 그枝葉이번성하엿다 이러하여

短歌의作家

도만혀졋스며 그걸 노래로 부르는이도 만혀스며 따라서 그曲調의種類도 여러가지가 잇스며 또는그걸蒐集하여 적어노흔 冊도적지안흐나 다만 可惜하엿음은 그걸 한娛樂으로 아려술뿐이고 敬重하고 高尙하게 여기지안흔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名稱이 高麗以前에는 업섯다고假定하드라도 그와가튼노래의形式이잇섯든것만은 分明한 事實이다。그리고또 靑丘永言이나 歌曲源流가튼 노래冊에 적혀잇는 高句麗의 乙巴素 百濟의 成忠、高麗의 禹倬、崔冲、郭輿、李兆年、、李存吾、元天錫、李穡、吉再의 노래라는것들도 모다 이短歌의 一定한 形式으로 된것이다、그中 乙巴素、成忠의것은 그때그사람의 지은것이라고 꼭 미듬수는 업스나 高麗때에 벌서

이러한形式

의短歌들이 잇섯다함은 틀림이 업다。

具本雄氏試筆

月印千江之曲解題 (2)

—한글로노래한最古의文獻—

金 允 經

詮道者가 是經이요 體道者가是佛이시니 謂是典者는 所貫廻光以自照요 切忌執指留筌이니라嗚呼라梵軸이 崇積이어든觀者가 猶難於讚誦하거니와方言이 膽作하면 聞者가悉得以景仰하리니 肆與宗宰勳戚百官四衆과 結願於不朽하며 植德本於無窮하야䆠神安民衆하며境靜祚固하며 時泰而 歲有하며 福襲而災消하노니 以向所修功德으로 廻向實際하야願共一切有情과速至覺王者地하노라

天順三年(世祖四年,西曆一四五九)乙卯七月七日序

도한 아序文에 依하여그制撰의顚末과 目的을 分明히 알것습니다

『月印千江』의 뜻은부처(佛)가 百億世界에 化身하여 敎化함이 마치 달이 즈믄(千) 가람(江)에 비침과 갓다』함이외다。그리고 第一卷 첫머리에는 訓民正音의 全文이 十五頁으로되어 실리어 잇는데 이것이야말로우리한글의 根本인 貴한 材料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月印千江之曲 龍飛御天歌와 한가지로 한글로 된 노래의 最古 文獻이니 前者가佛敎에 關한 노래로 最古임과 同樣으로 後者는 佛敎에 關한 노래로 最古한것입니다。이 책의 價値를 말한다면佛敎 文獻上으로는 勿論이고 우리 文學史上또는 한글發達史上、또는言語變遷史上 업지못할貴重한材料가되는것입니다

이제傳하는 月印千江之曲은宣祖元年(西曆一五六八)十月 慶基池北方寺開板인第一、第二卷과어재어디의板인지 아직參考하지못한 第十三、第十四卷과 宣祖二年(西曆一五六九)論山 雙溪寺開板인第二十一卷뿐입니다。이中에 第一卷과 第二卷은 그板木이이제慶州箕方寺에잇는데 三、四年前과 今年十月에도 有志한이가數十部씩 박아다가 나누어가진일이잇고 第二十一卷의板木은雙溪寺에아직까지 傳하므로 이것도二、三年前과 今年十月에 有志한이들이박아다가 나누어가진일이잇습니다 그러한데 第一卷에는 四枚가 업서지고 第二卷은二枚가 업서지고 第二十一卷은三十八枚가 업서지엇습니다。第十三、第十四卷은 어디에板木이잇는지 알지못하나 그板本은오직小倉進平氏만 가지고잇는데 筆者도 年前 展覽會에서 琉璃板속으로 바라볼뿐이엇는 故로 그것이 어느때 어느곳에서開板된것인지 仔細히알기어렵습니다 그러한데 모두몃卷으로全秩을이루엇든것인지도알기어렵게 落秩貝으로만 傳한은 우리學界를爲하야 甚히愛惜한일이라 하것습니다 그板本이나 板木을 가지신분이 계시다면 하루바삐學界에紹介하여주기를 이機會에 다시한번 懇望하는바외다

富川
素砂驛前 面協議員 李聖煥

京畿道富川郡五丁面遠美里三七ノ 廣濟膏製造本舖 元濟堂醫院 李成根

素砂計理組合

素砂驛前 京畿道會議員 神部正雄

公立普通學校後援會會長 崔炳熙

素砂面

富川郡吾丁面事務所 職員一同

京仁線素砂驛前 京城興產株式會社素砂出張員 鄭允謨

富川郡廳 許燮 外職員一同

元仁常

富川面協議員 茂錦松平

京仁線 素砂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穀物貿易精米業 文完成

素砂精米所

面協議員 趙泰鶴

素砂警察官駐在所員一同

素砂畜業組合

穀物商 吳彰煥

仁川府花平里五七 金萬興

素砂驛員一同

仁川府宮町二丁目 橫田藥房 振替京城五一二六番 電話九七三番

京仁線素砂驛前 鐵道貨物取扱 穀物及肥料 食鹽及其他 雜貨販賣 普興商會 主李載乾

富平商會 主李康九

京仁線素砂驛前 大聖美髮館 主金堯鎬

京仁線素砂驛前 素新自動車部 主崔允玉

素砂面事務所 朴汝澤

素砂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素砂代行營業所

素砂農業倉庫 坂口太兵衛

馬場忠太郎

文川
文川郡雲林面 佳銀金山 主金武祚

文川郡草面陵前里 東明學校 金觀鉉

文川邑 安重鉉

文川各官公署

文川邑 朴種完

文川邑 ㊊運送店

咸南文川邑 文川砥石商會 崔明昊

文川邑 司法代書人 安奎鉉

文川邑 各種布木商 柳根緝

文川農園

文川邑 醫師商店 主金昌鎬

文川邑 良大製造、肥料販賣 主全永淳

文川邑 富產製藥店 主申聖淳

文川舊邑 穀物貿易 朴敬淵

全澤瑾

文川舊邑 布木商 金秉煥

文川邑內 朴喜榮

文川邑 兄弟商店 崔用七

文川舊邑 姜淳澤

文川邑 司法代書 陳憲周

文川邑 中國料理 興榮館

文川邑 李南岳

文川邑 村山農園

文川邑 雜貨商業 曹恩商店

文川邑 全淳鎬

文川邑 不老酒店 吳玄鎬

文川玉農園 全□俊

文川邑 □□□
文川郡草面陵前里 金成浩
文川邑 金東奎
文川邑 和洋雜貨敷物商 金錫童
文川邑 布木商 黃泰勳
文川邑 金鍾泰商店
文川邑 黃□俊
文川邑 大元製油所

博川
博川警察署 職員一同

博川郡博川面 柳世鐸

博川郡邑內 李得春

博川郡邑內 俞允七

博川郡邑內 李吉叟

博川郡邑內 李泰一

博川邑內春日旅館 洪利斗

博川邑內 錦生義

博川郡邑內貿易委託業 金堅五商店

博川郡邑內 趙鍾錫

博川郡邑內 安宅奎

博川邑內 金然澤

博川郡邑內 尹德之

博川郡邑內 金潤杰

博川郡邑內 長春館

博川驛前 金剛商會

博川郡廳 職員一同

博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博川面 職員一同

博川水利組合

博川郡邑內 野津益三

博川郡邑內 松村大進

東亞蠶絲株式會社 博川出張所 宅間由藏

博川驛前 ◉運送店

㊊共成運輸組 組合長 李山內 總務主任 洪承殷 電話三四番

博川驛前 孟北貨物自動車合資會社

博川邑內 中華料理 東江園 主王兆福

博川驛前大通 諸和洋紙 印刷 文具商 大光堂印刷所 電話三五番

博川郡博川面內川洞 朴炳葉

博川驛前 ㊅運送部

博川郡邑內 藤山明治

博川郡邑內 坂本幹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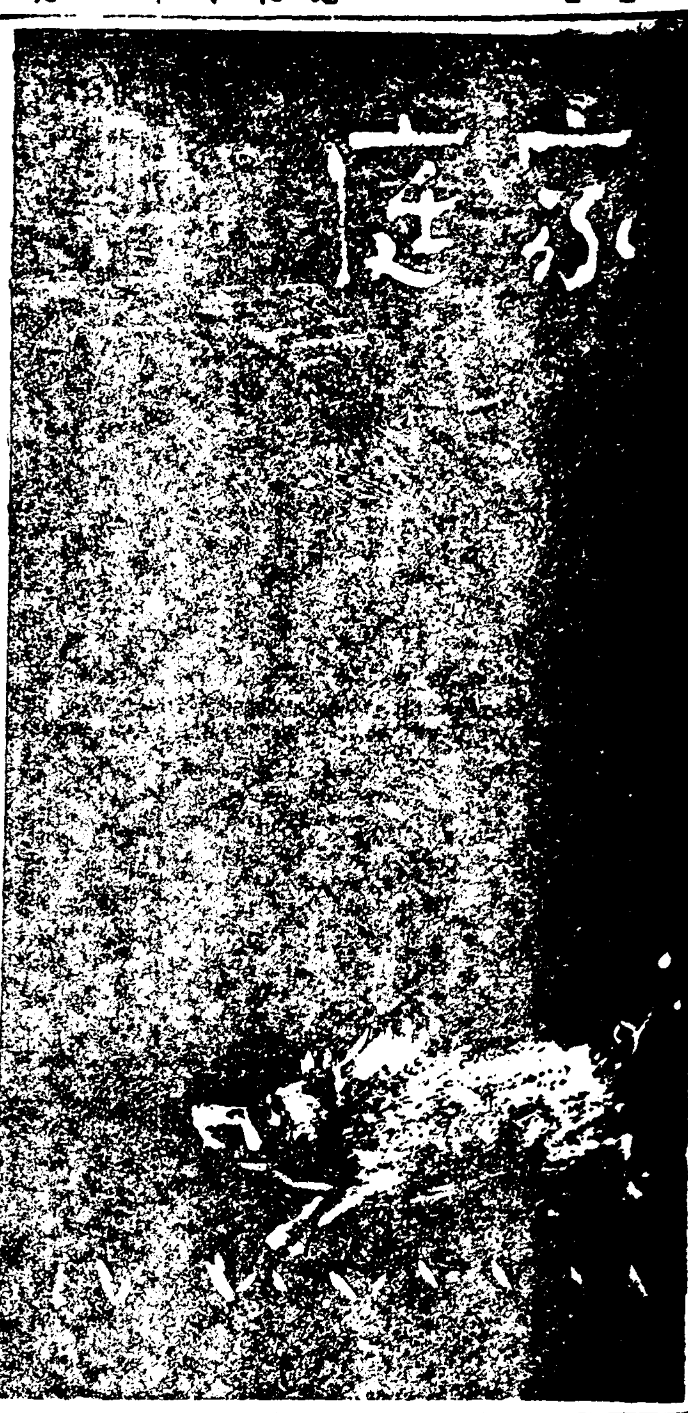
博川邑內 張炳健

博川驛前本町 食料雜貨商 林商吉 電話二九番

博川郡邑內 綿絲布目貨商 同元興 電話八番

博川郡邑內 藥種商 金鼎奎

博川醫院 金禮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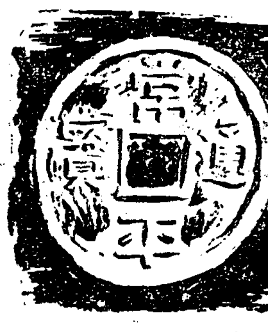


健康 智識 金錢 現代三大福(현대삼대복)타령(打鈴)

빕니다 새해에 복만이바드소서!

人間活悲劇에는 『돈療法』이 第一

우는아이에게돈一錢



돈이잇는세상에서는 돈이잇서야합니다 이놈하나만업스면 옛날의 재상의아들도 허는수업는거렁뱅이요 그놈만잇스면 어제에 거렁뱅이도 산사가되고량반이됩니다

돈이업스면 인물이만 조흔사람도 안해가업고 돈만잇스면칩을몃츨어더도 본마누라가 모르는체하는세상입니다 지식이암만만흔사람도 돈잇는사람아페가서아첨을해야 주머니에 돈이드러올수가잇습니다

어린애도 압비가 주머니에서 돈을꺼내주어야따르고 아모리열정을가진 애인도돈이잇서야 반가운낫빗이한결가틀것입니다 친구도 돈이잇서야 의리를지켜주고 돈이잇서야죽은시체라도 호강을할수가 잇습니다 살어서도 돈속에서도 돈입니다

돈만잇스면 백치(白痴)아들을 가지고도 명문거족의 절대가인을어들수가잇고 돈만잇스면 낫놋코기억자도몰라도 대학졸신의고답적(高踏的)인뒤풍수늙이인데리터성과도결혼식을 할수가잇습니다돈잇는애인을 딴녀자에게빼앗겻다고 자살하는녀자형놈이형놈커녕 제아비하고 돈대문에송사를하는자, 돈이라면 공금을횡령하는등 뇌물로 돈을밧는등하야 버티고다니든 그유지신사가감옥에서 봉두를 부치거나 똥통을 메여야합니다 거룩한사람에게도 돈이아름답고 약한자에게도 돈이 거룩한것입니다

결혼주례에도 돈, 정조(貞操)에도돈 제가 조하서바친 정조라도 약속업는돈만안주어도 세상에대고 고함치는 숙녀제씨, 돈안가지고는 이세상이 큰일나는세상입니다 먹고사러야 한다는것보담 돈이잇서야 산다고해야옳을세상입니다 돈미테 머리를숙이지안는 사람이 어듸잇겟습닛가?

여러분 돈돌흔드러소리를 내보십시요 어제까지도 겻눈으로도 안보든자가 얄구진 눈우숨을치고 입을나춤거리며 턱미테서 알른거리는 것을보실것입니다

또아모리 기구나는 재조를가지고 이지구에 천당을맨들재조가잇서도 돈이업스면 안될때가올것입니다

이세상에모든 싸홈은 사랑과 돈싸홈이지만 그사랑, 인정문제로싸호는 그싸홈도돈까닭이만습니다 남이돈을만히가저도싸홈 너무안가저도싸홈, 결국 사람은돈때문에살고 돈때문에 죽는셈입니다

그러기에 제아모리 위대한사람이라도 이돈이란것이 업서가지고는 그위대한인물이 못되는것입니다 성전에드러가서도 돈이잇서야 그신앙심을 표시할때도잇습니다

이러케 이돈이 우리를지배하지만 이돈때문에 더러운 일홈을갓게되고 이돈으로해서 비인간이되는 수가잇습니다

물론여러분은 돈을모호서야합니다 죽도록모하야합니다 그러나 유태인의 별명은 돈모만호나 인색하고 전후남북사업은세계어느구석에가서구 대답히하기때문에 쭈-라고해서 돈일에서부터 내여쫏겻습니다 그러나그것은 유태인 전체의 죄가아닙어다 그중의몃사람의쭈-로하여서 전유태인에게 치명상을주엇는지도모릅니다 돈은 깨끗기는어려워도 더럽기는 쉬운것입니다

까막눈의헛기운 아는놈의정말힘

―地球우에금을긋는붓―

시체삼대복가운데에 한가지중요한 지식(知識)이것은 누구나업서서는 안될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령장이란 최고의 지위를 갓고잇게 된것도 이지식이 잇는때문입니다

×

지식은 무형의것이기 때문에 그형체도 그향긔도 아-모것도 업는것이지만 이지식을 가진사람은 그가진사람자산은 말할것도 업고 그것이 대인관게에잇서도 아는듯 몰으는듯 업서서는 안될것이라는것이 느껴지는것입니다 그리하야 지식잇는사람은 자연히인격이 서게되는것입니다

×

지식의필요는이뿐에 끈치는것이안입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도 긔실은 이 지식의 활동입니다 하늘을 날으는 비행긔의 긔적도 그것이 결코 기적이 안이고 긔차 자동차도별스러운것이 안이라는것을 알게되는것도 결국은 지식의 소산입니다

선(線)을가지고 또는 선이업시 수륙면만리라도 그말소리를 전할수잇는 전신(電信)도 결국은지식이 비저낸(독개비)입니다

×

로시아 격언에 「글을 몰으는이는 눈을감고 벼랑낭에 서고잇는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잇지만 이것은 글을 몰우는사람을두고 한말인데두 이러하거든 하물며 지식을 갓지안코야 이세상이 암흑화될것 가터서 어떠케살수가 잇는것이게습니가?

×

지식은 문명을 말하는것이오 결국 문명된 사람은 지식을가진국민이 만타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런반면에 지식을 만히 갓지못한국민을 가진나라는 결국에잇서서 문명되지 못한 나라라고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세상을 지배하는것은 결국에 잇서서 문명국이오 지배를 당하는 나라는 지식이 업는나라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얼마나 인생생활에 업지못할것인지를 알수잇는것입니다

×

요컨대 사람이 하로 세끼의 밥을 먹어야만 사는것은 누구나 아는일입니다 이것은유체의 신진대사를식히려는것 즉다시말하자면 그음식물에서 영양을섭취하야 육체를 튼튼히 하자는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육체적양식이라면 지식은 정신적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인생생활에 절대로 필요한것입니다

그대여아는가? 「목숨」오래쓰는법

돈안밧는健康大賣出

빕니다! 제발빕니다! 나는맛나는사람에게마다 건강을빕니다 나는 떼병으로삼년째고생을하면서 절실히늣긴것은 건강이엇습니다 건강한사람처럼 복만흔사람은업는것가태요 엇재서건강이복이냐? 뭇지안아도 한합이지만 나처럼 절실히늣긴사람은 나가튼처지에잇는사람외에 모를것입니다

곰배파리, 절름바리, 벙어리, 장님이성한사람을볼때부러웟겟습니까 안부러웟겟습니까? 아모죄업시억울하게 모든사람에게 빼앗기고도 기운이부처서 대여들지못하고도라슬때 몸약한것이 한탄되지안어요, 건강이란것이 반듯이 힘센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나 확실히『힘』인것에 틀림업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권세도 힘이요 구루마를 끄는힘도 힘이요 미인이못사나이의마음을 흔드러놋는 것도힘인것과 가티 건강도 그런의미의힘이될수 잇습니다

아츰에먹은밥이 저녁때가 되도록까지 뱃속에 괴여 잇서서 끼룩끼룩하는, 위장병(胃腸病)을 몰리치는것도 건강의힘이 아니면안되고 밤에잠못자고 머리속에억천만가지 생각이석기고 얼키어서 뒹찌부두두한것을 업새게하는것도 건강의힘입니다 새벽일즉 찬밥덩이를 여페끼고나가서 다섯식구먹이를 버러드리는힘도 무슨힘이나 역시건강의힘입니다 약방으로, 병원으로나갈돈을 못나가게 주머니끈을단단히 졸라매는힘도 건강의힘이올시다

◇

『설마 굶어죽기야하랴!』 하는원측을세워노코생각한다면── 몸건강하고 돈업서도 기맥힙노릇이겟지요그러나 빈틉빈틉하는 뱃심으로 백여나는수잇습니다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연명해나갈수라도잇지안습니가 그러나 백만원돈이잇고 몸약하야 이부자리신세만지고 누어이서보십시요 그러케처량한 신세는업슬것입니다 건강치못하다는것이 반듯이 다죽게 되엿다는것을 아닙니다 그러나절국에 가서는 건강치못하다는것은 차차쇠도라올 죽엄을 의미하기때문에 그러한신세를 미리 예약해둔셈바게 안됩니다 죽엄처럼 인생에 잇서서 서그푼것이 또잇것습니까 한해를더살고 단한시간이라도 더살라면 전세계의돈을 다모라와도 그목숨을 살수업습니다 그러나 『건강』이것으로는 능히 이문제를 해결할수잇습니다 아주손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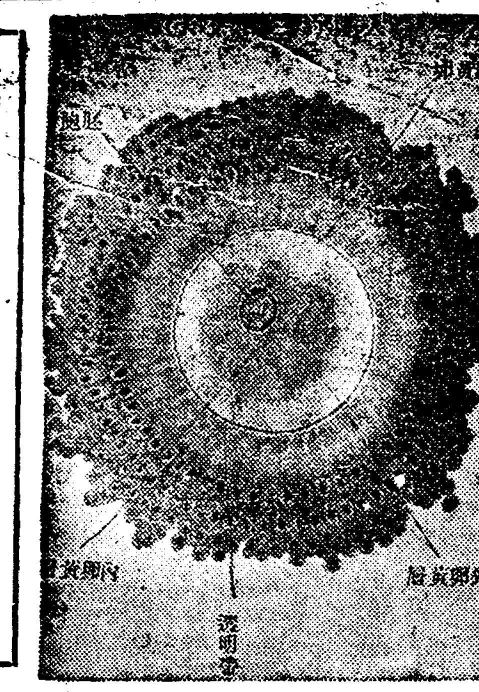
◇

그럼 우리는 엇더케 우리몸을 건강하게 할것인가? 그방법이야 만켓지요 그러나 적당한 운동의필요는 물론 몸에해로운일을하지안코 몸을앳기는습관을키우는점에잇서일치한것입니다

영웅렬사 절대가인도 한번은겪근 생전력사

暗室에서 默默히 열달동안 궁리가「엇더커면사람이될꾸!」

올챙이적을 생각못한다고 깨구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자긔네가 열달동안 어머니배ㅅ속에서 어떤모냥으로 되야잇섯고 또 어떠케 지냇다는것을 조금도 생각못합니다. 코ㅅ물 눈물을 철철흘리며 미거부리든때의 이약이만 들어도 아닌보살하는 점잔흔터수에 어머니배ㅅ속때의 이약이를듯는다면 더한층 긔가막히는 날일찌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배ㅅ속에서 나오지안햇스면 어대서나왓겟습니까? 그것이 이미 나의 지나온력사라면 그것을 한번 알아두어야할것이아니겟습니까? 몰행일찌 행일찌 사람의긔억은 룡과시반동목이다. 한살두살때의일도 긔억치못하고잇거든 하물며 그아전의일이야 긔억해낼도리가 업습니다. 듯기실흔분들러서고 들으려는분은 이리모히시요. 나도 궁금하고 당신도 궁금한 어머니배ㅅ속때의우리를한번엿봅시다



第一月 처음달, 사람의 알속에는 태아(胎芽)라는것이 잇서 이것이나부의꼬처럼도다나서자라기시작한뒤부터는 은근히 조키도하고아프로 날일이 궁금도 하야집니다 맷달에는열서너날부터아히나히를할부인이잇는데 그러한알어머니가 차차로불러 오르는배를 문지르고 이것저것 생각하는그 꼴을 그리어본다면 조금름흥스러운말이나 도리어공상스럽기도 하고앙징스럽기도합니다.

第五月 다섯달 째되면, 지난달보다 꿈쟁이나커지고, 또 벌떡벌떡놀기시작합니다

다섯달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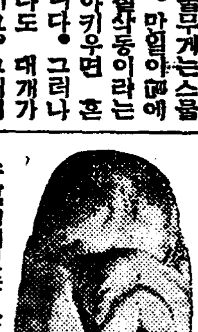
이달의우리는 키가약일곱치아홉푼 몸무게가약일곱량에덜돈중이나되야집니다. 어항에서붕어놀듯이 재벌벌떡어리고 심장에서나는소리가 어머니의뱃가죽을 뚤코밖그로 까지들리게됩니다. 우리배어머니가 우리를배고잇다는그것도 이날부터라야비로소 실히알게됩니다

正規의胎動

第七月 일곱재 달 이때 조산(早産)하면 칠삭동이될만하면 키울수잇스나 시원치안습니다

일곱달이라

키는 한자남짓 몸무게는스물여섯량될락말락하다. 만일이때에 나허노흐면 그것이칠삭동이라는것입니다. 잘보호하야키우면 흔히 살아날수도잇습니다. 그러나 그런아히는 비록커나도 대개가 시원치못한모양 이지요. 그러키에 조금못난사람을보면 칠삭동이라고하지안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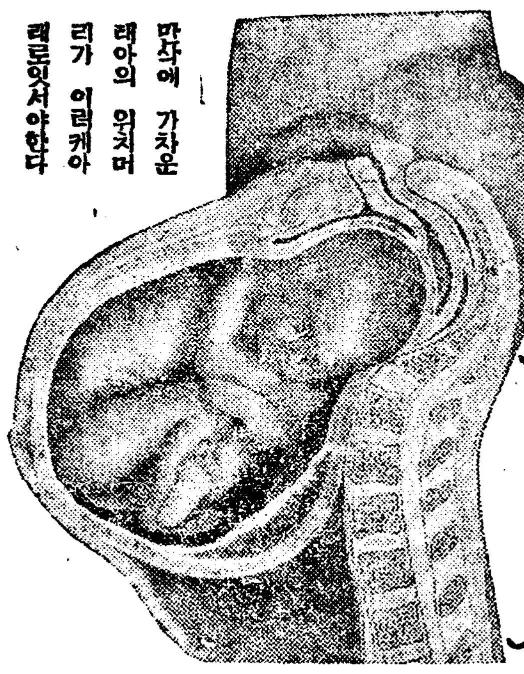


子宮內에잇는 正規의胎動 (알궁둥보는것)

第八月 여덜ㅅ달, 키는 한자세치, 몸무게 설흔아홉량중, 몸에솜털이 벗힙니다

여덜달이랑

털이덥히고 살가죽은 불그레이



만삭에 가차운 태아의 위치며 리가 이러케아래로잇서야한다

第十月 열달째, 만삭입니다 온올 내일하다가 봄시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으아!」

열달이다

응아ㅅ소리를질르며 어머니배

이나넘습니다. 이만침 큰사람으로 어머니고생을터사키는것이미

이부니 미우니해도 세상에 태여니서부터 할말이지 어머니뱃속에서 자릴때를두고 말하면 우리눈에 괴상하달뿐입니다 더구나 입신 일.이.삼개월된 태아는 그형상이 도야지 개이등속의 일.이.삼개월된 태와 흡사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올챙이적일을 생각한다면 남을 미우니 고으니할것도 업고까닭업시 원수될필요도 업지안하요 사진은 입신 오개월된태아의 형상인대 크기도 이사진만콤비게 안됩니다 충제목다음에든 사진은 사람의 알(人卵)

清安

忠北線清安驛前 滋養強壯 蔘茸補益水 株式會社模範賣藥商會 代理店 各種藥品 衛生材料 工業藥品 化粧品類 鶴標물감 世一藥房 主 禹濬

槐山郡會坪面松山里 松山振興會 松山振興會長

松山青年團 松山青年團長

槐山郡會坪面松山里 沙谷青年團 沙谷青年團長 沙谷振興會 沙谷婦人會

忠北線清安驛前 曾坪釀造組合

忠北線清安驛前 荒尾喜太郎

忠北線清安驛前 米穀貿易商 任鳳彬

忠北線清安驛前 醫師 金聖煥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新成館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迎春館

槐山郡會坪面龍江里 永昌鑛業所 安鎬宗

槐山郡清安邑內 曺□翼

槐山郡清安邑內 和春堂藥房 金洪建

槐山郡 道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槐山郡 沙梨面事務所

槐山郡道安面老岩里 延集熙

槐山郡沙梨面中興里 面協議員 柳秉瑞

槐山郡沙梨安面芙蓉里 面協議員 尹浩榮

槐山郡沙梨面中興里 振興會長 柳宇赫

槐山郡道安面石谷里 曉星義塾

槐山郡沙梨面中興里 愛林稧長 洪鍾華

槐山郡沙梨面中興里 中興講習所

槐山郡沙梨面中興里 區長 柳興河

槐山郡道岩面松亭里 延珏熙

槐山郡沙梨面中興里 面協議員 柳善永

槐山郡沙梨面禾山里 面協議員 金在星

槐山郡沙梨面梨谷里 面協議員 尹權重

槐山郡沙梨面 沙潭里愛林稧

槐山郡道安面松亭里 金永桼

槐山郡沙梨面沙潭里 面協議員 禹鍾學

定州

定州郡馬山面清亭洞 定州納清亭鍮器株式會社 總營業所 定州邑城外洞 電話五三番

昌健醫院 各科診察及入院隨意 ×光線診斷及治療 人工太陽燈治療 院長 李昌健 定州邑城外洞 電話六一番

海陸商會 海陸產物 貿易委託 主 許璡 定州邑城內洞

平北定州邑內 丸加印刷所 印刷 和洋紙 文具 主 盧泳根

뱃속에서 열달 나서 열두달

第二月

두째달, 태아는겨우 계란만한크기가 됩니다. 이때에 입덧이나서속 메사꺼하는어머니도잇습니다

첫달이라 이때의우리는「태아」였읍니다 그러나태아라는태(胎)자와 아하라는 아(兒)자가아니요 태ㅅ자는 그태ㅅ자에 싹이라는아(芽)자라나요 이때는 우리가개새끼인지 되지새끼인지 사람의 새끼인지 전연구별이나서지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라는아ㅅ자 괴마한칭호라고 싹아ㅅ자는 모양이지요 첫달에는우리가 ?어머니도그배ㅅ속에우리가들엇는지안들엇는지 아시지못하고계십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벌써다소의변화가생기겟지만은 현저치못하야 잘모르고지나는것입니다

두째달이라 이때부터우리는 싹아ㅅ자의태아로부터 아히아ㅅ자의태아로승격을하게됩니다. 왜그런고하면벌써우리는적은닭알만큼이나 커서 팔다리도길고도 좀불룩해지는등 시모든형체가사람의 새끼라는것을표시하게되는까닭입니다. 몸치 달부터는 우리네어머니들의생리적변화가좀더커집니다. 그것도부인네나름이나 입덧되는분은벌써구역질이난다는등 몸이뇌곤하다는등 앓키를시작하지만 그러치안흔분은 몸이고달푼듯 별로아모러치도안습니다

第三月

세째달, 겨우사람의 형상이됩니다 한웅 부인네는 이때에 입덧이납니다

석달이라 이때의우리는 머리 몸통이사지가모다 구분될뿐이아니라거위알만큼이나 커다라케되야버립니다. 또어느정도까지남녀의구별도 할수잇게 됩니다. 세째달에는 우리네의 어머니들이대개로 입덧이 더치어저서 시큼한개살구를 먹고십다는등 식성도괴상해지고 자칫하면끝을내어 화를도다 성질도고만야릇하게 변합니다. 나히젊은부인네중에는이것이 큰병인듯이나역이고 친정어버이에게 편지질을하야 가며 친정에가서 편히살다가 죽어라고애원하는 분이혼합니다

第四月

네째달, 키는세치서푼, 무게는섬량중(三十匁)가량되고 남녀구별이확실하게됩니다

넉달이라 이달의우리는 키가세치서푼이상 다섯치에까지이르고 몸무게도 석량중이넘어 제법컸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틀림없이됨어 날뿐이 아니라 원둥에솜털이돗기시작하는동시 조금식움속이기시작합니다 이때 큰병이낫다고 큰심걱정을하는 젊은신부인은배속에서 무엇이논다고 한층더라당을하다가 어머니나 올케에게 솔며시 물어보아 아히배인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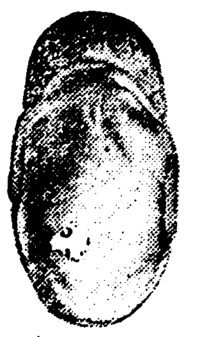
이 달전에는 아모리 … 사람들려낸다고 그들도결국배 … 로 봇ㅅ하는이상합 … 합니다

키는 한자세치가량, 몸무게는 一백나 … 설흔아홉량쯤됩니다 … 봄에는솜 … 온이의얼굴과 갓습니다 … ㅅ속으로부터 뛰어나옵니다 … 인하듯 …

第六月

여섯ㅅ재ㅅ달, 키는 아홉치, 무게는열대량 가량되고, 어머니는입덧이 거칩니다

여섯달이라 키는 약아홉치남짓 몸무게는 열대량될락말락하다 마침이달에 나허놋는다면 꿈질거리다가고만 죽어버립니다 우리네어머니의입덧은 싹저치어버리나 얼골빛이 검으레해지고 좀부석부석한수도 잇습니다 배가점점불러지니까 몸짐이붓습니다



子宮내에잇는 正規의胎勢 (뒤로본것)

第九月

아홉달이되면 키는한자여섯치 무게는쉰혼냥, 몸에잇는주룸이업서집니다

아홉달이랑 키는 약한자여섯치, 몸무게는 약쉰혼냥, 몸이통통하고 살가죽의주룸은업서집니다. 우리네어머니의배우로 한곳올라 갓다가 다음달에는 조금도로나려옵니다

열달에 삼신마누라가인제고만 나가라고 떼다밀어쫏는다고하지만 우리도벌서 떠잇기가비좁은 어머니뱃속에 어듸로부터 삼신할머니가들어와서 떼다밀어줄수 잇겟습니까? 우리는벌서 키가 한자다섯치요 몸무게가쉰혼냥 … 리까? 열제업는양반에는 열달을지나고도 어머니뱃속에서 놀근사람도잇답니다. 그러나그것이야 희귀한일이아닙니까? 열달바께못잇슨우리들은 열달이약이나하고그만둡시다그려.

설날 길분날
동무들아 모여라
우리함께 춤추자

灘月 金景源 氏 試筆

「으아」부터「맘마」할때까지 세상에나서 열두달

★第一月

갓난아이의몸은 몹시 섬약합니다만 한편으로본다면 봄의새싹처럼 생장력(生長力)이 가득차잇서 오늘과 내일이 사뭇다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팔다리를꼼작꼼작거리며 뻣고, 우름소리도큼니다 이우름소리큰것이말하자면 건강하다는 표적이지요. 갓날때의 몸무게는 평균여든량중(八百匁)계집애는 사내애보다 좀가볍습니다 난지이삼일동안은 배내똥을차고 엇저구해서 생리적으로무게가 주럿다가 일주일내지열흘만되면 제대로회복되여가지고 그후부터는 작구작구느러갑니다 뱃꼽은 일주일만되면 제절로 떠러지며 젓은생후열두시간후은이십사시간만에먹도록하는것이조흐며 젓먹이는시간은 세시간만에한번식 십분동안먹이되 하로에일곱번이 조흡니다 그리고 나어서 두달동안은 밧갓으로나가지 안는것이 좃습니다

★第二月

일반건강아의발육상태를말하자면 사내애 一관二八五몸메 계집애 一관二二六몸메 이것이평균체중입니다 키는 사내애 一척九촌三부 계집애 一척九촌

지난달에는 팔다리를 기게적으로놀리지만 이달부터는 다소 의식적으로 놀립니다 말하자면 주먹을 폇다쥐엇다하고 고개도 들며멀뚱멀뚱하게보고 아모의미업시 웃저다빙긋웃고 눈으로는무엇을 물끄럼하게됩니다 즉 움즉이는것 가만잇는것을분간합니다

★第三月

몸무게—
사내애 一관四五九몸메
계집애 一관四一六몸메
키를놓갓가트면
사내애 二척
계집애 一척九촌칠푼
이상은 모다일반유아의평균발육상황입니다 수족을재법 쭉쭉 뻣고, 목을놀립니다 작난감이고 손고락을 갓다가 손에대여주면 절ㅅ줄을 알게되며 눈에얼른거리는것을 똑바로보고 소리나는쪽으로 머리를 돌리게되며 방긋방긋잘웃습니다 그런데 사내애는 암만해도 계집애보다늦됩니다

젓먹이는시간 세시간반마다 십분내지십오분동안젓을 빨리는것이조흔데 하로여섯번이면그만이니 그이상은 먹이지마십시요

★第四月

발육상태
사내애—몸무게 一관六一六몸메, 키는 二척오푼。
계집애무게 一관 五三九몸메 키는二척。
이맘때가 되면 몸을 뒤집을줄을 알게되고 어푸려저서는 제힘으로 머리를처듭니다 가차이무엇이잇스면 웅켜쥐일랴고합니다 그리고무어라고 쭝얼쭝얼합니다 몸을이르켜세워쥐고 잇스면 두발을 쭉버티거나 퍼덕어리거나합니다 빗갈을분간하게되기때문에 울긋불긋한 작난감을 보고조와서훨개짓을 합니다 젓은 네시간만에한번식 십오분동안먹이되 하로다섯번。

★第五月

표준발육상태
사내애—몸무게一관七五七몸메, 키는二척八촌。
계집애—몸무게一관六四八몸메, 키는二척七푼。
지난달과도 달라서 손만주면 뻣뻣이 안저잇습니다 그리고입속에 손가락을 너키도하고 무엇이고 웅켜주면 좀처럼노치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소리만나도 얼른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멀고가차운것을 분별하게되고, 부르는소리가나면 그쪽을향하야 분명치안흔소리로 무어라고쭝얼쭝얼합니다 젓은 지난달과가티 네시간만에 십오분식 하로에다섯번이 적당합니다。

★第六月

발육상태
사내애—무게 一관八八五몸메, 키 二척一촌二푼。
계집애—무게 一관七三三몸메, 키 二척一촌一분。
누어서도 머리를들게되고 손발의운동도 제마음대로되여 무엇이든지 잡을줄 알게되며, 물건을분별할 능력이 생겨나기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젓꼭지라든지, 우유병을보면 조와합니다 또낫슬가리게되고, 일른애는 젓니(齒)가납니다 젓먹이는시간은 지난달과갓습니다。

★第七月

사내애—
키 二척一촌九푼
무게 二관
계집애—
무게 一관八八二몸메
키 二척一촌오푼
다리를 벌리고 안처노으면얼마동안은 제혼자 안자잇습니다 몸을뒤집기도하려니와 물건을용켜주며 가지고시푼것이잇스면바른손을 그쪽으로내밉니다 사람의 낫츨알게될뿐만아니라 음식의맛도아라 단것을주면 조와합니다 그리고 니가나기시작합니다 젓먹이는 시간은 지난달과가티 압흐로도 갓습니다

★第八月

사내애—
키 二척二촌五눈
무게 二관一〇〇몸메
계집애—
키 二척二촌二푼
무게 一관九四七몸메
등미리만하든에가 배미리도하게되고 문턱가튼데의지하야 잠시동안서잇기도합니다 그리고앵무새모양으로 말숭내도내고, 집안사람얼골을 다알게되여 모르는사람이 가차이가면 얼골을내돌리거나울거나합니다

★第九月

사내애—
키 二척二촌七푼
무게 二관一八九몸메
계집애—
키 二척二촌六푼
무게 二관〇七二몸메
저혼저잇슬수잇고, 제혼자안저 다섯다하면서 조와서 웃습니다 귀도밝아오고, 젓이외에 남먹는 음식을먹고십허합니다

★第十月

사내애—
키 二척三촌二푼
무게 二관四六五몸메
계집애—
키 二척三촌
무게 二관一四九몸메
물건을집고 꽤오래서잇슬수잇스며 따로서서도 한동안잇슬수잇습니다 감정(感情)을얼골에나타내여 제하자는대로안하면 얼골을 붉혀가지고 노하거나 울나합니다 그리고 문구녁도 뚤는소리가 듯기조와서 함부로막 뚤코 그릇도 막 덜거어리면서 그소리를듯기조와합니다 이달부터 젓을떼기시작하야 돌이되든아주떼여버립시요

★第十一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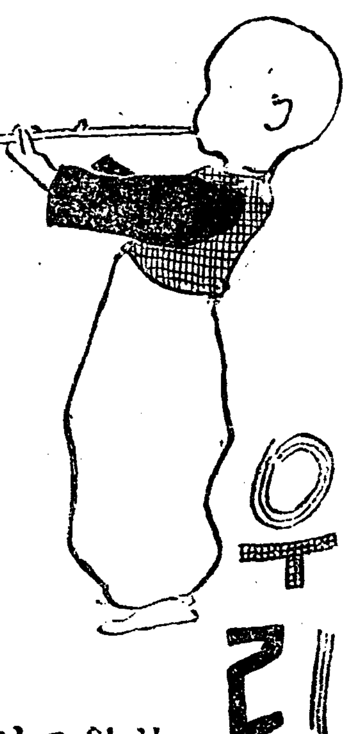
사내애—
키 二척三촌八푼
무게 二관三三〇몸메
계집애—
키 二척三촌七푼
무게 二관二一七몸메
문턱, 책상, 밥상을붓들고거러다니며 책상설합을 잡아때기도하고 밥상을뒤집거나 기어오르기도하고 일른애는것기도하고 말숭내도제법합니다

★第十二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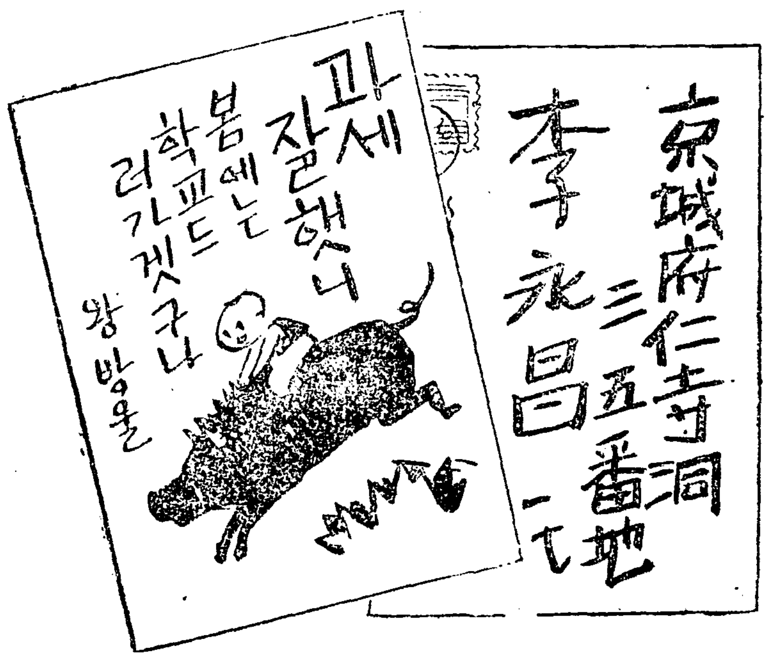
사내애—
키 二척四촌三푼
무게 二관四〇〇몸메
계집애—
키 二척四촌一푼
무게 二관二六六몸메
업혀다니거나 안기거나하든것보다도 제발로기어다니고 것기를 조와합니다 기쓰고 박게나가기를원합니다 말소리도 좀분명하고 남의말도아라듯고서 거기에따른 동작을하며 음식맛을아라 사랑과앙을 확실히 분별합니다 작난도만이늘기때문에 밤에 잠도잘잡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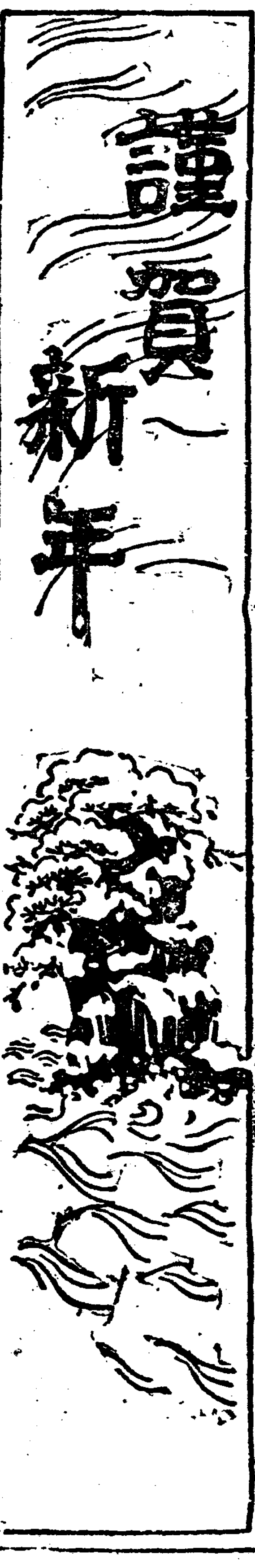
이러케 열두달만키우면 우선어린애 키우는데 한끔은넘긴셈이되지요



동무들아 오늘이
설날이다 기분날
이다 나히를 한살
더먹는 날이다 우
리는 키가 더커지
고 기우이 더세여
진다 배우는 것도
만허지고 아는것
도 만허진다 이깁
분날 우리 싸우지
말고 잘놀자
오늘 아츰 영창이



우리차지한테 녀하ㅅ장이 왓습니다 무어라고 썻나 읽어보서요



職員一同

忠北線淸安驛前 李聲魯

忠北線淸安驛前 穀物商 劉章烈

忠北線淸安驛前 賣藥醫院 李麒魯

槐山郡曾坪面曾坪里 金商 朴東伯

忠北線淸安驛前 永興自轉車店 白海聲

忠北線淸安驛前 穀商米 朴寅東

槐山郡曾坪面龍江里 鄭昌福

槐山郡曾坪面松山里 區長 李根奭

槐山郡曾坪面松山里 顔子山靑年團

忠北線淸安驛前 孫仁源木工場

槐山郡曾坪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北線淸安驛前 米穀商 金榮鑄

忠北線淸安驛前 尹致勳時計店

忠北線淸安驛前 永興商店 崔建柱

忠北線淸安驛前 金厚卿

忠北線淸安驛前 金思允素麵製造所

忠北線淸安驛前 米穀商 李鍾璇

忠北線淸安驛前 米穀商 張基韓

槐山郡曾坪面曾坪里 區長 金顯國

忠北線淸安驛前 天成永商店

忠北線淸安驛前 原田民男

忠北線淸安驛前 崔平國

槐山郡曾坪面彌岩里 印章彫刻業 李璨鍾

槐山郡曾坪面彌岩里 金思九

槐山郡曾坪面連灘里 上平振興會長 鄭鎭海

槐山郡曾坪面連灘里 區長 李復圭

槐山郡淸安邑 日新醫院 醫生 張斌植

槐山郡淸安面孝根里 尹柱寅

槐山郡淸安面孝根里 靑年團一同

槐山郡淸安邑內 綢緞布木商 李松得

槐山郡淸安面 協議員 辛康勉

槐山郡淸安面文芳里 辛學勉

槐山郡淸安面孝根里 靑年團副團長 張秉禹

槐山郡淸安面孝根里 張鉉稷

淸安面邑新里 金學奎

忠北線道安驛前 三星社釀造場

槐山郡道安面事務所 職員一同

槐山郡道安面松亭里 老舖 金鑛事務所

槐山郡道安面道塘里 李相燮

平北定州郡安興面 李根宅
振替京城一五·七三七番 私書函定州局一二三號

玄米製造 穀物貿易 東一商會 主 崔吉 [illegible]

玄米製造 肥料種子製造 後松商會 主 吳 [illegible] 電話三五番

定州邑內 方商鎭

朝鮮運送株式會社 定州代行營業所 定州驛前 電話四三六番

輔仁醫院 院長 盧輔根 定州邑城外洞 電話七一番

精米 玄米製造 太陽商店 主 金泰浩 電話五八番

玄米白米 肥料農具 貿易販賣 三協商會 主 崔信浩 電話一二三番 支店 龜城

平北定州邑內 精白米 唐麵 石鹼 製造販賣 大陸商會 電話二七番 振替(タイリク) 私書函第七號

定州邑內 吳恒龍

定州邑內 方在胤 電話六九番

玄米製造穀物貿易 協成商會 主任 李學明

定州釀造所 電話六五番

安定局

定新木工場 主 [illegible]

眼科專門 淸眼醫院 院長 金鎭成

京義線定州南門通 和洋菓子製造 砂糖水飴 各種淸酒 粉食料品 金盛商店 主 金 [illegible] 支店 本町通り 製菓部

司法代書人 朴章五 定州邑城內洞

定州警察署

定州醫院 李 [illegible] 電話六二番

定州金融組合 電話十七番

定州邑內 裁衣堂 主 鄭瑞柱

定州邑城內洞 司法代書人 金善行